

박근혜 대통령 이란 방문 성과

기획특집 경제혁신 3개년 계획 ② 기업·창업 활력

중점기획 가정의 달, 가족 속으로

한류 청병 'K-콘'을 아십니까?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영도산
대한민국을 여는
정방3.0



스캔하면
공감 블로그를
만납니다



1948년 5월 10일

유권자로서 최초로 권리를 행사한 날



제헌국회의원선거(1948. 5. 10) 투표소 모습 / 유권기록보존소



제헌국회의원선거(1948. 5. 10) 투표소 기표 모습 / 작가 미상

2016년 5월 10일 · 유권자의 날



2016년 5월 16일 · 유권자가 되는 성년의 날



경제혁신은 계속돼야 한다



김복응
페인트팜 이사

● 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들이 필요하겠지만 그중 하나로 이른바 ‘때’가 맞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그 제품이 시장 상황과 맞지 않는다면 사장되고 말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회사의 ‘S-paint’는 시대의 흐름을 잘 타고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한다.

페인트팜(주)는 이제 막 꿈을 펼치기 시작한 신생기업이다. 2015년 신개념 리어스크린 페인트인 ‘S-paint’를 출시해 현재 전 세계 30여 개국의 바이어들과 수출 상담을 벌이고 있다. 불과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역동적인 기업 활동이 이뤄졌다.

S-paint는 평범한 유리창에 페인트를 바르고 건물 내부에서 빔프로젝터를 비추면 건물 외부에서 밝고 선명한 영상을 볼 수 있는 신개념 페인트다. 이 제품은 외부 광고, 각종 이벤트, 홈시어터, 회의실, 터치스크린, 광고차량 등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잘나갔던 것은 아니다. 가장 근본적인 사업화의 걸림돌은 옥외광고에 대한 규제였다. 그동안 옥외광고는 간판 중심의 허가제로 규제 위주였다. 하지만 정부는 옥외광고 규제를 개선하고 관련 산업을 진흥시킨다는 목표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7월부터 시행한다. 하반기부터는 동영상 광고판, 전자게시대 등 창의적인 디지털 옥외광고물을 흔하게 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의 규제 완화가 디지털 관련 옥외광고를 하는 우리의 사업 문을 활짝 열어줄 것이다. 2020년에는 관련 산업이 두 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창업 초기 자금 문제와 기업 경영에 관련된 사항은 신생기업이면 누구나 겪는 문제다. 우리 회사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창업자금과 기술보증기금을 적극 활용했다. 또한 사업 모델 개발과 실행을 위한 사업화는 창업진흥원이 주관하는 K-스타트업의 창업 맞춤형 지원사업과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는 기능성 화학소재산업 지원사업의 혜택을 톡톡히 받고 있다.

제품 판매를 위한 마케팅 역시 초기기업에는 어려운 숙제 중 하나

“하반기부터는 동영상 광고판,
전자게시대 등 창의적인
디지털 옥외광고물을 흔하게
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의 규제 완화가
디지털 관련 옥외광고를 하는
우리의 사업 문을
활짝 열어줄 것이다.”

다. 우리 회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마케팅을 구분해 진행했다. 이 중 국내외 전시회 참가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았다. 특히 중소기업청의 후원을 받아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가 주관한 미국 라스베이거스 디지털 사이니지 엑스포(DSE) 참가는 우리 회사가 전 세계 업계 관계자를 만나는 데 가장 결정적인 계기였다. 이후 홍콩 전자전과 베트남 하노이 엑스포에 참가해 제품 확산을 위한 중요한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

경제혁신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지방의 작은 기업이 세계로 진출하는 통로를 만들어주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것 중 그 어느 하나라도 빠졌다면 우리 회사의 현재는 있기 어려웠을 것이다. 최근 국내 기업들의 수출 실적이 감소하고 있다는 우울한 소식을 접하고 있다. 다행히도 우리 회사는 중국, 일본, 미국, 캐나다, 칠레,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란,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튀니지, 이탈리아, 러시아, 카자흐스탄, 에콰도르 등의 바이어와 활발한 수출 상담을 진행 중이라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관련 부처가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좀 더 발로 뛰면서 산업현장의 현실을 함께 이해하고 노력하는 새로운 역할까지 해준다면 우리와 같은 신생기업의 선전 소식을 더 많이 듣게 되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G**



CONTENTS

- 01 이 주의 공감
- 04 독자마당
- 06 공감 사진관

박근혜 대통령 이란 방문

- 08 제2 중동 불·북핵 압박 ‘쌍끌이 외교’ 성과
경제 재도약 모멘텀 마련했다
- 11 북한 핵포기 압박 강화
이란 “한반도 비핵화가 기본 원칙” 확인
- 12 한·이란 경제 외교 ‘대박’
이란서 최대 52조 원 경제성과 기대
중동으로 가는 길 활짝 열렸다
- 14 이란 언론·주요 외신 반응
“비무슬림 국가에서 온 첫 여성 지도자
양국 관계 새로운 창 열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 ② 기업·창업 활력

- 17 창조경제, 30년 번영 주춧돌 놓다
- 18 창업·기업하기 좋은 나라 ‘창조경제’로 재도약 일군다
- 20 창조경제혁신센터
일자리 창출, 창업 보육
지역경제 활성화 허브로 자리매김
- 22 벤처·창업 활성화
벤처 3만, 신설 법인 9만 개 돌파
신성장동력 맥박이 힘차게 뛰다
- 24 특화형 창조 거점 - 문화창조융합벨트
미래 먹거리 문화의 씨앗
세계로 미래로 확실히 키운다



2016. 05. 09
No.354 | 통권 455
korea.kr/gonggam



표지 이야기

박근혜 대통령이 2박 4일간의 이란 국빈 방문을 마치고 5월 4일 귀국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이란 방문을 통해 제2 중동 불의 발판을 마련하고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이란의 지지를 확인하는 외교 성과를 거뒀다. 사진은 박 대통령이 5월 2일 오후(현지시간) 테헤란 밀라드타워에서 열린 ‘K-컬처 전시’에 참석해 한복을 입은 이란 젊은이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청와대)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행하는 <위클리 공감> 저작물은 ‘공공누리(www.kogil.or.kr)’의 출처 표시, 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진, 일러스트, 만화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공공누리는 공공기관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 허락 표시제도입니다.

- <위클리 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발행일 2016. 05. 09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김종덕 제작기획 국민소통실 홍보콘텐츠과(044-203-3014)
제작협력 동아일보사 인쇄제본 삼화인쇄
구독문의 02-2625-3294 shgwak@korea.kr
구독 주소변경 신청 수신자부담 전화 080-851-0183



08



22



48

26 정상외교와 FTA 통한 수출 지원
경제사절단 동행 세일즈 외교
중소기업 해외 진출 날개 달았다

28 크라우드펀딩
“펀딩 첫날 8000만 원 조달 꿈만 같죠”
온라인에서 투자받아 성장 발판 마련

30 제조업혁신 3.0
‘스마트’ 만난 제조업
혁신 꽃 피우고 수익성 높다

32 산업연계교육 활성화 선도대학(PRIME) 21개교 선정
대학 구조개혁, 미래 유망 분야 인재 키운다

34 규제프리존 도입
지역전략산업 선정, 국가 미래 성장동력 육성

35 유망 서비스업 원스톱 지원
69만 개 일자리 만들어진다

중점 기획 | 가족 속으로

42 평범하지만 특별한 7인7색 이야기
나에게 가족이란 ○○○이다

47 건강한 가정 위한 정부 지원제도
육아 실습부터 주부 재취업까지
행복의 문을 두드리세요

정책 일반

36 맞춤형 주거 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
행복주택·뉴스테이 30만 가구 공급

38 방과후학교 활성화
초등 돌봄 기능 추가하고 창의융합형·예체능 프로그램 확대

40 어려운 서민들에게 원스톱 금융 서비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33개로 늘린다

41 만 12세 여아 자궁경부암 백신 6월부터 무료 접종
중증치매 24시간 방문요양 서비스 하루 2만 원

문화, 교양, 인물 & 라이프

48 6월 유럽과 북미서 K-컬처 페스티벌 시작
사랑해요, 케이콘(KCON)
커져라, 코리아 프리미엄

50 경복궁 고종 서재 ‘집옥재’ 일반 공개
궁궐 속 작은도서관에서 역사를 읽네

52 캠페인
예약 펍크 양심불량
생존 위협 “노쇼는 NO!”

54 트렌드
반려동물 대신 반려식물
내겐 너무 예쁜 그 모습

56 2016 봄 여행주간
부담 없이 다녀오는 당일 여행

58 연재 | 문화웅성, 지금
역사와 문화가 흐르는 그곳
길을 걷다, 인생을 걷다

60 스포츠
야구장의 꽃 치어리더, 열 번째 선수예요

62 생활과학 이야기
찬물과 더운물 무엇을 마셔야 할까요?

63 홀로공감
보석 천 개의 유혹

64 소통과 공감
늪지 않게 사는 법

알림 게시판

더 가까이, 더 빠르게

디지털로 만나는 <위클리 공감>

모바일, 태블릿, PC 등 어디서나 <위클리 공감>의 주요 기사를 편하게 받아보고 공유하세요.

<위클리 공감> 디지털 기사, 이곳에서 만나세요!



탭인 리디박스 블로그 페이스북

해당 서비스는 iOS, 안드로이드 기반의 모든 디바이스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누리집 www.korea.kr/gonggam정책브리핑 www.korea.kr www.tapin.com/app ridibooks.com koreablog.korea.kr www.facebook.com/wegonggam

공유와 댓글을 통해 많이 참여해주세요.



대한체육회 스포츠7330 봉사단 3기 모집

활동 내용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프로구단 전·현직 선수와 체육 재능 나눔, 행사 지원 및 생활체육 정책 홍보 등**참가 자격** 대학생, 생활체육 동호인(개인 또는 그룹 신청 가능)**모집 기간** 5월 16~20일**지원 방법** 대한체육회 누리집(www.sports.or.kr)에서 참가신청서를 내려받은 뒤 작성하여 이메일(isp@sports.or.kr)로 제출**활동 혜택** 최종 우수 자원봉사자에게 차년도 해외 봉사활동 현장 방문 기회 제공, 대한체육회장 명의 인증서 발급, 조별 활동지원금 지급**주 최** 대한체육회**문 의** 대한체육회 지역체육진흥부(02-2144-8203)

어린이 꿈틀 동요 UCC 공모전

공모 주제 어린이 꿈틀 동요로 도시농업을 알릴 수 있는 영상, 도시농업을 주제로 한 5분 이내의 동요(택 1)**응모 자격** 제한 없음(개인 또는 단체)**접수 기간** 6월 8일까지**지원 방법** 5분 이내 UCC 동영상(avi, wmv, mp4 형식)을 이메일(ucc@thinkcontest.com)로 제출**수상 혜택** 최우수상 1점 60만 원, 우수상 2점 각 25만 원, 장려상 3점 각 15만 원**주 최** 농림수산식품부**문 의** 공모전 운영사무국 (02-334-9044)

<위클리 공감>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고자 다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5월 19일 오전까지 이메일(shgwak@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관심 있게 읽은 기사, 기획특집에 대한 의견, 앞으로 다뤘으면 하는 내용 등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시면 <위클리 공감> 제작에 반영하겠습니다.

삼세판 퀴즈

352호 삼세판 퀴즈

정답

01 이란 02 청년창업

03 모디슈머

당첨자

강은경(강원 동해시 평원로)

김태훈(서울 동작구 매봉로)

송종윤(경남 창원군 남지읍 매전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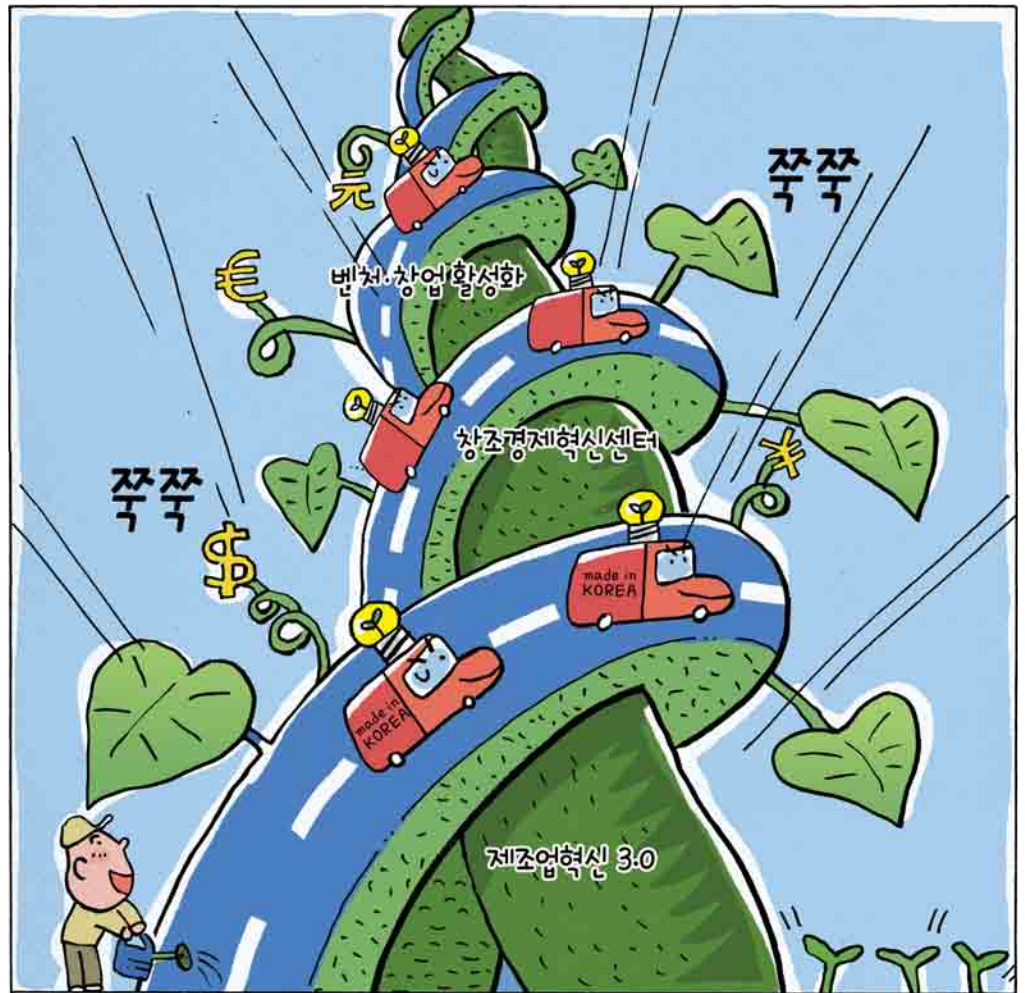
이동주(광주 북구 우치로 537번길)

이은선(충남 당진시 원당로)

- 01 국내외 경기 침체에 따른 저성장 등의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책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1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 계획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를 주요 정책기조로 삼아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술을 기반으로 한 창업을 활성화하고 벤처·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왔다.
- 02 ○○○○통합지원센터는 금융 문제로 힘든 서민들을 대상으로 종합상담, 심사, 대출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곳이다. 미소금융 등의 서민금융 유관기관은 물론 저축은행도 참여하고 있어 햇살론 상담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저자세 등과 연계한 일자리 상담, 복지 서비스 안내 등 고용·복지 서비스도 제공한다.
- 03 ○○○○이란 말은 식물이 반려동물처럼 외로움을 달래주거나 도시 생활에 지친 현대인을 위로해주는 '힐링' 효과를 가져다준다는 뜻에서 나왔다.

<위클리 공감>을 읽어보세요. 쉽게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빈칸의 답을 '삼세판 퀴즈 354호'라는 제목과 함께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 5월 19일 오전까지 이메일(shgwak@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우편엽서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홍보콘텐츠과 <위클리 공감> 담당자 앞(우 30119)

공감 카툰



기업하기 좋은 나라, 창업하기 좋은 사회.

편집실에서

벌써 여름이 오나 싶게 강한 햇살이 내리쬐더니 이내 거센 폭우가 쏟아집니다. 날이 갠 뒤엔 세찬 바람이 사방을 뒤흔듭니다. 옷장 맨 아래칸으로 자리를 옮긴 짧은 소매옷들을 내오려던 손길은 드라이 클리닝을 마치고 비닐을 뒤집어쓴 트렌치코트로 향합니다. 며칠간의 날씨는 흡사 상대의 마음을 떠보려 감정의 끈을 풀고 조이기를 반복하는 '썸' 타는 연인. 해와 바람, 구름의 움직임에 마음을 쉬이 내주는 저로서 '밀당(밀고 당기기)'의 고수 봄 날씨 탓에 좀처럼 일이 손에 잡히지 않더군요.

형클어진 마음을 빗질하는 데 도움이 될까 싶어 하얀 안개꽃을 책상 위로 옮겨왔습니다. 부러질 듯 가녀린 몸에 앙증맞은 얼굴을 한 꽃들이 재잘대는 모습에 절로 미소가 지어집니다. 날이 선 서류들 틈에서 웅기종기 모여 군락을 이루고 있는 꽃송이들은 사방으로 부유하던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혀줍니다.

식물과 교감하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이라는 말 따라 '반려식물'이라 부릅니다. 같은 자리에서 말없이, 고운 원색의 빛을 발산하는 이들은 화색빛 도시인의 마음을 물들입니다. 자연은 자연 속에서 느끼는 게 최고겠지만 여의치 않다면 책상 위, 베란다 한쪽에 자연을 옮겨와보시길 권합니다. 심을 '식(植)'자 쓰는 식물은 우리 맘속에도 행복의 씨앗을 심어줄 거라 보장합니다. 사람은 식물을 키우고, 식물은 사람을 키운다는 말이 절절합니다.

| 조영실 위클리 공감 기자 |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자란다!”

5월 2일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함양초등학교에서 열린 볼 운동회에서 전교생들이 큰 공 윷기기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뉴시스(사진=함양군청 김용만 주무관 제공)

뉴스



1 2박 4일 일정으로 이란을 국빈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5월 2일 오전(현지시간) 사드아버드 줌후리궁에서 하산 로하니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앞서 사전 환담을 하고 있다. 2 박 대통령이 이란 전통의상을 입은 화동에게 꽃다발을 받고 있다. 이란 의전 관행상 이례적인 특별 배려다. 3 박 대통령의 이번 순방은 '제2의 중동 불'을 일으키는 한편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이란의 지지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뉴스



정안대

제2 중동 불·북핵 압박 '쌍끌이 외교' 성과 경제 재도약 모멘텀 마련했다

김민주 | 위클리 공감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5월 1일부터 3일까지 이란을 국빈 방문해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과 수교 54년 만에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공동성명 채택을 포함한 다양한 합의를 도출하는 등 한·이란 상호 신뢰와 협력관계의 토대를 구축했다. 박 대통령의 이번 순방은 경제 제재가 풀린 이란 시장을 선점해 '제2의 중동 불'을 일으키는 한편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냄으로써 경제 재도약과 북핵 압박의 쌍끌이 외교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란 방문 1일 차 일정으로 5월 2일 오전(이하 현지시간)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과 사전 환담 및 확대 정상회담, 연이은 오찬 회담을 가졌다. 이날 박 대통령은 "이란 방문은 1962년 양국 간 수교 후 정상 차원에서는 54년 만에 처음 이뤄진 것으로, 양국 관계에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란

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토대로 발전과 번영을 추구하는 가운데 이란 방문이 이루어져 양국 간 실질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국 간 수교 후 54년 만에 정상회담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포괄적 협력 확대

로하니 대통령은 "이란은 예전부터 한국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다"며 "앞으로 한국과의 관계를 전략적 경제협력관계로 발전시켜가면서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 협력이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양국 간 교역·투자 정상화를 위한 기반 조성, 전통적인 협력 분야인 인프라 및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신성장동력 분야인 보건 의료, 문화, 정보통신기술(ICT) 등에서의 새로운 협력사업 모색 등 한·이란 실질 협력 강화방안에 관한 의견을 교

정외대



4 박근혜 대통령이 5월 2일(현지시간) 사드아바드 줌후리궁에서 하산 로하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5** 5월 2일(현지시간) 이란 테헤란 밀라드타워에서 열린 한·이란 문화공감 공연에서 태권도 시범단의 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6** 박 대통령 방문에 맞춰 테헤란 밀라드타워에서 열린 'K-컬처' 한복체험관에서 한복으로 갈아 입은 이란 대학생들이 "한복 사랑해요"라고 외치며 손으로 하트를 그려 보이고 있다.



태권도



한복체험관

환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박 대통령은 “한국의 기술력과 자본력, 이란의 풍부한 자원이 잘 결합되면 훌륭한 협력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러한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를 토대로 양국 간 협력 잠재력을 확대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두 정상은 양국 간 문화·교육 교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박 대통령은 양국 간 장기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는 문화 및 교육 분야 등에서의 교류 확대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양국에 문화원 건립, 민간 간의 K-타워 설치 등을 통해 양국 간 문화교류 및 산업 발전이 촉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상회담 이후에는 법무, 문화, 교육, 과학기술, 산업, 보건, 금융 등의 분야에서의 양자 협력관계를 규정하는 양국 주요 조약·협정 및 기관 간 양해각서(MOU) 서명식이 개최됐다. 이날 서명식에서는 66건의 MOU가 체결돼 양국이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5월 2일 오후에는 이란에서 가장 높은 성직자이자 실질적 통치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와 면담을 갖고 한·이란 양자관계 발전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하메네이는 신정일치 국가인 이란의 종신직 최고 통치자로 두 사람의 만남은

양국 관계 발전을 상징하는 자리가 됐다. 박 대통령은 2일 마지막 일정으로 양국 전통음악 협연, 전통 스포츠인 한국의 태권도와 이란의 주르카네이(곤봉을 이용해 체력을 단련하는 이란 전통 무술) 시연으로 구성된 문화공연을 관람하고 이후 한복, 한식, 한지를 주제로 한 기획전인 ‘전통문화 콘텐츠 전시·체험전’을 참관했다. 한·이란 문화공연에서는 국립국악원 창작악단과 이란 국립오케스트라가 한국의 ‘아리랑 연곡’과 이란의 ‘이븐시나’를 협연했다. 이어 고대 페르시아 훈련법을 스포츠화한 주르카네이와 태권도 공연이 펼쳐졌다. 이란 현지에서 태권도는 수련 인구가 200만 명에 달하고 전국적으로 3500여 곳에서 태권도장이 운영되고 있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 이번 태권도 공연에는 1600여 명의 청중들이 절도 있는 태권도의 품새와 고난도의 격파에 열광적인 호응을 보였다.

두 나라 국민들, 문화적·역사적으로 인연 깊어 ‘한국문화주간’으로 양국의 문화적 공감대 확장

박 대통령은 공연이 끝난 이후 인사말을 통해 “이란의 태권도 수련 인구가 200만 명이나 되고 또 ‘주몽’이나 ‘대장금’ 같은 한국 드라마가 이란 국민 여러분한테 큰 사랑을 받았다고 알고 있다”며 “우리 두 나라가 국민들이 가까워진 데에는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오랜 인연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문화를 통해 양국 국민들의 우정

뉴스



1 박근혜 대통령이 5월 3일 오후(현지시간) 테헤란 이란국립박물관을 방문해 파르티아 청동왕자상을 관람하고 있다. 2 박근혜 대통령이 5월 3일 오전(현지시간) 이란 테헤란 에스파나스 팰리스호텔에서 열린 한-이란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모하메드 레자 네맛자데(오른쪽) 이란 산업광물무역부 장관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3 박근혜 대통령이 5월 2일 테헤란 밀라드타워에서 열린 K-컬처 전시회에 참석해 알리 자나티 이란 문화이슬람지도부 장관, 에브테카르 부통령과 함께 한국 음식을 관람하고 있다.



뉴스

뉴스

이 돈독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한식, 한복, 한지와 한방의료 등 우리 전통문화를 전시·체험하는 ‘K-컬처 전시’에 참관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김치를 대표로 한국 식문화의 중요한 가치를 양국 문화가 서로 어울릴 수 있도록 보여준 점이 인상 깊다”며 “특히 양파김치와 토마토김치의 경우 이란 현지의 재료를 활용해 만들 수 있게 응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앞으로 양국의 식문화 교류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란은 박 대통령 방문기간을 ‘한국문화주간’으로 설정하고, 양국의 전통문화를 조명하는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했다. 부대행사로는 한국 단색화와 달항아리 전시를 비롯해 드라마 상영회, 한·이란 시의 만남 등 현대미술, 드라마, 문학 등 한국 문화를 폭넓게 소개하는 행사들이 진행됐다.

이란의 경제 제재 해제, 양국 경제 협력 확대 동포사회, 양국 교류 증진 위한 가교 역할

박 대통령은 이란 국빈 방문 2일 차 일정으로 5월 3일 한-이란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다. 이란 테헤란에서 열린 포럼에는 사상 최대 규모로 구성된 경제사절단 230여 명도 함께 참석했으며, 이란 측 경제인 170여 명이 함께해 이란의 경제 제재 해제를 계기로 양국 간 경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됐다. 박 대통령은 이날 축사를 통해 “양국이 양국 간 교역 활성화와 투자, 건설, 수자원 관리,

박근혜 대통령 루사리 패션으로 이란의 마음 얻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란 국빈 방문에서 일정 내내 히잡의 일종인 ‘루사리’를 쓰고 이란의 국기색을 상징하는 의상을 착용해 상대국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루사리는 페르시아어로 ‘머리에 두르는 스카프’를 의미하며 이란에서는 모든 여성들이 착용한다. 박 대통령은 첫 비이슬람권 여성 지도자로 이란 문화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루사리를 착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엔 현지 여성들 사이에서 개성 표현 등 패션 아이템으로도 자유롭게 활용되고 있다.

에너지·인프라, 보건의료·문화·ICT 등으로 협력을 다각화해야 한다”며 양국 기업인들에게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5월 3일 테헤란에서 이란 동포 대표들을 접견하고,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한-이란 관계 발전을 위해 기여해온 동포들을 격려했다. 박 대통령은 이란 방문의 마지막 공식 일정으로 5월 3일 오후 이란 최대의 대표적 고고학 박물관인 국립박물관을 방문했다. 이란 국립박물관은 이란 고대시대부터 근대 시기까지 동서양 문명의 교차지에서 꽃핀 페르시아 문화와 이슬람 문화의 숨결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유서 깊은 박물관으로, 유물 30여만 점을 소장하고 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자브라엘 노칸테 박물관장과 피루제 세피드나메 국장의 안내로 고대 유물과 페르시아 문화유산 등을 돌아보고 페르시아 고대 문화와 이란 역사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6

북한 핵포기 압박 강화

이란 “한반도 비핵화가 기본 원칙” 확인



5월 2일(현지시간) 박근혜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이란 최고지도자 하메네이는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한국과 이란이 협력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북핵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으나 대북 압박에 상징적인 의미를 더한 것으로 평가된다.

김민주 | 위클리 공감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이란 국민 방문을 통해 외교·안보와 관련해서도 큰 성과를 거뒀다. 한·이란 정상회담에서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한반도 핵에 반대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데다 양국이 수교 이후 처음 채택한 공동성명에도 핵무기 불용의 원칙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이 같은 외교·안보 면에서의 성과는 전통적으로 북한의 수교국이자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오던 이란이 ‘북핵 반대’ 입장을 공식 확인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에서 고립돼 있는 북한엔 뼈 아픈 압박이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양국, 공동성명 통해 ‘핵무기 없는 세상’ 지지

하메네이 만남도 북핵 압박 상징적 의미

양국 정상은 5월 2일(현지시간) 가진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와 중동 정세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협의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북한의 핵개발은 우리 민족의 생존에 대한 위협이며, 동북아의 안정과 세계 평화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와 관련해서 이란 측이 북한대사를 불러 핵무기 반대 입장

을 전달한 것에 사의를 표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충실한 이행과 협조를 요청했다.

로하니 대통령은 “양국 간 전략적인 경제협력관계 발전을 위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면서 “이란은 세계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핵 활동도 반대하며, 중동지역은 물론 한반도에서도 핵을 없애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양국 정상은 1962년 수교 이래 처음으로 ‘포괄적 파트너십’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핵무기 없는 세상’에 대한 목표를 지지했다. 또한 두 정상은 성명서를 통해 핵 비확산 조약과 비핵화라는 양대 목표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노력들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한편, 핵무기 개발이 결코 안보를 증진시키지 못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를 강조하고, 이러한 측면에서 이란은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에 대한 한국민의 열망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란 공식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취재진과 간담회를 갖고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해 이란과 협력해나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는 것이 이번 방문의 큰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이란이 전통적으로 북한과 상당히 우호적인 관계를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했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로하니 대통령이 ‘어떠한 핵 개발도 안 된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이야기했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한반도 정세에 불안감이 생기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여러 번 강조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와의 만남 역시 대북 압박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하메네이 최고지도자는 과거 대통령 재임 시절부터 북한과 긴밀한 우호관계를 이어왔고, 1989년에는 북한을 방문해 김일성 주석과 회담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면담 자체가 대북 압박외교를 강화했다는 분석이다. **G**

한·이란 경제 외교 ‘대박’

이란서 최대 52조 원 경제성과 기대 중동으로 가는 길 활짝 열렸다

청와대



뉴시스



1 박근혜 대통령은 5월 3일 열린 한-이란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이란의 경제 제재 해제를 계기로 양국 간 경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2 사상 최대의 성과를 거둔 이란 1:1 비즈니스 상담회 모습.

박섫별 | 위클리 공감 기자

● 경제 외교의 꽃이 이란에서 활짝 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국민 방문을 계기로 한국이 이란에서 최대 456억 달러(약 52조 원) 규모의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박 대통령의 이번 이란 방문은 국제사회의 제재 해제 이후 중동의 마지막 블루오션으로 떠오른 이란과 경제 협력 차원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남겼다.

박 대통령은 5월 2일(현지시간)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경제 분야 59건을 포함해 모두 66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국이 인프라 건설, 에너지 재건 분야 등 30개 프로젝트에서 MOU와 가계약 체결 등을 통해 확보한 수주 가능 금액은 371억 달러 규모다. 여기에 바흐만 정유시설 2단계 공사(80억 달러) 등 수주가 유력한 사업까지 합친 총액은 456억 달러에 달한다.

이란, 교역 규모 5년 내 연간 300억 달러 확대 제안

인프라·에너지·산업·보건·의료·ICT 등 다양한 분야 협력 약속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예전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한·이란 교역 규모를 양국이 적극 노력해 앞으로 5년 내에 연간 300억 달러 이상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로하니 대통령은 “현

재 이란이 인프라 부문에서 엄청난 프로젝트들을 발주하고 있다”며 한국 기업들이 참여해줄 것을 희망했다. 이어 “한국 기업들의 직접 또는 합작 투자가 확대되길 바란다”며 IT, 석유화학, 석유, 가스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이스파한 정유소 등 과거 중단됐던 사업들을 재개하는 것에 이란 정부가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하면서, 이란~오만 간 파이프라인 건설 사업과 수자원 관리를 위한 박티아리 발전댐 등 새로운 사업들에서도 양국 간 협력이 구체적으로 실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가계약이 체결되면 아와즈~이스파한 철도사업, 공항 및 항만 개발 분야에서도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로하니 대통령은 전기차, 농기계, 쓰레기 처리 시스템, 하수 처리 등의 분야에서도 양국의 협력을 희망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특히 전기차, 친환경 에너지타운, 해수 담수화 등에서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박 대통령은 “신기후체제로 변화하면서 저탄소, 친환경 자동차가 아니면 미래가 밝지 않다”고 언급하고 “우리 기업이 테헤란의 노후택시를 하이브리드 택시로 교체하기로 한 것을 알고 있다”면서 전기차 분야의 협력을 강화

“이란의 국민시인 허페즈(Hafez)는 ‘우정의 나무를 심으면 그 열매는 영원한 행운이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정의 나무를 함께 심는다면 영원한 행운이 우리와 함께할 것으로 믿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 한·이란 비즈니스 포럼에서(2016. 5. 3)

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국은 친환경 에너지타운에서 바이오매스 기술을 이용해 쓰레기와 태양열을 자원화하고, 이를 에너지로 쓰고 남으면 한전에 팔고 있다”고 로하니 대통령에게 소개하고 이런 기술들이 이란에 맞춤형으로 제공되면 쓰레기를 자원화하는 기술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해수 담수화와 관련해서 “한국이 최고 기술을 갖고 있으므로 이번에 기업 간에 체결된 MOU 등을 통해 구체적인 프로젝트로 추진해나가고, 호텔 건설 등 여러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이 참여하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정보통신기술(ICT), 에너지산업 분야에서도 협력의 틀이 만들어졌다. 박 대통령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이란이 병원 건설 사업에 한국의 참여를 제안한 것에 감사함을 표시하고 “이번 사업이 양국 보건의료 협력의 상징적인 사례로 성공하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단일국가에서 제공하는 금융 지원으로는 최대 규모인 250억 달러 금융 패키지를 마련했다”고 밝혔고, 로하니 대통령은 깊은 사의를 표명하면서 “본격적인 한국 기업의 진출을 위해선 금융 분야 협력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란의 산업 고도화를 위해 필수적인 기술 고도화와 관련해서는 “한국 기업의 공동 투자와 공동 R&D 등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하고 “원유, 가스, 인프라는 물론 전자, 섬유, 농기계, 자동차 등 제조업 분야에서도 협력이 강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1 비즈니스 상담회 사상 최대 성과

바이어 494개사 참가 총 31건 6100억 규모 계약 성사

한편 박 대통령과 동행한 경제사절단도 사상 최대의 성과를 거뒀다. 5월 2일 개최된 이란 1:1 비즈니스 상담회에는 우리 기업 123개사, 이란 바이어 494개사가 참가해 904건의 상담을 진행해 총 31건을 계약하는 실질적 성과를 이뤘다. 계약 규모로 따지면 5억3700만 달러(약 6114억 원) 수준이다. 이번 성과는 지금까지 해외에서 개최된

경제사절단 1:1 비즈니스 상담회 중 우리 측 참가기업 수, 바이어 참가자 수, 상담 건수, 실질 성과 창출 규모 면에서 모두 역대 최대를 기록해 더욱 의미가 깊다.

이번 이란 방문 경제사절단과 1:1 비즈니스 상담회는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에 강력한 지원 플랫폼이 됐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실제로 이번 상담회에는 중소기업의 활약이 더욱 두드러졌다. 우리 기업 123개사 중 중소·중견기업이 112개사로 전체의 91%를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기계장비 업종이 32개사(26%)로 가장 많고, 소비재·유통, 보건의료·바이오, 자동차 부품, 플랜트·엔지니어링, IT·보안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참여했다.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을 받아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덴티스’는 이란 의료기기 바이어로부터 5년간 수술용 LED 조명 100만 달러 수입을 명시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요청받았다. 해당 바이어는 덴티스가 경제사절단에 포함되자 ‘믿을 만한 업체’라며 이란 정부 프로젝트 공동 진출 등 장기 협력관계 구축을 요청하며 MOU 체결을 제안했다. 덴티스 관계자는 “스마트공장을 도입하면서 가격·품질 경쟁력이 강화돼 해외 진출에 자신감을 얻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베텔원은 이란 제2의 자동차 회사 사이파의 자회사와 1600만 달러 규모의 알루미늄휠 제조공장 생산라인 구축 MOU를 체결했고, 특수 기능성 직물 생산업체 성광은 차도르릉 원단 500만 달러 수출을 성사시켰다. 성광 관계자는 “이란의 경제 제재 해제 이후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이 국제적으로 치열해지고 있는 시점에 이란 방문 경제사절단이 적기에 꾸려져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감사함을 표시했다.

1:1 비즈니스 상담회에는 이란 메이저 완성차 업체인 이란호드로와 사이파, 대형 건설사 자한파르스, 카이슨 엔지니어링, 이란 최대 슈퍼마켓 체인인 레파, 이란 2대 통신사업자 이란셀 등 이란의 대표 기업들이 참가했다.

정부는 이번 상담회 성과 후속 관리와 지속적인 바이어 발굴 지원을 위해 코트라 테헤란무역관 내에 ‘이란 플랜트 수주 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상시 지원체계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6**

점 보도하고 “박 대통령은 이란이 한국과 북한 사이에서 중재역을 해주길 바란다는 뜻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외신, 이란 대통령의 한반도 비핵화 발언 주목 “이란과 관계 깊은 북한을 견제한 형국”

주요 외신들도 박 대통령의 수교 54년 만의 첫 이란 방문을 다각도로 보도했다. 특히 이란 대통령의 한반도 비핵화 지지 발언이 북한과 거리 두기 아니냐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은 3일자에 “박 대통령이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한 이란의 협력을 요청했다”며 “이는 한국 정부가 예측불허의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은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기 위해 더욱 강경한 정책을 구사하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북한과 오랫동안 무역과 군사 교류를 해온 나라들의 연결고리를 표적으로 삼는 등 대북 압박을 우선순위로 삼아왔다”고 전한 바 있다.

AP통신도 이와 비슷한 입장을 전했다. AP통신은 ‘이란 대통령, 한반도 비핵화 촉구’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촉구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해 박 대통령이 이란 측에 협조를 요청했다”는 내용과 함께 이번 박 대통령의 이란 방문이 가져올 경제적 성과를 보도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수출 부진에 고심하는 한국이 정상 세일즈로 활로를 열었다”며 “이란과 관계가 깊은 북한을 견제한 형국”이라고 묘사했다. 이어 “한국은 최대의 무역 상대국 중국의 경기 부진으로 수출액이 16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며 “박 대통령은 일본 아베 총리에 앞서 이란을 방문해 수출 개선의 계기로도 연결하고 싶은 생각”이라고 썼다.

또한 요미우리는 이란 내 한류 열풍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요미우리는 “이란에서도 한국 드라마 등 한류 인기가 높아 한국 기업이 진출하는 기반이 되고 있다”며 “시청률 60~86%를 기록한 <주몽>은 방영시간이 되면 거리에 차량이 줄어들었다”고 전했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3일자에 이란 로하니 대통령의 한반도 비핵화 지지 언급에 주목했다. 마이니치는 “이란은 북한과 핵·미사일

한·이란 수교 역사

- 1962년 10월 23일 한·이란 외교관계 수립
- 1977년 양국 우호관계의 상징으로 서울에는 ‘테헤란로’, 테헤란에는 ‘서울로’ 지정
- 1978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팔레비 국왕의 초청을 받았으나 이듬해 이슬람혁명으로 왕조 실각, 박 전 대통령 서거로 성사되지 못함
- 1979년 이란 이슬람혁명 이후 미국과 수교 단절
- 1980년대 이란·이라크전 당시 북한의 이란 군수품 지원 등으로 한국과 이란 양국관계 소원해짐
- 1988년 이란·이라크전이 끝나면서 이란 정부는 한국을 모델 삼아 본격적인 경제 개발에 나섬
- 2002년 이란 핵무기 개발 본격화
- 2006년 국제사회의 이란 경제 제재 돌입
- 2015년 7월 이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미·영·프·러·중)과 핵협상 타결
- 2015년 11월 윤병세 외교부 장관 이란 방문, 한·이란 외교장관회담
- 2016년 1월 16일 국제사회의 이란 제재 해제
- 2016년 5월 1일 박근혜 대통령, 수교 54년 만에 첫 이란 방문

개발에서 협력관계에 있다고 여겨지고 있어 지명은 피했지만, (이란의) 정상에 의한 부정적 의견 표명은 이례적인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 다른 일본 매체 교도통신도 ‘이란 대통령, 북한의 핵개발 반대’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다. 교도통신은 “(이란이) 한국과의 관계 강화를 도모하는 한편, 북한과는 거리를 두려는 자세를 나타낸 셈”이라며 “이란과 적대적 관계에 있는 사실상의 핵 보유국 이스라엘, 핵실험을 되풀이하는 북한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이 귀국한 4일에는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북한의 제7차 노동당대회와 관련해 박 대통령의 이란 방문이 갖는 의미를 보도했다. 포브스는 ‘박 대통령의 이란 방문, 당대회 앞둔 악의 축 북한에는 걸림돌’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은 이란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북한은 가까운 우방국이자 사실상의 동맹국인 이란을 잃을지도 모르겠다”고 전했다.

또한 포브스는 “이란은 북한의 프로그램에 전보다 흥미가 떨어진 상황”이라며 “이란이 한국은 물론 일본 및 다수의 파트너들과 거래하며 수익성 있는 기회를 붙잡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6**

“전화 한번으로 기업 애로 해결”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

1357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는 기업의 궁금한
사항을 빠르고,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57** (월-금, 09:00~18:00)
중소기업 정책정보 포털 **기업마당**  www.1357.go.kr

자금 상담

창업자금, 신성장기반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등
중진공의 정책자금 및 기보/신보 보증관련 이용절차 상담

기술개발(R&D) 상담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등 신청부터 사업비 사용
승인까지 상담

창업 상담

법인설립절차, 공장설립, 창업보육센터 입주 문의,
창업지원 사업 신청 등 창업관련 절차/법·제도/지원
사업 상담

소상공인 상담

소기업 확인서, 노란우산공제, 온누리상품권 구매·
환불,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등 소상공인·전통
시장 지원사업 상담

판로/수출 상담

중소기업확인서, 직접생산확인제도 등 공공구매 관련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정,
수출 역량 강화사업 등 수출지원사업 관련 상담

인력 상담

산업기능요원제도,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중소기업
장기재직자 주택 특별공급 등 인력지원사업 상담

경제
영향
3개년 계획

창조경제, 30년 번영 주춧돌 놓다



창조경제혁신센터
문화창조융합벨트
정상외교·FTA
클라우드펀딩
규제프리존

‘어둠을 탓하기보다는 촛불을 켜라.’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 5월 19일 한·인도 CEO포럼에서 인용한 인도 격언이다. 세계 경제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때에 경기 회복을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보다 위기를 기회 삼아 경제의 재도약을 이끌어내겠다는 각별한 의지를 담은 표현이었다. 국민행복을 위한 제1 조건은 경제가 살아나 우리 사회 곳곳에 삶의 여유와 풍요가 스며드는 것이다. 기업이 살아나고 창업이 활발해져 질 좋은 일자리가 풍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박근혜정부의 노력이 조금씩 결실을 맺고 있다. **G**

최호열 | 위클리 공감 기자

창업·기업하기 좋은 나라 '창조경제'로 재도약 일군다

최인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월 18일 경제혁신 관련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최호열 | 위클리 공감 기자

● 세계 경기 하강에 따른 수출 부진과 내수 침체 등 나라 안팎의 도전 속에 출범한 박근혜정부가 그 해법으로 내놓은 것이 '창조경제'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 전략 중 하나인 혁신경제를 대표하는 개념. 번뜩이는 아이디어 하나가 대박사업으로 성장하는 창업 생태계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해 경제 전반에 창조적 혁신과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구상이다. 이를 위해 박근혜정부는 출범 초부터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술을 기반으로 한 창업을 활성화하고, 벤처·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해왔다. 그 결과 지난해 신설 법인이 9만 개, 벤처기업이 3만 개를 넘어서는 등 사상 최대의 벤처 창업 붐이 일고 있다. 전국 대학 창업 동아리 수도 2012년 1222개에서 지난해 4070개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신규 벤처 투자도 2조 원을 돌파해 지난 2000년 최고치(2조211억 원)를 15년 만에 경신했다. 올해 1월 초부터는 크라우드펀딩이 본격 도입돼 초기 벤처기업인들의 자금 조달이 더욱 용이하게 됐다. 외국인 투자 관련 규제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한 결과 외국인 투자도 눈에 띄게 늘었다. 지난해 외국인 직접투자가 사상 최대치인 209억 달러(약 23조7600억 원)에 달했다.

전국에 구축된 18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창조경제 구현의 주춧돌이라 할 수 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 희망

자들에게 한곳에서 기술 개발, 사업 모델, 자금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또한 대기업들이 중소·벤처기업의 사업화를 돕는 멘토로 참여해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의 상생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시스템은 사우디아라비아와 브라질에 그 모델이 수출된 데 이어 프랑스, 온두라스, 중국, 불가리아, 뉴질랜드에서도 높은 관심을 보이는 등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18개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상생문화 견인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910개 기업이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입주해 성공의 꿈을 키우고 있고, 2000여 중소기업이 멘토링 컨설팅과 원스톱 서비스 상담(금융+법률+특허)을 제공받고 있다. 그 결과 5441건의 시제품이 제작됐고, 413건에 대해 1707억여 원의 투자 유치가 성사됐다. 702건의 기술 지원과 222건의 판로 지원도 이뤄졌다.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성장한 기업들은 2016년 3월 말 기준 668억 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는 등 성과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바닷물 염도를 자동으로 측정해 수문을 원격제어하는 스마트 염전부터 홍채 인식 결제시스템, 사물인터넷(IoT)에 필요한 스마트 센서 등은 모두 전국 18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개발된 제품들이다.

문화를 창조산업의 새 동력으로 육성하는 작업에도 발벗고 나섰

2014년 1월 6일
대통령 신년 구상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

2014년 3월 19일
중기청 민간 투자 주도형
창업 지원방안 등 발표

2014년 6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업혁신 3.0 전략' 발표

2014년 9월 15일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

2015년 2월 11일
문화창조융합벨트 출범
문화창조융합센터 개소



문화창조융합센터

2015년 3월 1일
정상외교 경제사절단 최초
1:1 간담회 개최



2015년 7월 18개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 완료

2015년 12월 16일
규제프리존 도입안 발표

2015년 12월 18일
문화창조벤처단지 입주

2015년 12월 20일
한·중 FTA 발효



2015년 12월 30일
'산업연계교육 활성화
선도대학 사업(PRIME)' 발표

2016년 1월 25일
클라우드펀딩 제도 시행

2016년 2월 12일
기업활력법 제정·공포

2016년 3월 2일
문화창조아카데미 개소

2016년 3월 22일
판교창조경제밸리
스타트업 캠퍼스 개소



스타트업 캠퍼스

2016년 4월 11일
K-스타일허브
한식관 개소

2016년 3월 24일
여야 '규제프리존 특별법' 공동 발의

다. 2015년 2월 문을 연 문화창조융합센터는 지난 1년 동안 약 3만 3000명의 창작자와 예비창작자들이 이용했고, 센터에서 지원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 창작자 300여 명을 방송, 예술, 게임 등 각 분야 전문가로 육성했다. 또한 120여 건의 프로젝트 멘토링을 지원하고, 35건의 콘텐츠 기획 및 사업화가 이뤄졌다.

같은 해 12월 문을 연 문화창조벤처단지엔 13 : 1의 경쟁률을 뚫고 선정된 92개 기업이 입주해 창작 활동을 진행 중이다. 지난 3월 개관한 문화창조아카데미에서도 45명의 크리에이터(학생)와 26명의 감독이 현장형 융·복합 프로젝트 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아무리 벤처·중소기업이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도 해외 시장에서 팔려야 한다. 이에 박 대통령은 정상외교 경제사절단에 중소기업을 대거 포함시키고 1 : 1 비즈니스 상담회를 열어 이들의 해외 진출에 디딤돌 역할을 하도록 했다. 4월 말 현재 총 16회에 걸친 1 : 1 비즈니스 상담회를 통해 총 286건, 22억8000만 달러(약 2조6220억 원)의 수출 성과를 창출했다. 또한 정상외교를 활용해 기업의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확대하는 등 세일즈 외교에도 주력했다.

세계 3위 경제 영토 확장 등 수출 확대 총력 OECD 기준 고용률 65.7% 역대 최고치

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위해 뉴질랜드, 베트남, 중국 등과 FTA를 체결하는 등 우리 경제 영토를 넓히는 데 주력했다. 그 결과 우리와 FTA를 체결한 국가가 차지하는 전 세계 시장 비중은 약 73.5%에 달하게 됐다. 이는 칠레, 페루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해 우리 경제는 세계 경제 둔화와 메르스 사태 등 역경 속에서도 인구와 소득수준이 유사한 국가들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 2.6% 성장률을 나타냈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고용률(15~64세)이 65.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밖에도 제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조업혁신 3.0' 전략, 규제프리존 도입안 발표 등은 기업의 자생력과 활력을 높여 우리 경제 전반에 새로운 도약의 디딤돌을 놓는 작업으로, 3년의 혁신을 통한 30년 변영의 기틀을 차곡차곡 마련하고 있다. **G**

창조경제혁신센터

일자리 창출, 창업 보육
지역경제 활성화 허브로 자리매김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저희가 개발한 호신용 스마트폰 케이스와 앱 서비스는 한국보다 해외 시장에서 먼저 인정을 받았습니다. 해외 시장 진출이 처음엔 결코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해외 진출 지원에 강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와 KT의 지원이 저희에게 기폭제로 작용해 지금의 저희가 있게 되었습니다.” -247코리아 이화정 대표



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

“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는 소재, 에너지, 환경 분야가 특화돼 있어요. 특히 연계기업인 포스코에서 다양한 도움을 줘 신소재를 활용한 순간온수기 개발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라온닉스 박근주 대표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중국에는 육아 관련 업체가 워낙 많아 계약을 앞두고 혼란스러웠어요.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중국 업체들에 관한 정보와 함께 그들과 어떤 식으로 협상해야 하는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줬어요. 직접 업체와 미팅도 잡아주고요. 계약이 성사된 뒤엔 추가 투자금까지 지원했죠.” -앤(맘톡) 김지민 대표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우리나라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 아주 잘돼 있고 우리 그 혜택을 맘껏 누렸죠. 아직까지 대기업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배터리 분야에서 우리처럼 이제 시작하는 기업이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건 정부 지원 덕이 큼니다.” -스탠다드에너지 김부기 대표

박싯별 | 위클리 공감 기자

● 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혁신센터)는 지역경제의 혁신과 협력 성장의 거점 구실을 하겠다는 목표 아래 벤처 창업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 온라인 기반의 전 국민 아이디어 사업화 플랫폼인 ‘창조경제타운’을 2013년 9월 설치한 데 이어 혁신센터는 2014년 9월 대구를 시작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동지를 틀었다. 혁신센터는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창업·중소기업을 발굴해 투자 유치, 판로 지원 등을 해줌으로써 지역 특화산업을 발전시키는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전국 18개 혁신센터(민간자율형 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 포함)는 각 센터별로 멘토 구실을 하는 대기업의 장점을 살린 특화된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그 분야에 적합한 창업·중소기업을 육성한다.

혁신센터는 지역의 중소기업이나 창업을 준비하는 이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 자신이 가진 특별한 기술력을 더 크게 사업화하는 데 힘을 실어주고 있다. 지역 혁신센터별로 각각의 창업 공모전을 열거나 입주 신청 업체들의 입주지원사와 사

업계획서를 꼼꼼히 살펴보고 입주 여부를 결정한다. 혁신센터 입주가 확정되면 이후 해당 기업 혹은 창업자에게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혁신센터는 기술이 우수한 기업에 입주공간, 멘토링, 투자자 연결, 글로벌 진출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한국에서 제공하고 있다. 이후 기업의 기술과 아이디어가 사업화될 수 있도록 시제품 개발도 지원한다. 또한 법률, 금융, 특허 전문가가 상주하고 있어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맞춤 전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지원기업에 원스톱 서비스 제공

1700억 원 규모 실질적 투자 유치·668억 원 매출

이처럼 혁신센터는 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며 출범한 지 1년 만에 알찬 성과를 내고 있다. 올해 3월 말까지 혁신센터에 입주한 기업은 910개로, 이들 기업은 원스톱 지원을 받으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혁신센터는 이들 기업을 포함해 2000여 중소기업에 1만3897건의 멘토링 컨설팅과 금융, 법률, 특허 정보를 제공하는 원스톱 서비스 상담을 5519건 제공했다. 또 혁신센터의 자금

지원에 힘입어 기업들은 5441건의 시제품을 제작했고, 이 중 413건에 대해 1700여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특히 2015년 기준 지원 창업·중소기업은 1119개사(누적), 투자유치액은 1267억 원(누적)에서 올해 3000개사(누적), 3000억 원(누적)으로 지원기업과 투자 유치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2016년 3월 말 기준으로 혁신센터 입주·보육기업 매출액은 668억 원 이상으로 집계된다. 682명의 신규 채용도 발생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모델 사우디·브라질에 수출

프랑스·온두라스·중국·불가리아·뉴질랜드 등 양해각서 체결

해외의 반응도 뜨겁다. 혁신센터는 대통령 해외 순방을 계기로 지난해 3월과 4월 사우디아라비아와 브라질에 그 모델이 수출된 데 이어 프랑스, 온두라스, 중국, 불가리아, 뉴질랜드도 높은 관심을 갖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다양한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세계 각국 인사들은 혁신센터의 운영 모습과 육성기업의 제품을 살펴보기 위해 혁신센터를 직접 찾을 만큼 관심이 높다. 지난 2월 유럽연합(EU) 대표부 및 19개 EU 회원국 주한대사 20명이 한국의 창조경제와 혁신센터의 역할을 배우기 위해 경기혁신센터를 방문했다. EU 회원국 대사들은 육성기업들의 제품 시연을 본 후 한국 정부와 KT 등 대기업이 협업해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들을 육성하는 방식에 큰 관심을 보였다.

양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은 지난해 10월 대전혁신센터에서 “혁신센터는 하이테크 기반의 벤치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모델”이라며 OECD와 협력할 것을 제안했고, 같은 달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면담하던 중 “한국의 창조경제혁신센터 모델이 짧은 기간에 글로벌 귀감이 되고 있다는 점이 놀랍다”고 밝혔다.

혁신센터 보육기업의 기술과 제품도 해외에서 인정받았다. 대전 혁신센터의 태그웨이는 유네스코가 선정한 ‘2015 세상을 바꿀 10대 기술’ 대상을 받았고, 서울혁신센터의 DoT는 ‘2015 ITU 텔레콤 월드’에서 최우수기업가상을 받는 패거리를 거뒀다.

해외에서 혁신센터의 우수성과 입주기업의 제품력을 인정받으면서 해외 수출과 투자에 활기가 생겼다. 혁신센터의 해외 수출 계약 건수는 올해 3월 2일 기준 총 35건으로, 지난해 총 1303만3000달러의 수출을 달성했고 올해는 3920만2000달러를 수출할 계획이다. 해외에서 투자를 유치한 건수는 총 10건이며, 총 투자 유치금액(3월 2일 기준)은 721만8000달러다. 아울러 해외에 법인을 설립해 해외 진출에 성공한 기업도 18곳에 달한다.

이처럼 혁신센터는 창업·중소기업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지원기업의 도움을 받아 성장하고, 이것이 다시 지원기업의 가치사슬을 튼튼히 하는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했다. 내년 말까지 혁신센터를 통한 창업기업은 2500개, 기존 중소기업 지원은 2500개 정도로 약 5000개 기업에 대한 창업 지원과 성장 지원이 이뤄질 계획이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성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다양한 청년 일자리 정책과 사업이 쉽게 청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지난해 말부터 전국 혁신센터에 고용존을 신설했다. 앞으로 혁신센터는 고용존에 전담 대기업, 고용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청년 구직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와 교육 훈련을 지속적으로 발굴·운영할 계획이다. 올해 혁신센터 내 설치된 고용존을 통해 1492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G



벤처·창업 활성화

벤처 3만, 신설 법인 9만 개 돌파 신성장동력 맥박이 힘차게 뛴다

김가영 | 위클리 공감 기자

● 정부는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벤처·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자 노력해왔다. 3년이 지난 지금 그 결과는 성공적이다. 올 초 중소기업 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창업과 벤처 투자 규모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증가했다. 벤처기업 수 3만 개 돌파, 신설 법인 수 9만 개 돌파가 그 성적표다.

네모레이드 노현지 대표(35)도 정부의 벤처·창업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아 창업한 사례다. 2013년 설립된 네모레이드는 사용자 환경(UI) 프레임워크를 만들어 서비스하는 정보기술(IT) 벤처기업이다.

“2013년 청년창업사관학교(이하 청창사)를 통해 창업을 하게 됐어요. 그 전부터 아이디어와 언젠가 창업하고픈 마음은 있었는데 여건이 마땅치 않았죠. 그런 제게 청창사는 창업을 위한 디딤돌이 돼 주었어요.”

청창사는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맞춤형 기술창업 플랫폼’ 중 하나다. 한 방송 프로그램을 보고 청창사를 알게 됐다는 노 대표는 청창사 3기로 선발돼 1년 가까이 예비창업가 프로그램을 수강했다.

“사업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상태에서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었어요. 경영, 노무, 세무, 저작권 대처법 등 전반적인 부분을 알려주니까요.”

노 대표는 청창사에서 얻은 가장 큰 수확으로 ‘기업가정신’을 꼽았다. 그는 “그 안에서 형성된 네트워크와 동기 부여는 비단 교육만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청창사의 경험이 현재까지 사업을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언급했다.

기술창업자 양성·엔젤 투자 지원

벤처·창업 활성화로 제2의 벤처 붐

2015년 7월 개장한 팁스(TIPS : 민간 투자 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창업타운도 젊은 창업가들에게는 매력적인 프로그램이다. 팁스타운은 벤처기업을 민간 투자사와 연계해주고 사무공간을 제공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각종 소프트웨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 새로운 기술

이 적용된 창업 아이템이 여기서 나온다.

“동료 창업가 중 한 명도 이곳에 입주해 있어요. 저 역시 올해 말 지원할 예정이죠. 팁스타운은 기술형 창업기업 위주로 선발하기 때문에 저희도 올해 말까지 기술 개발과 안정화에 더욱 힘을 예정보여요.”

정부의 벤처·창업 활성화 정책으로 지난

해 제2의 벤처 붐이 일었다. 신규 벤처 투자액만 2조1000억 원에 달했다. 먼저 청년·연구원 등 창업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기술창업 플랫폼’을 확충해 약 5000명의 기술창업자를 양성했다. 그 결과 2013년에는 3998명이던 기술창업자 수가 2014년 4730명, 2015년 5334명으로 늘었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현재 팁스 창업기업·팀 158개 중 50%에 해당하는 78개사가 국내외 투자자들로부터 약 11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받는 등 기술성과 시장성 면에서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팁스 기업들이 고용하고 있는 총인원은 1490명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팁스 창업기업 중 24개 팀이 해외 법인을 이미 설립했거나 준비 중이며, 일부 창업팀의 글로벌화도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지속적인 투자도 벤처·창업이 활성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정부는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그 대가로 스타트업 주식 지분을 받는 엔젤 투자의 소득공제를 2013년 30%에서 2015년 100%까지 확대했다. 전문 엔젤 자격요건도 완화(투자 지분 1년간 보유→6개월 보유)했다. 또한 청년 창업, 해외 시장 진출 등 ‘대상별 맞춤형 펀드’의 구성과 운용을 확대한 것도 투자 기회를 늘렸다. 그 결과 엔젤 투자자는 2013년 4870명에서 2015년 9466명으



노현지 대표는 청년창업사관학교 3기 수료생으로 2013년 IT기업 네모레이드를 창업했다.

노현지

천년초 언어 사고 학교

특화형 창조 거점 - 문화창조융합벨트

미래 먹거리 문화의 씨앗 세계로 미래로 확실히 키운다



온라인을 통해 푸드콘텐츠를 제공하는 '그리드잇'의 이문주 대표는 문화창조벤처단지 입주기업의 장점으로 사무실 임대비용 절감, 네트워크 구축, 투자자금 유치를 꼽는다.

조영실 | 위클리 공감 기자

● '오늘 뭐 먹지?'

이 지극히 단순하고도 원초적인 고민을 담은 문구를 간판으로 단 페이스북 페이지엔 365만 명의 팔로어가 '좋아요'를 눌렀다. 이 페이지엔 전국의 맛집 사진, 독특한 음식을 만드는 동영상, 음식을 먹는 동영상, 유명 가수가 맛집을 찾아 떠나는 영상 등이 올라와 있다.

이는 푸드콘텐츠 기업을 표방하는 '그리드잇(Greedeat)'의 작품. 다양한 누리소통망(SNS) 채널을 통해 푸드콘텐츠를 유통하고 있는 그리드잇은 한국관광공사, SM엔터테인먼트와 협력해 제작한 '매니저 없이 떠나는 여행' 등이 창조관광대상에서 수상하는 등 승승장구하고 있다.

소위 '잘나가는' 신생 벤처기업(스타트업)이 문화창조벤처단지(이하 벤처단지)에 입주한 가장 큰 이유는 2년(최대 4년)간 무상으로 제공되는 사무공간 때문이었다. 이문주 대표는 자금력이 달리는 스

타트업에 이는 엄청난 혜택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기본 업무공간과 회의실은 물론 샤워실까지 갖춘 벤처단지는 무척 잘 꾸며져 있어요. 지난해 12월 이곳에 입주하기 전까지는 사무실 월세 부담도 크고 외부 미팅도 카페에 가서 하는 등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공간 문제를 해결한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죠. 여기서 임대료를 아낀 덕택에 얼마 전엔 홍대 근처에 제작 스튜디오도 마련했습니다."

벤처단지 92개 입주기업은 다른 기업들과 자연스럽게 네트워킹을 구축할 수 있는 장점도 누린다. 그리드잇은 정보기술(IT)과 공공미술을 결합해 친환경 캠페인을 벌이는 '앰허스트'와 협력 사업을 구상 중이다. 이미 협력 사업을 진행한 바 있는 한국관광공사가 벤처단지 위층에 자리한 것도 그리드잇에는 예상치 않은 이득. 이 대표는 한식의 세계화에 관심이 높은 정부기관과 다양한 사업을 해볼 수 있으리란 기대를 가지고 있다.

벤처단지에선 이 대표의 바람이 현실로 만들어지고 있다. 그리드잇은 올해 2월 미국 실리콘밸리의 빅베이스캐피털과 국내 투자사 SJ투자파트너스로부터 11억 원을 유치했고, 이 덕분에 정부가 투자확정금의 20%(최대 1억 원)를 지원하는 투자 마중물 사업의 혜택도 받게 됐다. 이 대표는 "벤처단지에 입주해 회사가 언론 등 외부에 자주 노출되다 보니 홍보 효과는 물론 투자를 받는 데도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그리드잇은 이를 발판으로 올해 글로벌 푸드미디어를 론칭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문화창조금융존 통해 사업화 적극 지원

92개 벤처단지 입주기업, 53억 투자유치 쾌거

벤처단지 입주기업의 활약은 비단 그리드잇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모바일 인증·결제 솔루션 개발기업인 '모비두'는 홍콩의 지메이코리야로부터 3억 원, '모던한'은 전통문화 소재의 디자인 상품으로 센트럴투자파트너스에서 1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쾌거를 이뤘다.

5월부터 클라우드펀딩을 론칭하는 기업들도 있다. 첫 주자로 동영상을 보는 도중 궁금한 점을 누리소통망에 올려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를 개발한 '앰랩'과 수학융합형 가족 뮤지컬을 기획한

(왼쪽부터) 문화창조융합벨트의 콘텐츠 기획 거점 문화창조융합센터, 사업화 거점 문화창조벤처단지, 인력 양성 거점 문화창조아카데미.



‘문화공작소 상상마루’는 벤처단지 내 클라우드펀딩 지원기관인 오픈트레이드를 통해 각각 1억 원의 투자를 유치할 목표 아래 이달 중 클라우드펀딩에 나선다. 클라우드펀딩에 성공할 경우 올해에만 융합콘텐츠펀드 450억 원, 클라우드펀딩 마중물 펀드 100억 원 등 매칭펀드를 통한 자금 확보 기회를 얻게 된다.

이 같은 성과는 벤처단지가 금융 지원 등을 통해 입주기업의 사업화를 적극 지원한 덕분이다. 벤처단지는 지난 2월 문화체육관광부, 금융위원회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문화창조금융존을 설치해 입주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벤처단지는 지난해 12월 개소 후 100일 만에 총 4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고 신규 인력 53명을 충원했다. 3월 청년희망재단과 공동으로 개최한 콘텐츠 미니 잡페어를 통해 30여 명의 청년이 입주기업에 등지를 틀었다. 이후 벤처단지는 4월까지 추가 투자를 더 받아 53억 원의 유치 실적을 기록했다.

융·복합 문화 생태계 절반 이상 구축 완료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성공 가능한 환경 조성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에 자리한 벤처단지는 투자, 금융, 유통 등 입주기업의 고속 성장을 지원하는 문화창조융합벨트의 ‘사업화’ 중심점이다. 문화창조융합벨트는 문화콘텐츠와 기술을 결합한 융·복합 아이디어를 만들고(문화창조융합센터, 콘텐츠코리아랩), 제작과 사업화를 지원하고(벤처단지), 인력을 양성하고(문화창조아카데미), 소비자 대상 판매·시연공간(K-컬처밸리, K-익스피리언스, K-팝아레나 공연장)을 제공하는 창작 생태계의 윈스톱 지원 시스템이다. 2015년 2월에 문화창조융합벨트가 출범한 이후 문화창조융합벨트의 6개 거점 중 기획과 사업화, 인력 양성을 담당하는 세 곳이 올 3월 모두 완성됐다.

문화창조융합벨트 내 가장 먼저 출범(2015년 2월 11일)한 문화창조융합센터(서울 상암동 CJ E&M 건물 내)에는 지난해에만 3만여 명이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목표인 1만4000여 명을 훌쩍 뛰어넘은 수치다. 글로벌, 융·복합 기술, 금융·법률 등 전문 분야 특강이 30회 개최됐고 1000명과 공유했다. CJ E&M 나영석 PD 등 문화

콘텐츠산업 최고의 전문가 70여 명은 120건의 멘토링에 참여해 크리에이터들과 융·복합 콘텐츠 35건을 기획했다. 올해에는 벤처단지 입주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25개의 킬러 콘텐츠를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올 3월 벤처단지에 임시 개관한 문화창조아카데미에선 4 : 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45명의 크리에이터가 활동을 시작했다. 이곳은 최고의 현장 전문가들의 지도를 통해 융·복합 문화콘텐츠산업의 핵심 인재를 배출하고 관련 기술을 개발한다. 박칼린 킥 뮤지컬 아카데미 예술감독,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등 26명의 교수진이 기술과 예술의 융합강좌와 가상현실(VR), 로봇 등 7개의 현장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문화창조아카데미 융·복합 콘텐츠 어워드’를 개최해 우수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2017년에는 미래디지털콘텐츠 과정, 공간디자인 과정 등을 신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문화창조융합벨트가 융·복합 콘텐츠에 대한 막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창작자가 기업인이 되기 힘든 국내 현실을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꾸었다”고 평했다. 이어 “문화창조융합벨트를 기반으로 지난해 99조6000억 원이었던 우리나라 콘텐츠산업 매출액을 올해 105조 원으로 끌어올리고 향후 5년간 일자리 5만3000개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G]

문화창조융합벨트

우수 콘텐츠 사업화 성공 35건

92개 기업 사업화·해외 진출 지원 본격 착수

융·복합 문화콘텐츠의 기획, 사업화, 인재 양성을 담당하는 문화창조융합벨트의 3개 거점 구축 완료. 문화창조융합센터에서 35건 이상의 우수 콘텐츠 사업화 성공. 문화창조벤처단지 92개 입주기업 사업화·해외 진출 지원 본격 착수. 문화창조아카데미 크리에이터 45명 활동 개시

정상외교와 FTA 통한 수출 지원

경제사절단 동행 세일즈 외교 중소기업 해외 진출 날개 달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 4월 중남미 4개국 순방 중에 페루에서 열린 1:1 비즈니스 상담회 부스를 방문해 현지 바이어와 대화하고 있다.

최호열 | 위클리 공감 기자

●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3대 추진전략 중 하나인 역동적인 혁신 경제 구현을 위해 정부가 집중한 핵심과제는 해외 진출 촉진이었다. 이를 위해 박근혜정부는 역대 정부 최초로 '정상외교경제활용포털'을 구축하고 대규모 경제사절단을 해외 순방 외교에 동행시키는 세일즈 외교에 적극 나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창출해냈다.

먼저, 정상외교를 활용해 기업의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확대함으로써 해외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뒀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6월 투르크메니스탄을 방문해 총 50억 달러 규모의 신규 화학 플랜트·건설 부문 협력 양해각서(MOU)와 77억 달러 규모의 화학 제품 구매계약을 체결토록 했는가 하면, 이에 앞서 방문한 카자흐스탄에서는 발히슈 화력발전소 전력 용량 구매계약을 주도해 향후 20년간 총 188억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는 장기 프로젝트를 성사시켰다.

2015년 3월 중동 4개국 순방 정상회담을 활용해서도 총 44건의 경제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한 데 이어, 같은 해 9월 유엔 개발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했을 때도 파키스탄 총리, 나이지리아 대통령 등과 잇따라 만나 총 58억 달러 규모의 상대국 인프라 구축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세일즈 외교를 펼쳤다.

2014년 8월 서울대병원은 세계 유수의 병원들과 경쟁해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실과 왕립 셰이크 칼리파 전문병원을 5년 동안 위탁 운영하는 약 1조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본격적으로 한국 의로기술과 시스템 수출 시대를 연 역사적인 계약이었다. 그 배경에는 그해 5월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한 박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가 있었다. 박 대통령은 2014년 1월 인도를 국민 방문했을 때도 쌍용자동차 최대 주주인 인도 마힌드라 그룹 회장을 만나 4년간 1조 원 투자를 이끌어냈다.

정상외교 연계 1:1 상담회 개최

중소·중견기업 해외 진출 새로운 기회 제공

박근혜 대통령의 정상외교 특징 가운데 하나는 경제사절단에 중소기업들을 대거 포함시키고, 이들의 해외 진출 디딤돌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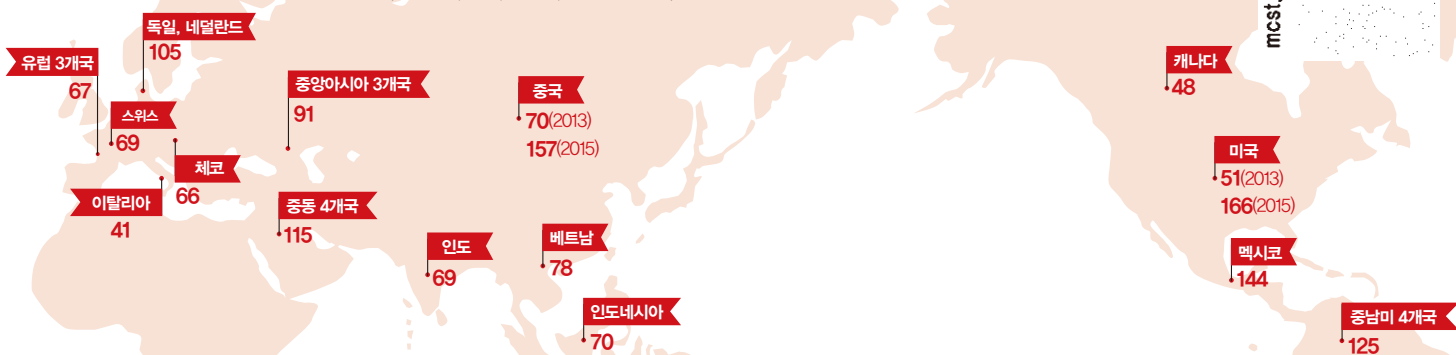
과거에는 대통령 해외 순방에 동행하는 경제사절단은 대기업 위주로 구성됐다. 중소기업은 참여하더라도 인지도가 낮아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경제사절단에서 대기업 비중을 줄이고 중소기업이 대거 동행하도록 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포화된 내수 시장에서 벗어나 해외에서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다. 믿을 수 있는 바이어를 찾기도 어렵고, 해외 시장에서 인지도도 낮아 계약까지 이어지는 데 많은 애로가 있다. '중소기업이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라고 판단한 박 대통령이 중소기업들로 하여금 세계 시장에서 잠재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장을 열어준 것이다.

박근혜정부는 단순히 경제사절단에서 중소기업 비중을 늘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2015년 3월 중동 순방을 계기로 중소·중견기업 위주로 현지 바이어와 1:1 수출 상담을 주선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해

수치로 본 순방외교(2013~2016. 4)

숫자는 경제사절단에 참여한 기관·기업 수(경제단체, 협회, 대기업, 중소기업)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정상회담의 권위를 활용해 외국 기업이 우리 중소기업에 신뢰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증을 서준 셈이다. 그 결과 많은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일반 포장재 제조업체인 영일필름은 기술 경쟁력은 있었지만 회사 지명도 등 신뢰성 부족으로 번번이 수출 계약에 실패했다. 그러던 차에 지난 4월 미국과 멕시코를 순방하는 박 대통령 경제사절단에 포함돼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1:1 비즈니스 상담회에 참여해 캐나다와 6만5000달러의 첫 수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자동차 부품업체인 프론텍도 체코 최대 완성차 기업인 스코다 자동차에 납품을 제안했지만 반응이 신통치 않았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박 대통령의 유럽 순방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해 현지에서 열린 1:1 상담회에 참여하자 스코다에서 “한국 정부가 추천하는 회사라면 신뢰할 수 있다”며 적극 협상에 나섰다. 덕분에 프론텍은 현재 중국에 있는 스코다 아시아공장에 납품하는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경제사절단 1:1 비즈니스 상담회는 2015년 한 해 동안 총 15차례 개최됐고, 올해 4월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과 멕시코를 순방할 때도 열렸다.

FTA 통한 경제 영토 세계 3위

FTA 활용해 판로 개척, 수출 증가

중소기업들의 반응은 폭발적이다. 1:1 상담회 실시 전에는 경제사절단에 평균 37개사가 참가했으나 실시 이후에는 평균 81개사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1:1 상담회에 참가한 중소기업은 4월 말 현재 총 369개사(중복 제외)에 이르며, 상담회 성과를 실감하고 2회 이상 참가한 기업은 132개사에 달했다. 최대 10차례 참가한 기업도 있었다.

지금까지 총 16회에 걸친 1:1 비즈니스 상담회를 통해 총 286건, 22억8000만 달러(약 2조6220억 원)의 수출 성과를 창출했다. 수출 내용도 제조업 위주의 단순 교역 투자에서 보건의료, 교육 등은 물론 문화콘텐츠와 연계한 소비재 등 범위가 훨씬 확대되고 있다.

1:1 비즈니스 상담회를 통해 ‘정상외교=중소기업 해외 진출’이라는 패러다임이 완성되고 있는 것이다.

그간 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을 ‘미래 경제 발전’을 위한 주요 어젠다로 설정하고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진행해왔다. 특히 박근혜 정부 들어 영연방 3개국(호주, 캐나다, 뉴질랜드)과 베트남, 중국 등과 잇따라 FTA를 체결하며 우리 경제 영토를 급속도로 넓혔다. 우리와 FTA를 체결한 국가가 차지하는 전 세계 시장 비중은 약 73.5%로 칠레, 페루에 이어 세계 3위다.

특히 2015년 12월 20일 조기 발효된 한-중 FTA는 우리나라의 일곱 배 넘는 중국 시장(GDP 10조4000억 달러)을 제2의 내수 시장으로 선점하는 효과를 거뒀다. 한-중 FTA 발효로 예상되는 제조업 분야의 올해 수출 증가액 추정치는 13억5000만 달러(약 1조5606억 원)에 달한다.

최근 수출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상황에서 한-중 FTA는 베트남, 뉴질랜드와의 FTA와 더불어 우리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3개 FTA 체결로 앞으로 1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포인트 더 성장하고, 수출이 연평균 약 50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자리도 최소 5만4000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G**



크라우드펀딩

“펀딩 첫날 8000만 원 조달 꿈만 같죠” 온라인에서 투자받아 성장 발판 마련

마린테크노



마린테크노는 크라우드펀딩 1호 성공 기업으로 미국·멕시코 경제사절단을 통해 56만 달러의 수출 계약 체결에도 성공했다.

김민주 | 위클리 공감 기자

●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이름 없는 중소기업에 불과했던 ㈜마린테크노가 ‘크라우드펀딩 1호 성공기업’이라는 타이틀을 달면서 승승장구하고 있다. 크라우드펀딩 시행 첫날인 지난 1월 25일에 8000만 원이라는 자금 조달에 성공한 덕분이다. 황재호 대표는 “펀딩 시작 하루 만에 원하는 목표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모였다”면서 “이렇게 짧은 기간에 많은 분들이 성원해주실 줄 몰랐다. 정말 기뻐다”고 소감을 밝혔다.

친환경 해양 바이오 연구개발

5개 기업에 56만 달러 수출 계약 체결

마린테크노는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전남혁신센터)에 입주한 업체로, 청정 바다의 해양생물에서 추출한 마린콜라겐(원천 특허기술 보유)을 이용해 화장품 등 다양한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친환경 해양 바이오 연구개발 기업이다.

마린테크노는 2010년 전라남도 청년 창업 프로젝트로 전남대 여수창업보육센터에서 창업한 후 2014년 주식회사로 전환했다. 이후 2015년 9월 전남혁신센터 입주기업으로 선정돼 입주공간과 숙소, 창업 지원금 1000만 원을 지원받았다.

전남혁신센터에서는 전남 기업인 GS로부터 콜라겐 품질 분석 등 꾸준한 기술 멘토링과 시제품 제작에 대한 지원을 받았고, 그 결과 화장품 원료를 활용한 마린콜라겐 응용제품(화장품 3종 세트) 개발을 완성할 수 있었다. 이후 GS홈쇼핑 등 유통망을 통해 판로 개척을 지원받고 있으며, 광주혁신센터와의 연계 지원으로 기아레드램버스몰에도 입점해 있다.

지난 4월 마린테크노는 해외 진출에도 성공했다. 지난해 12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주관하는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을 통해 로스앤젤레스를 중심으로 미국 전역 도매상에 유통소비재 제품을 공급하는 수입 바이어와 첫 만남을 가진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멕시코 방문을 계기로 경제사절단에 동행하면서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1:1 비즈니스 상담회에서 향후 5년간 20만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며칠 뒤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1:1 비즈니스 상담회에서도 4개국에 36만 달러를 수출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올렸다.

“저희 회사는 지난해 1월부터 해외 수출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어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했더니 상대국 바이어들이 저희 업체를 훨씬 더 높게 평가해주신 것 같아요. 5개 기업에 56만 달러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돌아오니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생기더라고요.”

미국·멕시코 경제사절단으로 다녀온 이후 마린테크노의 위상은 눈에 띄게 높아졌다. 마린테크노는 청년 창업 프로젝트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한 성공적인 창업 모델이자 크라우드펀딩 1호 성공기업, 정상외교 경제사절단으로서 해외 진출까지 성공한 기업이 됐기 때문이다. 황 대표는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 회사 발전을 위해 더욱 매진할 계획이다. 화장품 연구개발 전문회사인 한국콜마와 조만간 MOU를 체결해 마린콜라겐을 원료로 하는 화장품의 대량 제조생

산(ODM 방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여기에 GS의 판매망을 활용해 전문가 집단이 주도하는 마린콜라겐 화장품의 판매도 계획 중이다.

“저희 회사가 아직 신생회사라 역량이나 내실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주변에 홍보가 많이 됐어요. 오래 준비하고 버티다 보니까 이런 기회가 온 것 같아요. 이 좋은 분위기를 활용해 더 많은 투자를 창출하고,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싶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자체적으로 해양생물 원료를 판매하는 연구개발 전문회사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기업 32개사

정부,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 지속

올해 1월 25일 처음 시행한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크라우드펀딩이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기업가 등이 온라인을 통해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사업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1월 25일 크라우드펀딩이 첫 출범한 이후 약 100일(5월 3일 기준) 동안 총 73개 기업(투자자 2343명, 청약금액 57억7000만 원)이 펀딩에 참가해 32개(51억1000만 원) 기업이 펀딩에 성공했다.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기업은 앞서 소개한 (주)마린테크노(화장품 제조)를 비롯해 와이비소프트(주)(낙상 방지 휠체어), (주)신선(재생 아스팔트), (주)디파츠(수입자동차 부품), (주)세어잡(구직 소프트웨어), 컨트롤클로더(맞춤형 패션 플랫폼), 와이즈모바일(주차정보 앱), 모헤닉(수제 자동차), 더페이(휴대전화 지급결제), 인진(파력발전), 와이즈케어(간편결제 서비스), IBKS문화콘텐츠투자(영화), 어게인트웬티(의료관광 플랫폼) 등 32개사다.

또한 현재 크라우드펀딩을 진행하고 있는 주요 기업(3월 30일 기준)은 모비틀(72%, 지역광고 플랫폼), 시전소프트(34%, 모바일 전단지), 오딘에너지(10%, 풍력발전) 등이다.

정부는 크라우드펀딩 시행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제도 시행 이후 다수의 투자자들이 크라우드펀딩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펀딩에 성공하는 기업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크라우드펀딩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

안을 강구하고 있다. 먼저,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육성하고 있는 기업의 크라우드펀딩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혁신센터 우수 기업을 적극 추천하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 운용하는 정책금융·성장사다리펀드 및 정책펀드 자금 등을 요청한 기업들에 먼저 크라우드펀딩 참여를 적극 권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문화콘텐츠 프로젝트에 대한 크라우드펀딩을 추진해 일반인의 참여와 관심을 높이고 일반인이 문화상품에 투자할 기회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크라우드펀딩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거래의 편의성’도 높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존에 PC를 통해서만 가능했던 청약을 모바일로도 가능하도록 투자방법을 다양화하고, 증권 계좌가 없는 투자자도 중개업자 사이트에서 증권 계좌 개설 페이지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크라우드펀딩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펀딩에 성공한 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도 모색한다. 모태펀드와 성장사다리펀드 등을 통해 펀딩기업 및 투자자의 자금 회수를 지원하고, 크라우드펀딩 자금 조달기업 중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 코넥스(초기 중소기업을 위한 주식시장) 상장이 쉽도록 지원한다.

이 밖에 크라우드펀딩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유사·불법업체를 단속하고, 역량 있는 증권사 등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자의 추가 등록을 허용할 방침이다. **G**



제조업혁신 3.0

‘스마트’ 만난 제조업 혁신 꽃 피우고 수익성 높다



IT기술을 기반으로 생산의 전 과정을 자동화해 품질 경쟁력을 높이는 스마트공장 보급은 제조업혁신 3.0의 핵심 전략이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7일 황교안 국무총리가 LS산전 충북 청주 스마트공장을 방문해 생산설비를 둘러보며 공장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

조영실 | 위클리 공감 기자

● 30년 전 세 명의 직원이 의기투합해 설립한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 ㈜라이쏘는 현재 15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알찬 중소기업으로 자리 잡았다. 인력, 생산량, 회사 규모 등이 창업 초기에 비할 바 없이 커졌지만 단 하나, 생산관리 방식만은 몇 해 전까지도 변하지 않았다. 다음은 류필도 대표의 설명.

“생산 현장에서는 작업자가 일보를 써요. 하루 업무가 끝나면 수기로 각자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 기록을 관리자가 다음 날 회수해 엑셀 프로그램에 입력하고 다시 그다음 날 아침에 보고합니다. 현장의 상황을 이들이 지나서야 관리자가 알게 되는 거죠.”

수기로 작성하고 엑셀로 정리해 다음 날 보고되는 업무 프로세스 때문에 많은 오류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불필요한 재고도 쌓여갔다. 이 때문에 고객의 다양한 필요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도 어려웠다. 무엇보다 이러한 프로세스는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려 회사가 성

장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됐다.

그랬던 라이쏘는 2014년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스마트 공정 지원사업)을 통해 제2의 성장동력을 마련했다. 파트너로 선정된 개발사 (주)컴퓨터메이트는 6개월간 특별전담팀을 꾸려 하드웨어와 현장 설비를 연결하고, 작업자와 관리자들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라이쏘의 생산시설에 맞게 개발했다. 현장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추었다. 이에 따라 라이쏘는 자재관리, 숙성, 시어링(전단가공), 성형, 검사, 출하까지 모든 공정을 사무실에 앉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던 공정이 완벽하게 재탄생하는 순간이었다.

“효과는 일일이 꼽기가 힘들 정도죠. 작업 지시와 실적 수집 정확도가 개선됐고 비가동이나 불량 등의 문제에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됐어요. 작업조건관리를 통해 품질이 개선됐고 불량을 또한 현저하게 줄였습니다. 출하관리에 전산화가 이루어지니 정확도는 올라가고 조회시간은 단축됐죠. 바코드를 통한 실시간 재고 추적관리가 가능해져 관리자들이 업무의 전 과정을 즉시 컨트롤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스마트 공정을 통해 라이쏘의 재고량은 15% 감소했고 작업 준비시간은 50% 줄었다. 납기일도 평균 15일에서 12일로 단축됐다. 데이터 도입시간과 서류작업 시간은 각각 62%, 72% 줄었다. 라이쏘는 스마트 공정을 도입한 뒤 효율적인 생산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거래처와 신뢰가 쌓였고, 신뢰는 곧 제품 구매로 이어져 매출 신장에 기여했다.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하고 수기작업을 고수하던 직원들도 스마트 공정관리 프로세스가 필수라는 것에 공감하기 시작했다.

개발 전 과정에 ICT·IoT 기술 적용

생산성·품질 향상 통해 제조업 생태계 혁신

한때 도산 위기를 겪었던 기업들이 고도화된 스마트공장의 도입으로 성공 노하우를 전수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스마트공장은 정보통신기술(ICT)이나 사물인터넷(IoT)을 기반으로 기획, 설계, 개발, 제조, 유통, 물류 등의 생산 전 과정을 자동화·정보화해 최소 비

용과 최소 시간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유연화 공장을 말한다. 공정이 고도화될수록 오류 발생이 절대적으로 줄어들게 되면서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고객 맞춤형 제품의 생산이 가능해 제조업 패러다임의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기존 공장에 적용하면 실시간 데이터 모니터링과 자동 분석을 통해 사전에 공정 이상이나 품질 불량 등을 감지해 생산성 향상은 물론 품질 경쟁력 또한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뒤 불량을 27.6% 감소, 원가 29.2% 절감, 납기 19% 단축, 시제품 제작기간 7.1% 단축 등으로 제조업 생산성이 약 25% 향상되는 실질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스마트공장 보급은 ‘제조업혁신 3.0’ 전략의 핵심이다. 제조업혁신 3.0은 IT 기술과의 융합 등을 통해 낙후된 제조업 생태계를 혁신해 국내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스마트공장추진단’을 설립해 2016년 3월 현재까지 총 1350개의 공장을 구축했다. 2020년까지 국내 스마트공장 총 1만 곳을 목표로 올해엔 2000개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글로벌 공급과잉 업종 ‘원샷법’으로 사업 재편

지역 노후 산업단지 ‘혁신산단’으로 탈바꿈

2월 12일 국회를 통과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은 글로벌 공급과잉 업종에서 민간의 자발적인 사업 재편을 지원함으로써 제조업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3년 한시 특별법으로 마련됐다. 조선, 해운, 철강, 석유화학 등 국내 주력산업이 세계 경제 저성장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급감하고 생산성 증대에 한계를 겪는 등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에서 탄생했다. 상법·공정거래법상 사업 재편 절차 간소화 및 규제 완화, 사업 재편에 따른 세금 감면, 자금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우선 기업이 일부 사업부문을 다른 회사에 매각하려면 상법과 공정거래법상의 규제를 따로 받기 때문에 사업 재편기간이 평균 120일 정도 소요되는데, 원샷법은 주주총회 소집 절차 등을 대폭 간소화해 그 기간을 76일로 단축시켰다. 법에 따라 기업 간 주식 교환 시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던 법인세(24.2%) 납부 시기가 교환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이연되고, 증권거래세(0.5%)는 아예 면제된다. 기업 간 합병이나 증자 등에 따라 자본금이 증가했을 때 부과되는 등록면허세(0.4%)는 50% 감면된다.

2017년까지 지역 노후 산업단지 25곳을 혁신 거점으로 탈바꿈시키는 혁신산단 조성도 제조업혁신 3.0의 주요 전략 가운데 하나다. 올해까지 총 15개 혁신산단이 선정돼 작업 환경을 스마트화하고 청년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사업이 진행된다. 정부는 올해 2개 산단을 추가 선정해 총 17개 혁신산단을 조성할 계획이다. 전국 18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제조업 창업 활성화와 동시에 이뤄진다.

산업부는 올해 제조업혁신 3.0에 지난해(3185억 원)보다 20% 이상 늘어난 3857억5000만 원을 투입한다. 산업부 문동민 산업정책과장은 “스마트공장 확산과 지역 산단 혁신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혁신 3.0은 2017년까지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하도록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율주행차, 무인항공기, 지능형 로봇 등 미래형 융합제품 조기 사업화와 관련 소재부품 개발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제조업혁신 3.0의 한 갈래로 지난해 ‘미래 성장동력·산업엔진 종합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자율주행차 등 신성장동력 업종의 연구개발비에 대해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다. 민간의 자발적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1050억 원의 신성장동력펀드를 조성하고, 연 3000억 원을 저리로 대출해주는 방식이다. [G]



산업연계교육 활성화 선도대학(PRIME) 21개교 선정

대학 구조개혁, 미래 유망 분야 인재 키운다



산업연계교육 활성화 선도대학 21개교 중 한 곳으로 선정된 건양대는 3월 17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막한 '제32회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KIMES 2016)'에 참가해 학생과 교수들의 의·산·학 공동 연구로 개발한 진단·치료 의료기기, 의료 IT기기, 의료 공간디자인 작품 등을 선보였다.

김민주 | 위클리 공감 기자

● 정부가 대학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통해 학생들의 사회 진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2016년도부터 새로 시작되는 '산업연계교육 활성화 선도대학 사업(이하 PRIME 사업)'은 사회와 산업 수요에 맞춰 학사구조를 개편하고 정원을 조정하는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는 일종의 대학 구조개혁 사업이다. 이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인력 mismatch와 학령인구 감소,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대학이 협력해 대학의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을 선제적으로 이뤄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시작됐다.

인문사회 분야에서 정원 2500명 줄이고

공학 분야에서 정원 4429명 늘어난다

PRIME 사업은 올해부터 2018년까지 3년간 대학의 자발적인 양적, 질적 구조개혁을 위해 2016년도에만 1202억 원을 지원하게 되며, 재정 지원 종료 후 5년간 사후 성과관리도 진행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말 PRIME 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한 이후 올해 3월 말까지 대학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아 선정 평가 등의 과정

을 거쳐 5월 3일 최종적으로 선정 대학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프라임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 그동안 각 대학들이 구성원과 충분히 소통하고 학생 중심으로 대학의 체질을 바꾸기 위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해왔다"며 "프라임 사업을 신청했으나 최종 선정되지 못한 대학들의 자발적인 구조개혁 의지를 높이 평가하고, 이 대학들이 사회 변화에 대응해 구조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컨설팅 등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프라임 사업에 선정된 대학은 총 21개교로 이들 대학은 이 사업을 통해 2017년도 입학정원에서 인문사회 분야에서 정원을 2500명 줄이는 대신, 공학 분야 정원을 4429명 늘리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로써 인문사회와 공학계열을 포함해 자연과학과 예체능 계열까지 2017년도에 정원이 조정되는 규모는 총 5351명이 될 전망이다. 이는 해당 대학 전체 입학정원(4만8805명)의 약 11%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2017학년도 입학정원부터 반영된다.

21개 대학 중 '대형 유형'은 수도권 3개교, 비수도권 6개교 등 총 9개교이며, '소형 유형'은 5개 권역별로 2~3개교씩 총 12개교가 선정됐다. 대형 유형의 경우, 최고 300억 원까지 지원받는 1개교를 포함해 9개교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었으나, 사업관리위원회에서 300억 원 지원 대학은 선정하지 않고, 150억 원 내외 지원 대학 9개교를 선정하게 됐다.

교육부는 21개 대학의 프라임 사업에 대해 "공학 분야뿐만 아니라 자연과학, 인문사회, 예체능 분야 등 대학의 여건과 특성에 따라 다양한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라며 "학생들이 처음 졸업하는 2021년부터 사회 수요 맞춤형 인재가 배출돼 인력 mismatch와 청년실업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PRIME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은 사회 변화와 산업 수요에 맞는 합리적인 개편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학생 중심 학사제도 개편 등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더불어 학사조직 확대와 학생 증원에 대응한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 여건과 교육 지원체계를 개선하고, 우수 인재 유치와 사회 진출을 위한 진로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PRIME 사업으로 인문학 등 기초학문이 위축되지 않도록 관련 분야에 대한 지원·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21개 대학 중점 분야

계열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관련 분야	문화콘텐츠	농수산 6차산업, 식품공학, 의약바이오, 바이오 소재	ICT융합, 스마트기계, 신소재, 의생명헬스케어, 미래에너지, 디자인엔지니어링, 지능형로봇, 미래형자동차, SW융합, 항공(서비스, 기계, 무인기), 융합보안공학, 공간디자인, 융합기계, 시스템반도체, 나노광전자, 화학분자공학, 태양광, 화장품 등	서비스 디자인 공학

21개 대학 정원 조정 내용

구분	감소 분야					증가 분야				
대계열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합계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합계
정원 조정 규모(명)	2626	1479	427	819	5351	126	329	4856	40	5351

비의 10%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에 대한 대책을 의무적으로 세워야 하며, 대학은 사업 종료 후 5년간(총 8년) PRIME 사업의 계획을 유지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도 마련해야 한다.

이번에 선정된 21개 대학은 사회의 변화와 산업 수요를 반영해 각 대학의 강점을 살린 교육과정 개편계획을 제시했다. 특히 학생의 원활한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체 등과 연계해 특색 있는 진로 개발, 취업·창업 지원계획을 마련했다.

또한 선정된 대학들은 PRIME 분야로 육성할 학과(부)·전공의 핵심 지표를 도전적으로 수립했다. 이 중에서 취업률에 대해서는 “2018년까지 평균 약 3.1%포인트, 2023년까지 평균 약 7.7%포인트 향상시키겠다”는 야심찬 목표도 세웠다.

매년 성과 점검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할 것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앞으로 선정된 대학이 사업을 충실히 수행하고 괄목할 만한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대형 유형은 연간 150억 원, 소형 유형은 연간 50억 원 내외로 총 3년간 지원한다.

또한 컨설팅단을 운영해 사업계획에서부터 추진 상황 및 실적을 상시 점검함으로써 사업의 내실화를 유도하고, 진로교육과 취업·창업 지원 등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등과 협업체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재정 지원이 종료되는 2018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체질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부 장관과 대학 총장 간 교육개혁 협약을 체결하고, 2016년부터 총 8년간(예산 지원 3년, 성과관리 추가 5년) 성과 목표 달성도 등을 매년 점검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돼 대학의 체질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매년 연차 평가를 통해 예산 낭용, 심각한 운영 부실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사업을 중단시키고 지원금 환수 및 타 재정 지원 사업 참여 제한 등의 제재를 취할 수 있어 대학은 사업 추진에 이련 점을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교육부는 “PRIME 사업으로 그동안 우려돼왔던 사회 수요와 대학 교육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현장 중심의 창의적 교육 모델을 실현해 교육의 질을 높이길 바란다”며 “이를 통해 학생들이 좀 더 쉽게 사회에 진출해 그 역량을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G**


PRIME 사업



공학 분야 정원
4429명 늘릴 계획

2017년도 총 5351명 정원 조정
총 21개 대학이 인문사회 분야에서 정원을 2500명 줄이는 대신
공학 분야 정원을 4429명 늘릴 계획

규제프리존 도입

지역전략산업 선정, 국가 미래 성장동력 육성

박선훈 | 위클리 공감 기자

● 정부는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그중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해 각 지역전략산업들이 국가 미래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마련된 법안이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여야 공동 발의로 지난 3월 24일 국회에 제출됐다. 정부와 여당은 19대 국회 임기 종료 전(2016년 5월 29일까지)에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월 19일 열린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지역의 일자리·투자 확대를 위한 민생법안인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규제프리존은 시·도별 지역전략산업 관련 핵심 규제가 철폐돼 자유로운 기업 활동이 보장되는 구역으로, 규제특례 효과는 물론 정부의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세제도 함께 지원된다.

규제프리존은 2015년 10월 제7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지역별 특화산업을 상향식으로 선정하고 관련 핵심 규제를 해당 지역에 한정해 철폐하는 내용으로 도입이 제안됐다. 이어 2015년 12월 정부는 ‘규제프리존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규제프리존은 각 지역의 산업 기반 및 발전전략을 감안해 지역의 미래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신산업 위주로 신청을 받았고,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별로 2개씩(세종시 1개) 총 27개 지역전략산업이 선정됐다.

맞춤형 특화발전 전략으로 지역 거점 육성

지역 일자리·투자 창출 효과 기대

이렇듯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맞춤형 특화발전 전략’으로 지역 거점을 육성해 국내 다른 도시와의 경쟁보다 해외 도시·지역에 경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특히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해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으로 지역경제의 발전뿐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법으로, 네거티브 규제혁신 시스템과 규제프리존에 대한 규제특례 등을 담고 있다.

먼저 해당 지자체가 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민관 합동 특별위원회에서 육성계획을 심의 및 승인함으로써 육성계획에

포함된 규제특례 등이 효력을 발휘하게 될 방침이다.

또한 모든 규제 유형에 대해 상시적인 규제 개선이 이뤄지도록 네거티브 규제 개선 시스템을 규정했다. 특히 기존 법령에 대한 규제특례를 메뉴판식으로 열거하고 특별법에 반영되지 못한 기본규제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인 원칙 허용, 예외 금지 방식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법적으로 불명확한 경우 명확한 처리를 위해 규제혁신 3중 세트를 도입한다. 규제 적용 여부를 30일 안에 회신하도록 해 그레이존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기업실증특례로 규제가 없거나 부적합·불합리한 경우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허가 등의 특례를 부여한다. 신기술 기반 산업에서 시장 출시 전 안전성 검증 등이 필요한 경우 지역, 기간 등을 한정해 시범사업을 허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전략산업 관련 규제를 신설할 경우에도 네거티브 방식을 우선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일반특례, 지역전략산업별 특례, 입지특례 등 총 73건의 규제특례를 열거해 지역이 필요한 규제특례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법이 시행될 경우 지역별 특성과 강점을 활용한 맞춤형 특화발전이 가능해지고, 이에 따라 인재 유입 촉진과 민간 투자 확대를 통해 지역 주도의 지속적 발전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민감한 규제라도 규제프리존에 한정해 특례를 부여하고, 규제혁신 3중 세트를 통한 입체적인 규제개혁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신기술, 융·복합 분야를 중심으로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활용한 사업과 투자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G**



유망 서비스업 원스톱 지원

69만 개 일자리 만들어진다

김가영 | 위클리 공감 기자

● “서비스산업 육성의 가장 큰 목적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고용률 70%를 달성한 선진국 중에 서비스산업이 발전하지 않은 나라는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서비스산업이 활성화돼야 고용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월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서비스산업 관계자 간담회에서 언급한 내용이다. 정부는 19대 국회 회기 종료(2016년 5월 29일) 전까지 서비스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을 입법 통과시키기 위해 총력을 펼치고 있다.

제조업 부진 해결할 ‘서비스법’ 입법 절실

잠재성장률 연 0.2~0.5%포인트 증가

서비스법은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가 연구개발(R&D)과 세제 혜택, 인력 양성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2014년 박두 경제개혁 3개년 계획을 발표한 이후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을 핵심과제 중 하나로 정하고 ‘유망 서비스산업 원스톱 TF’를 출범시키는 등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에 집중해왔다.

보건 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콘텐츠, 물류 등 7대 분야별 집중 육성방안이 망라됐다. 이는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해 제조업의 성장 한계에 접어든 한국 경제가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2월 발표한 ‘제조업의 서비스화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 제조기업의 평균 매출액 증가율은 2001~2005년 25.1%에서 2006~2010년 19.5%, 2011~2015년 7.5%로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서비스업은 음식숙박업 등 전통 서비스업에만 집중돼 있고 콘텐츠, 광고, 의료 등 잠재력이 큰 산업들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생산성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비스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원으로 키울 수 있는 서비스법이 시행되면, 내수와 수출이 함께 발전하고 질 좋은 청

년 일자리를 창출하게 된다. 서비스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2013년 기준 10억 원당 17.8명으로 제조업(8.6명)의 두 배나 된다. 이는 10억 원이 투자될 경우 18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얘기다.

서비스법의 파급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관련법이 통과되면 2030년까지 일자리 69만 개가 새로 생기고, 잠재성장률이 연간 0.2~0.5%포인트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5년간 최대 1조3000억 원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하고, 연간 30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좌승희 KDI 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부가가치가 높은 보건 의료 분야에서 기술 발전과 수익 창출을 도모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정부는 서비스법 통과와 별개로 중·장기 서비스산업 발전 전략(5개년 계획)을 수립해 오는 6월 발표할 예정이다. 중·장기 발전전략 내용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차별 시정 ▶서비스 인식 개선 ▶서비스 R&D ▶서비스 해외 진출 ▶서비스 인력 양성 ▶7대 유망 서비스 육성 ▶산업간 융·복합 ▶제조업의 서비스화 등 8대 과제를 담고 있다. G



맞춤형 주거 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

행복주택·뉴스테이 30만 가구 공급

두경아 | 위클리 공감 객원기자

● 대학생, 취업준비생, 신혼부부, 노년층, 중산층 등에게 생애주기별 특화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주거 취약계층의 대출 금리를 낮춘다. 다세대·다가구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려는 집주인에게도 혜택을 제공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맞춤형 주거 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전세 가격 상승과 저금리로 임차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주거 불안정성이 높아졌다. 또 집에 대한 인식도 '소유'에서 '거주'로 점차 변하고 있는 추세. 이런 이유로 장기간 안정적인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민간임대주택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 주거 급여, 뉴스테이(기업형 민간임대주택) 등으로 주거 지원을 강화했으나 주거 취약계층이 체감하는 주거비 부담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지난 3년간 주거 지원정책의 성과와 보완점을 점검하고, 정책 여건을 고려해 이번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기존 대학생 전세임대를 청년 전세임대로 확대

청년 창업인을 위한 공공임대도 공급

먼저, 정부는 행복주택과 뉴스테이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2017년까지 총 30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한다. 행복주택을 1만 가구 추가해 기존 14만 가구에서 15만 가구로 늘린다. 이를 위해 행복주택리츠(부동산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뮤추얼펀드) 도입, 공공시설과 복합개발, 매입방식 도입, 가로주택정비사업(미니 재건축)과의 연계 등으로 공급방식을 다양화하며, 오피스텔형 행복주택도 공급한다. 또한 신혼부부와 대학생 특화단지를 각각 5개에서 10개로 늘려 조성할 계획이다.

뉴스테이를 2만 가구 추가해 13만 가구에서 15만 가구로 늘린다. 이를 위해 토지를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토지 지원 리츠 방식을 도입하고, 촉진지구 내 복합개발 가능시설 확대 등 뉴스테이 규제 합리화도 추진한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 확대하되 유형

을 다양화해 생애주기별로 특화된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우선 전세임대를 확대한다. 공급 물량을 기존의 3만1000가구에서 4만 1000가구로 1만 가구를 늘리는데, 이 중 5000가구는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가구당 500만 원씩 지원을 늘려 수도권외의 경우 지원 금액이 8000만 원에서 850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임대의 월세 감면 대상을 확대해 보증금이 소액인 거주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 즉시 입주 가능한 전세임대를 1만 가구 확대해 2016년 공공임대 물량을 기존의 11만5000가구에서 역대 최대 수준인 12만5000가구로 확대한다. 생애주기상 주거 불안 우려가 높은 대학생 등 청년층, 신혼부부, 노년층을 중심으로 생애주기별 특화형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기존의 대학생 전세임대 제도를 청년 전세임대로 확대 개편해 입주 대상에 취업준비생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이들을 위한 물량은 5000가구가 늘어나는데, 이에 따른 서비스를 개선하고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창업지원주택을 신설해 청년 창업인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올해 하반기 지자체 제안으로 300가구를 시범 선정하고, 2017년 사업 승인을 내줄 예정이다. 또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를 신설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의 무주택가구가 10년간 큰 폭의 임대료 인상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1000가구 규모의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공실버주택은 내년까지 20개소, 2000가구로 공급 물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민간 참여를 통해 임대주택 공급방식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투입 없이 기금이나 세제 지원 등으로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공공임대리츠를 활성화해 공공임대 공급에 민간 참여를 늘린다. 공급 물량은 7000가구까지 확대하고 LH 외 지방공사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투자 주체를 다양화한다.

집주인 리모델링 물량을 400가구에서 1000가구로 확대하고, 개인이 다세대주택 등을 매입해 경수선(도배, 장판 교체 등)한 후 자발적으로 LH에 임대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혜택을 준다. 연 1.5% 금리로 매입자금을 지원하고, LH는 입주자를 선정하거나 월 임대료를 수납하는 등 임대 관리 업무를 지원한다. 또 근로자 임대를 활성화해 임대주택 공급에 기업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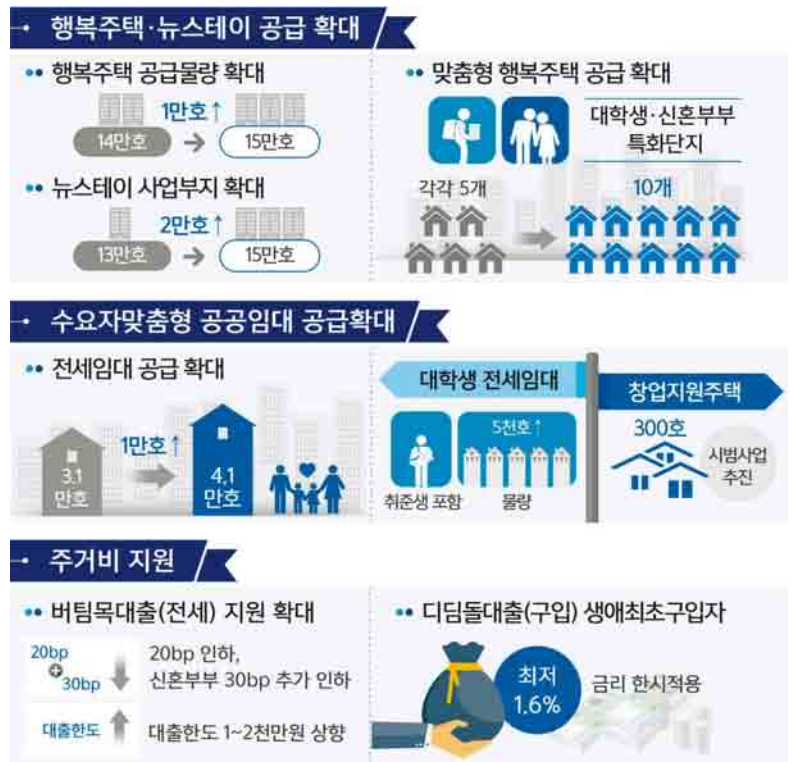
위해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데, 올해부터는 중소기업에 한해 수도권 투자세액공제율(7%)을 지방과 동일하게 10%로 확대한다.

주택 생애 최초 구입자에게 최저 1.6% 금리 한시적 제공 월세세액공제 제도 개선 및 보완

또한 주거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전·월세 가구에 대해 기금 융자 등을 확대해 주거비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전세 세입자의 경우 버팀목대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대출 금리를 0.2%포인트 인하하고, 수도권의 대출 한도도 2000만 원 상향한다. 또 신혼부부의 경우 기존 0.2% 포인트에서 0.5%포인트까지 늘려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대출 한도도 1000만~2000만 원 올릴 예정이다. 주택을 구입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디딤돌대출은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해 최저 1.6%의 금리로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월세 세입자의 경우 월세세액공제 제도를 개선·보완할 예정이다.

주거 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계층에 임대주택과 전·월세 자금 등이 우선 제공될 수 있도록 주거복지 지원 체계를 정비한다. 주거 기준 합리화로 소득 대비 임대료 부담과 최저 주거 기준 미달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주거복지 전달 체계 개선을 위해 마이홈센터 중심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마이홈센터-지자체-주거복지단체 간 주거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맞춤형 주거복지를 위해 공공 지원으로 공급된 장기임대주택을 공공지원주택으로 재정의해 관리하고,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재공급 물량 활용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2022년까지 소득 5분위 이하 무주택 가구의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2017~2022)'을 연내 수립할 계획이다.

주택 임대차 시장의 인프라도 개선한다. 임대주택과 월세 비중 증가에 따라 임차인·임대인의 편의 증진과 임대차 계약의 신뢰성 확보 등에 관한 서비스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다양한 주거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사전에 계획된 주거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자료 : 국토교통부

있도록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전문 임대 관리업체를 육성해 종합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임대관리업 등록 기준을 완화해 다양한 임대 관리업체 참여를 유도하며, 보증보험 가입 의무 완화 등을 통해 임대관리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또한 임차인이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임대차 분쟁 조정 기준을 마련하고, 전·월세 정보를 알기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통계 인프라도 개선할 예정이다. 특히 허위·중복 매물에 따른 임대료 시세 정보 혼란을 최소화하고 월세 체납, 하자 책임 등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방침이다. 임차인이 본인이 원하는 가격 수준의 임대주택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입주 가능 주택가격 지도도 구축한다. 전·월세 통계 등 주거 지원정책에 필수적인 각종 주택 통계를 기존의 연 단위에서 분기 단위로 주기를 단축해 보완할 예정이다. **G**

방과후학교 활성화

초등 돌봄기능 추가하고
창의융합형·예체능 프로그램 확대

두경아 | 위클리 공감 객원기자

● 초등학교 3, 4학년을 대상으로 하루 두세 시간씩 생활체육이나 예술 강좌에 돌봄시간까지 포함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또 동아리 연계형이나 창의융합형 프로그램 등 학생들의 끼와 꿈을 키워주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신설된다. 이어 100대 우수 방과후학교를 선정하고 명품 방과후학교 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평가제도도 마련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5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과후학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정규 교육과정에서 충분히 제공하기 힘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공교육을 보완하고, 시대 변화에 따른 새로운 교육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번 방안은 최근 방과후학교 참여율 감소에 따른 우려 속에서 지난 2011년 ‘방과후학교 내실화 방안’ 이후 5년 만에 마련된 것이다. 자유학기제 본격화와 교실 수업의 혁신, 학생 동아리 활성화, 돌봄교실 정착 등 학교 현장의 변화와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를 반영해 방과후학교를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질 높은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교육 격차 완화’, ‘초등 돌봄교실 강화’, ‘방과후학교 지원 강화’ 등 크게 4대 영역으로 구분해 9개 중점과제를 제시했다.

동아리 연계형 및 예술·체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

취약계층 위해서는 강사와 비용도 지원

먼저, 학생 수요에 맞는 질 높은 프로그램을 편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학생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영역별, 수준별, 무학년제 프로그램을 개설해 다양한 교육을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학생들의 흥미나 적성에 따라 동아리 활동과 연계한 ‘동아리 연계형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게 해 학생들의 소질이나 적성, 진로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 또 창의·융합 선도학교(50개 학교)와 소프트웨어 선도학교(900개 학교)를 중심으로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같은 창의 융합형 사고력을 향상하기 위해 ‘융합인재교육(STEAM)’,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정규 수업과 연계한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이렇듯 선도학교에서 진행된 프로그램은 일반학교에도 확산될 수



동아리

초등학생들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으로 재즈댄스를 배우고 있다.

있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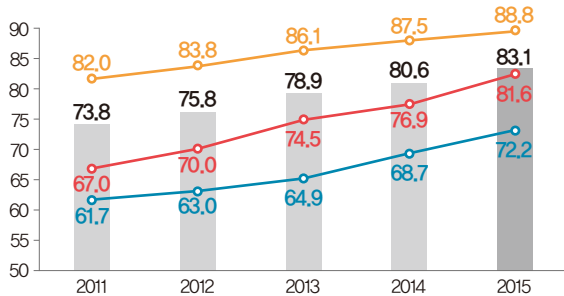
전년 대비 사교육비가 증가한 예술·체육 분야의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초등학교 3, 4학년을 중심으로 생활체육과 예술 강좌 등에 돌봄 기능까지 포함하는 ‘시간연장형(하루 2~3시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면 40분 단위 강좌를 3~4단위로 이어 운영하는 것으로, 2~3단위는 예체능을 하고 1단위는 돌봄으로 연장할 수 있다.

예술·체육 특목고, 중점·거점학교 교사나 강사를 활용한 전문성 높은 프로그램을 다른 학교 학생에게도 개방해 운영하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이때 신청 학생 수가 적거나 개별지도가 필요한 과목은 소수 인원으로도 강좌가 개설될 수 있도록 예체능 분야 강사를 지원한다. 5명 이상 참여하는 국악, 공예, 애니메이션, 연극, 스포츠댄스 등은 강사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기준으로 예술중점학교는 23개, 예술거점학교는 20개, 체육중점학교 61학급(31개 학교), 체육거점학교는 17개 등이 운영 중이거나 운영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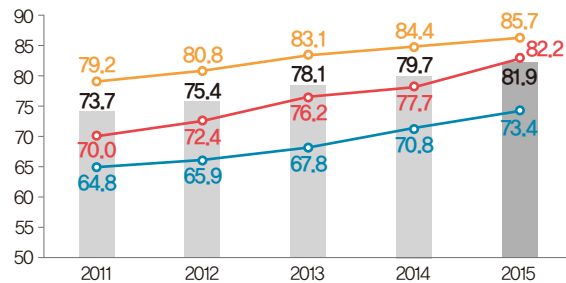
이를 위해 적절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강화하고, 위탁업체 소속의 우수 강사가 이탈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인건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또 과도한 저가 낙찰 때문에 부

방과후학교 만족도 조사 결과

학생 만족도



학부모 만족도



(단위 : %)

자료 : 교육부

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도교육청별 방과후학교 업체 위탁 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한 업체 위탁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교육 격차 완화’를 위해 교육부는 올해부터 농어촌, 저소득층, 다문화 밀집지역에 방과후학교 강사 1000명을 지원해 질 높은 프로그램 제공을 돕는다. 강사료와 교통비 명목으로 투입되는 비용만 154억 원이다. 농산어촌 학교에서 태블릿PC 등 정보통신기술(ICT)기기를 활용해 온라인 콘텐츠나 원격교육 방식의 방과후학교가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 모델을 개발한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정의 자녀나 중도 입국 학생을 위한 이중언어 등 맞춤형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대전 삼성초등학교에서는 중국 유학생(우송대)을 (보조)강사로 활용해 중국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했다.

아울러 기업과 공공기관, 대학 등이 제공하는 교육 기부 자원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기부 매칭 사이트(www.teachforkorea.go.kr)에 방과후학교 코너를 신설하고 교육 기부자와 학교의 온라인상 매칭 기능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초등 돌봄교실에 대학생 봉사단 활용한 튜터 방식 도입

내실 운영 위해 교원 연수 및 인증제 실시

‘초등 돌봄교실 강화’를 위해 돌봄교실을 지난해 24만 명에서 2020년까지 약 26만 명으로 약 2만 명을 확대 수용한다. 1~2학년은 특성에 맞는 놀이나 안전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3~6학년은 방과후학교와 연계한 돌봄교실 운영으로 전 학년 맞춤형 서비스를 완성한다. 또 맞벌이 학부모 등이 돌봄교실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해 2017학년도부터 활용하기로 했다.

대학생 돌봄교실 봉사단 활동을 발전시켜 대학생 봉사자가 전담

사, 방과후학교 강사와 멘토·멘티 팀을 구성해 예체능 프로그램에 이어 학생의 특성에 맞게 보충 활동을 돕는 ‘튜터 방식’을 도입한다. 대학생과 함께하는 동네 벽화 그리기, 난타반·탈놀이반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나 악기 연습 멘토링 등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올해 돌봄교실에 참여하는 대학생 동아리 봉사단 170개에 5억 원을 지원한다.

학교 돌봄과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등 지역 돌봄 기관과 연계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수요에 맞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 돌봄 협의회를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의 지역 돌봄 협의회 운영이 잘되도록 적극 독려하고, 올 상반기에 ‘지역 돌봄 컨설팅 안내서’를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방과후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방과후학교 지원센터(전국 140개)와 시·도교육(지원)청의 역할을 강화해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에 맞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해 학교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컨설팅을 통한 현장 문제 해결도 적극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시·도별 퇴직 교원과 학부모 봉사자 등으로 인력을 구성했으며, 여기에 대학생 근로장학생을 선발해 방과후학교 업무를 지원할 수 있게 했다. 근로장학생의 수는 올해 1000명에서 내년 4000명까지 늘려 지원 업무를 원활하게 할 계획이다.

시·도교육청 평가에 방과후학교 참여율 외에 학생과 학부모 서비스 만족도를 반영하는 한편, 다양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초·중·고교에 대한 시상도 마련한다. 올해부터 100대 방과후학교를 선정하고, 3회 연속 선정 시 ‘명품 방과후학교’로 인증해 담당 교원과 학교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방과후학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역할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공교육을 보완해 우리 교육이 학부모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6]

어려운 서민들에게 원스톱 금융 서비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33개로 늘린다



5월 3일 서울 양천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개소식에 참석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상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통합지원센터에서는 저금리 자금 대출이나 채무조정 등 서민들을 위한 금융 지원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김민주 | 위클리 공감 기자

경기도에 거주하는 장모(47) 씨는 제조업 생산직에 종사하고 있다. 정규직이지만 연소득이 1500만 원에 불과해 생계비 부족 등의 이유로 20% 이상의 고금리 대부업체에서 800만 원의 돈을 빌리게 됐다. 하지만 고금리 때문에 생계의 압박감은 더욱 심해졌고, 결국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는지 알아보기 위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했다. 장 씨는 바퀴드림론 창구에서 상담을 받고 “800만 원을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는 소식에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다. 이후 장 씨는 담당 상담사의 안내로 저축은행의 햇살론 창구에서 생계자금 1000만 원을 추가로 신청해 생계자금까지 지원받을 수 있었다. 장 씨는 “처음에는 급한 불이라도 꺼야겠다는 생각으로 센터를 방문했는데, 상담을 하면서 꼭 필요한 생계자금까지 지원받게 돼 무척 기쁘다”며 삶의 의지를 다졌다.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가 힘들고 어려운 서민들의 삶에 ‘희망’이 되고 있다. 센터는 정부가 추진하는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방안’의 일환으로 금융 문제로 힘든 서민들을 대상으로 종합상담, 심사,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곳이다. 2014년 11월 부천에

처음 개소한 이후 대전(2015년 7월 개소), 광주(2015년 11월 개소), 대구(2015년 12월 개소), 부산(2016년 2월 개소) 등 5곳에서 운영 중이며, 5월 3일 서울 양천구에도 문을 열었다.

센터에 방문하면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 유관기관은 물론 저축은행도 참여해 내방자가 햇살론 상담과 대출을 받으며 원스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해준다. 또한 지자체 등과 연계해 일자리 상담과 취업 알선, 복지 서비스 안내 등 고용·복지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다.

미소금융, 햇살론과 대출 상담은 물론

일자리 상담, 취업 알선, 복지 서비스까지 서민 채감

가장 일찍 문을 연 부천센터는 개소 후 14개월간(2015년 12월 기준) 1만8792명(방문상담 1만2161명)이 상담을 완료했으며, 이 가운데 4566명이 지원을 받았다. 미소금융은 센터가 개소하기 이전과 비교해 대출 실적은 16.9%, 지원 금액은 2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천·부천 지역 신용회복위원회 방문상담 건수는 17%, 채무 조정 건수는 1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센터는 개소 후 6개월(2015년 12월 기준) 만에 총 1만4052명(방문상담 9152명)이 상담을 완료했으며, 이 가운데 4148명이 지원을 받았다. 특히 대전센터는 월평균 상담 실적이 약 2340건에 달하는 등 짧은 기간에 지역 서민금융 지원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울러 대전시 청년인력센터 등과도 활발히 협업해 총 641명에 대한 취업 지원도 실시하고 있다.

광주센터는 개소 후 2개월(2015년 12월 기준)간 총 3335명(방문상담 2196명)이 상담을 완료했으며, 이 가운데 1175명이 지원받게 됐다. 특히 신용회복위원회와 광주지방법원이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개인회생·파산 절차가 신속하게 연계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서민들이 좀 더 체감할 수 있도록 자금 공급, 채무 조정, 현장 지원센터를 ‘수요자’ 중심으로 운용해 서민금융 지원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며 “원스톱 맞춤형으로 서민금융을 지원하기 위해 서민금융 유관기관, 지자체 등과 협의해 올해 중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전국에 33개소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G**

중증치매 24시간 방문요양 서비스 하루 2만 원

만 12세 여아 자궁경부암 백신 6월부터 무료 접종



빠르면 9월부터 장기요양 1, 2등급 치매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은 여행 등 일시적 휴식이 필요한 때 연간 6일 동안 24시간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조영실 | 위클리 공감 기자

● 가정에서 장기요양 중증치매수급자(1~2등급)를 돌보는 가족은 빠르면 9월부터 24시간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더불어 5등급 치매수급자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 시간이 확대 되고, 1~4등급 치매수급자에게도 본인이 원하면 인지 자극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치매가족 지원방안'을 4월 22일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심의했다. 장기요양 1, 2등급 치매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은 여행 등 일시적 휴식이 필요한 때 연간 6일 동안 24시간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료는 하루 18만3000원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6만3430원을 부담한다. 연간 6일을 모두 이용해도 본인부담액은 11만7420원 수준이다.

장기요양 서비스 수급자 가운데 치매가 있고 인정조사표상 수발 부담이 큰 8개 항목(망상, 폭언, 폭행 등)에 1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24시간 방문요양을 신청하면 요양보호사

가 보호자를 대신해 일상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간호사가 서비스 기간 중 1회 이상 방문해 응급 상황에 대비한다. 자세한 서비스 대상과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콜센터 1577-1000)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8월경 대상자에게 자세한 내용을 담은 개별 안내서가 발송된다.

5등급 치매수급자의 가사를 지원하는 '일상생활 함께하기' 시간을 하루 1시간에서 2시간으로 확대(월 26시간→42시간)하기로 했다. 일방적인 가사 지원이 아니고, 수급자의 잔존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와 함께 가사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기억력 향상 등을 돕는 인지 자극 프로그램도 지금처럼 1시간씩 진행된다. 프로그램 제공 대상은 5등급에서 1~4등급 치매수급자까지 확대됐다. 전문교육을 받은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간유두종 바이러스, 정기 예방접종 필요 감염병 포함

국가 지원 백신 맞으면 70% 이상 예방 가능

2003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 출생한 여성청소년은 올 6월부터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6개월 간격으로 두 번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자궁경부암 발생의 주요 원인인 '인간유두종 바이러스(HPV) 감염증'을 정기 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에 포함하는 고시 등 개정안을 행정예고(4월 28일~5월 6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그간 1회 접종에 15만~18만 원에 이르는 접종비용(2회 접종 시 30만~36만 원)을 전액 본인이 내야 했던 부담을 덜게 됐다.

자궁경부암은 전 세계 여성암 중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발병률이 높고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3300여 명이 발병해 연간 900여 명이 사망할 정도로 질병 부담이 높은 암이다. 자궁경부암 발생 원인의 99%는 고위험 HPV로 국가 지원 백신인 '서바릭스'와 '가다실' 모두 고위험 HPV로 생기는 자궁경부암을 70% 이상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백신으로 알려져 있다.

접종 대상자는 주소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보건소와 지정의료기관을 방문해 접종받을 수 있다. 지정의료기관은 5월 중순 이후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cdc.go.kr)이나 스마트폰 앱 또는 각 지역 보건소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6**



평범하지만 특별한 7인7색 이야기

나에게 가족이란 ○○○이다



함께했던 공유된 기억이 가족을 하나의 끈으로 묶는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족과 관련한 기념일도 참 많습니다. 5일은 어린이 날, 8일은 어버이날, 15일 가정의 날, 16일 성년의 날, 21일 부부의 날입니다. 참 11일 입양의 날도 있습니다. 특히 최근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밝혀져 더욱 가정의 소중함과 가족 사랑을 생각하게 합니다. 아내를 대신해 아이를 키우기 위해 육아휴직을 낸 남편, 경찰관 아내, 입양으로 가정을 꾸린 엄마,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 재취업 여성은 물론 생애 첫 내 집을 마련하고 행복한 가족의 미래를 설계하는 젊은 주부 등 평범하지만 특별한 7인 가족의 색다른 가족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정책도 정리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가정이 웃음 넘치는 5월이 되었으면 합니다. 김건희 | 자유기고가

육아휴직 장동중 씨가 말하는 '육아의 감동'

“우리 곁에 온 천사, 삶의 기준이 바뀌었다”

● 내가 아이를 돌보게 된 것은 아내가 1년간의 육아휴직을 마치고 직장에 복직하면서다. 2013년 8월에 태어난 아이는 당시 18개월 된 갓난아이였다.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돌봐야 할 나이였다. 순간 머릿속에 ‘이번 기회 아니면 아이와 시간을 보내기 어렵겠지’라는 생각이 스쳐갔다. 결국 직장에 1년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집안일은 단순했다. 설거지를 하고, 세탁기를 돌린 후 빨래를 짜서 건조대에 널었다. 청소기는 돌릴 수 없었다. 아이가 잠든 사이에 청소를 해야 했기에 걸레를 사용해야 했다. 이 정도면 할 만하다 싶었는데, 복병은 따로 있었다. 아기를 돌보는 일은 단순하지 않았다. 스펙터클했다. 아이가 배고파하면 밥을 먹이고, 칭얼대면 놀아주거나 기저귀를 갈아주면 됐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었다.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종종 벌어졌다. 아이는 이유 없이 울고 칭얼댔다. 졸려서 그런 줄 알고 자장가를 불러줬더니 자지러

지게 울었다. 기저귀는 아직 뽕송뽕송하고, 밥은 아까 먹었는데,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당황스러웠다. 그러다 우연히 아이의 이마에 손을 댔는데 뜨거웠다. 열꽃은 피고, 아기는 보채고, 도와줄 사람은 없고... 아내가 퇴근해 집에 오고 나서야 최악의 상황을 면할 수 있었다. 아이를 어르는 아내를 보면서 아내의 노고와 헌신을 다시금 깨달았다. 세상의 모든 아내와 어머니가 대단해 보였다.

이를 계기로 내 삶의 기준이 ‘나’에서 ‘가족’으로 바뀌었고, 가사와 육아에 적극 동참하는 남편이 됐다. 비록 육아휴직으로 경제적인 타격이 있었지만 이보다 더 큰 걸 얻었기에 괜찮다. 당시 아이와 교감을 쌓은 덕분에 요즘도 아이는 잘 때 내 옆에 붙어서 잔다. 잠든 아이의 모습은 마치 천사 같다. “아빠가 너를 지켜줄게. 사랑한다, 아들.”



이설아 씨의 '사랑으로 맺은 가족'

"가슴으로 낳은 세 아이... 최고의 보물"

● 우리 부부는 세 아이를 가슴으로 낳았다. 2008년, 2010년, 2013년 공개 입양으로 세 아이를 얻은 것이다. 하늘이 맺어준 소중한 인연이다. 내 배로 낳은 건 아니지만 내 속에서 낳은 거나 다름없다. 입양 과정뿐만 아니라 입양 이후에도 수많은 진통을 겪었기 때문이다.

일부 입양가정은 생후 1년이 넘는 아이나 남자아이를 선호하지 않는다. 자아가 형성되지 않은 신생아나 성격이 온순한 여자아이를 입양하는 게 상대적으로 키우기가 수월하기 때문이다. 생후 1년이 넘는 남자아이들은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순간마저도 소외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다. 자꾸 눈에 그 아이들이 아른거렸다. 부부는 말하지 않아도 통한다고 했던가. 내 마음을 알아챘는지 남편이 내 뜻을 따르겠다고 했다.

남편은 입양 과정이 순탄치 않을 때마다 버팀목 역할을 했다. 2010년 다섯 살이던 미루를 만났을 때 아이의 첫인상은 어두웠고 작고 초라했다. 남편은 아이에게 시간이 필요한 것 같이라며 친해지는 시간을 갖자고 제안했다. 우리 부부는 미루와 2010년 봄부터 연말까지 만남을 가졌다. 하지만 미루는 여전히 우리 부부를 경계했다. 입양을 포기할까 고민하는데 남편이 내 손을 잡으며 "아이의 손은 쉽게 놓는 게 아니야"라고 격려해주었다. 그때 남편이 그렇게 말해주지 않았다면 우리 가족은 탄생하지 못했을 것이다.

입양은 우리 부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꿨다. 미술 강사로 활동하던 나는 입양 경험을 토대로 다른 입양부모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국입양홍보회 입양 세미나 부모교육 강사로 활동했다. 이를 계기로 입양가족 커뮤니티 대표로 활동하다 지금은 입양가족의 사후서비스(교육 및 상담)를 담당하는 '건강한입양가정지원센터' 대표를 맡고 있다.

나도 입양

전도사로 활동하고 있

지만 입양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입양아동이 원가족과 만나며 교류하는 일, 입양부모와 친부모를 구분하는 일, 또래 아이들과 다른 가족 구성을 인지시키는 일은 험난했다.

무엇보다 입양아동이 자신이 입양된 이유를 받아들이는 과정은 고통의 연속이었다. 사춘기에 접어들어 미루는 때때로 자신을 낳아준 엄마를 그리워하거나, 자신이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자존감이 낮아지고, 큰 상실감에 시달리기도 한다. 그럴 때마다 내 가슴은 철렁했다. 내가 아이에게 소홀해서 그런 건 아닌지, 내가 감당하지 못할 짐을 맡은 건 아닌지, 누가 아이의 가슴에 불을 지른 건지 생각하면 괴롭고 속상하다. 그럴 때마다 남편이 나를 달래주었다. 우리는 잘하고 있다고, 아이가 이 과정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껏 도와주자고.

남편의 위로를 받은 나는 아이와 단 둘이 빈방으로 들어가 꼭 끌어안아 주곤 했다. 아이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는지 공감하고, 너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해주었다. 아이가 내 품에 안겨 울면서 자신의 감정을 밖으로 끄집어내길 몇 차례. 그러면 신기하게도 아이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다시 씩씩해졌다.

우리 부부는 이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다. 어쩌면 평생 감당하며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 우리 부부도 나약한 인간인지라 언제쯤이면 이 고비가 지나갈 것인지, 이런 상황이 버거운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우리 부부는 아이들과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아이들을 만난 후 우리 부부의 삶은 이전보다 풍성해지고 건강해졌다. 우는 날도 많지만 웃는 날이 더 많다. 가족이기 때문에 아픔도, 슬픔도, 기쁨도 함께할 수 있는 것이다.





재취업 주부 이새란 씨의 '가족이 일군 기적'

“일과 직장 병행... 고맙고 사랑해”

● 11년간의 연애, 결혼 3개월 만에 첫 임신, 11주 만에 자연유산, 그리고 두 번째 임신. 그동안 우리 부부에게 일어났던 일들이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라는 직업 특성상 나는 임신과 출산 시기를 학사일정에 맞춰야 했다. 앞서 유산을 경험했던 터라 두 번째 임신을 했을 때는 초기부터 각별히 신경을 썼다. 그런데도 의사는 유산 위험이 있다고 했다. 남편은 직장을 그만두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8년간의 직장 생활을 정리할 땐 기분이 참 묘했다. 처음엔 과도한 업무와 무한책임에서 벗어났다는 마음에 매우 흥분했지만, 나만 뒤처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엄습했다. 허탈감에 빠진 내게 남편이 직장에서 받은 퇴직금을 온전히 나만을 위해 쓰라며 외국어학원과 컴퓨터학원에 등록할 것을 권했다. 맞벌이에서 외벌이로 바뀐 후 경제적 부담이 큰 상황이었지만 나를 먼저 생각해주는 남편이 고맙다.

하지만 집에 있으면서 나만 낙오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 임신기간 중 감정적으로 변하는 나를 남편은 다독여 주었다. 남편의 든든함이 나의 감정을 잠재웠다. 덕분에 무사히 출산을 했고, 엄마가 됐다. 세상의 그 무엇도 나를 위로하지 못했는데, 남편의 응원과 아이가 나의 허무함과 열패감을 덜어냈다. 아이를 키우면서 누리는 소소한 기쁨, 즐거움, 보람은 무척 달콤했다. 하지만 현실을 외면하기가 어려웠다. 남편의 별이만으로 가계를 꾸릴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재취업을 어렵사리 결심했건만 직장은 쉽게 얻어지지 않았다. 집과 직장, 아이가 다닐 어린이집 위치가 가까워야 하는데, 이런 조건에 적합한 직장을 구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다. 어린이집 원장들이 11개월 된 아기를 둔 30대 초반의 여성을 쉽사리 채용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면접자들은 근무 중 아이가 아



프면 어떻게 할 것인지, 둘째 아이는 언제 가질 계획인지, 친정이나 시댁은 인근에 위치하는지, 남편의 직장은 어딘지, 남편이 가사와 육아를 얼마나 돕는지 등을 꼼꼼하게 확인했다. 임신과 출산 때문에 생긴 경력 단절도 재취업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고용주들은 8년간의 경력보다 1년 6개월의 공백기를 주목했다.

이런저런 이유로 채용이 불발됐다. 그제야 경력단절여성으로서 겪는 부당함과 서러움이 몰려왔다. 재취업에 실패하면서 자신감이 떨어졌다.

갈팡질팡하기를 며칠 켜, 출근한 남편에게서 문자메시지가 왔다. '나의 가치를 알아줄 곳이 있으니 용기를 잃지 말라'는 내용이었다. 나는 다시 힘을 얻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취업 상담을 하는 등 다각도로 일자리를 알아보았다. 시댁과 친정 식구들도 내게 취업 준비에 필요한 공부를 하라며 주말에도 아이를 맡아줬다. 엄마의 마음을 아는지, 아이도 나와 떨어져 있을 땐 보채지 않고 가족들을 잘 따라줬다. 가족들이 나의 재취업을 위해 불편을 감수하며 헌신해준 것이다. 가족의 응원과 사랑이 기적을 만든 것일까. 나는 올해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취업에 성공했다.

일과 직장을 병행하는 나는 여전히 좌충우돌한다. 직장에서는 깨끗하게 청소하고 정성스럽게 아이들을 돌보지만 정작 퇴근 후에는 피곤하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군말 없이 집안일을 대신 해준다. 그저 미안하고 고마울 따름이다. 내가 일을 시작하면서 아이는 첫돌이 지나자마자 어린이집 생활을 시작했다. 일을 하면서도 다른 아이는 내 손으로 돌보는 데 정작 내 아이는 돌보지 못한다는 자책감이 컸다. 하지만 아이는 순하게 밝게 건강하게 잘 커주고 있다. 누군가 나의 재취업 성공 요인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우리 가족이 이룬 기적'이라고.

경찰관 아내 홍귀임 씨의 남다른 소망

“국민 위해 봉사하는 남편, 늘 건강 챙기세요”

● 수감, 제복, 잠복근무, 민중의 지팡이... 경찰 하면 떠오르는 단어다. 밤을 새며 범인을 잡기 위해 고군분투하거나 시비가 붙은 이들의 싸움을 중재하는 경찰의 모습은 우리에게 익숙하다. 하지만 늘 위험 속에 사는 경찰을 남편으로 둔 아내의 마음은 어떨까.

서울 중랑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장 이상인 경찰관의 아내 홍귀임 씨는 경찰의 아내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 없다”고 말한다. 맡은 업무에 따라 근무시간이 불규칙한 것은 물론 지방 근무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새벽에 출근해서 밤늦게 귀가하는 데다 야근이 잦아요. 폭 쉬지 못해 과로가 누적될 때는 ‘저러다 쓰러지면 어쩌지’ 걱정되죠. 그런데도 남편은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가족과 시간을 보내요. 정말 바쁠 땐 새벽에 출근하기 전에 잠자는 아들과 딸의 귀에 대고 ‘아빠 출근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아이들은 잠결에 아

빠를 배웅하고(웃음).”

가정에서 시작된 이상인 경찰관의 다정다감은 밖에서도 이어진다. 청소년 범죄 전문인 그는 바쁜 외중에도 시간을 쪼개 법원에서 관리하는 아이들을 정기적으로 만난다. 걸치레 만남이 아니다. 오랫동안 함께하다 보니 이제 아이들의 학업 성적뿐만 아니라 이성 친구까지 줄줄이 펜다.

“사회에 보탬이 된다는 점이 남편을 경찰로 살아가게끔 만드는 것 같아요. 탈선 청소년이 마음을 잡고 집에 들어가 가족과 관계가 회복될 때 가장 기쁘대요. 가정이 건강해야 국가가 건강하다는 게 남편의 지론이죠.”

그래서일까. 요즘 들어 가족에 대한 남편의 사랑이 더욱 진하게 느껴진다고 홍 씨는 말한다. 그가 남편에게 바라는 건 한 가지다. “지금처럼 건강하게 지내준다면 더 바랄 게 없어요.”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 김수연 씨의 ‘고마운 가족’

“다문화가정 상담원 꿈 마침내 이뤄졌어요”

● 중국 옌지(延吉)에는 한국인이 많았다. 사업차 중국에 온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옌지는 오래전부터 조선족 동포들이 밀집해 살고 있어서 조선족과 한국인이 만나 결혼하는 사례가 많은 곳이기도 하다. 조선족 김수연 씨도 이곳에서 한국인 남편을 만났다.

인연은 중국에서 맺었지만 결혼 생활은 한국에서 해야 했다. 정든 고향을 떠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했다. 예상은 했지만 한국은 중국과 많이 달랐다. 한국인은 고기를 튀기지 않고 찌개에 넣어 먹는 걸 좋아했다. 이 정도는 적응할 만했다. 말로만 들었던 지하철을 일상적으로 타야 했고, 창고 같은 대형마트에서 장을 봐야 했다. 설렘보다 두려움이 커졌다. 가족과 친구에 대한 그리움이 커지면서 향수병이 도졌다. 그때 남편과 시어머니가 김 씨를 붙잡아줬다.

“제가 주변 사람들의 말에 마음이 상하기라도 하면 남편이 ‘한국인은 감정적이지만 정(情)이 많다’며 다독여줘요. 시어머니

는 외국인인 며느리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주변 사람들에게 소개해요. 딸도 학교 친구들에게 엄마가 조선족이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요.”

중국에서 직장 생활을 했던 김 씨는 한국에 온 후 다문화가정 지도사의 꿈을 키웠다. 다문화가정을 꾸린 자신이 누구보다 결혼이주여성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남편도 김 씨의 결정을 적극 지지했다. 다문화가정 부부가 겪는 갈등을 도와주는 상담사로 활동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김 씨는 현재 다문화가족의 정착과 이주여성 폭력 피해를 지원하는 다누리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한다.

“저의 결정을 믿고 응원해준 가족 덕분에 이주여성이었던 제가 다문화가정 지도사와 상담원이 됐어요. 저의 경험을 토대로 이주여성들을 돕고 싶습니다.”





‘생애 첫 내 집 마련’ 황정미 씨가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

“세상이 선물해준 너무 소중한 보금자리”

● 사랑하는 남편, 그리고 나의 소중한 아들과 딸. 엄마가 가족에게 편지를 쓰는 건 처음이네. 2013년은 우리 가족에게 의미 있는 한 해였지. 우여곡절 끝에 우리만의 보금자리를 마련하게 됐으니 말이야. 전주에서 서울로 올라올 때 집을 구하느라 무척 고생했던 게 이제는 하나의 추억이 됐어. 비록 작지만 아늑한 집을 마련하게 돼 무척 기뻐. 사실 집을 마련하는 과정은 어려움의 연속이었어. 당신이 직장을 옮기면서 갑자기 서울 생활을 시작하게 된 탓에 출근 날짜에 맞춰 급하게 집을 구해야 했으니까. 더군다나 우리가 가진 돈에 맞춰 아이들이 지내기에 알맞은 깔끔하고 깨끗한 집을 구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

그런 외중에 친구가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추천해줬고, 시중은행보다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지. 기존 전세금과 그동안 조금씩 저축한 돈에서 부족한

금액은 생애최초주택구입자

금 대출로 해결할 수 있었어. 정말 감사한 일이야.

처음으로 ‘내 집’으로 이사하던 날,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던지. 내 집을 마련한 이후 가장 좋은 점은 우리 부부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얻게 됐다는 거야. 아들과 딸이 앞으로 이곳에서 어린 이집과 학교를 다니게 될 거라고 생각하니 이웃과 더 잘 지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덕분에 엄마는 요즘 동네 엄마들과 교류하는 재미에 푹 빠졌단다. 엄마는 우리 가족이 집을 마련한 이후 더 화목하고 건강해진 것만 같아 무척 감사해.

비록 육아와 가사 때문에 잠시 직장을 쉬게 된 건 안타깝고 슬프지만, 너희들이 크는 이 시기는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는 걸 잘 알기에 힘을 낼 수 있어. 그리고 이런 선택을 지지하고 격려해 준 당신에게 진심으로 고마워. 우리 더 사랑하고 행복하자.



호스피스 병동 간호사 김경미 씨의 가족일기

“오늘도 내일도 가족을 더 사랑해야지”

● 2015년 봄, 호스피스 병동에 새 환자가 왔다. 서른네 살의 싱글 여성, 암환자였다. 자궁에서 시작된 암은 폐와 뇌로 전이돼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였다. 환자는 자신의 상태를 어느 정도 예감하는 듯했다.

어머니에게 딸의 암 선고는 청천벽력이었다. 남편을 잃은 지 2년 만에 딸이 말기암을 진단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딸은 틈이 날 때마다 “내가 죽으면 장례를 이렇게 치러달라”, “내가 하늘나라 가면 엄마를 위해 기도하겠다” 같은 유언을 어머니에게 남겼다. 하지만 어머니는 딸이 죽음을 앞둔 상황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부인하고 거부하고 화를 냈다. 그들의 사투는 오래가지 않았다. 어머니는 딸에게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다. 특히 가족에게 이별을 예고하고, 인사말을 남기는 딸을 받아들였다. 자신도 딸에게 약속을 했다. “네가 가도 나는 여기서 열심히 살겠다”고.

암 병동에서 근무하다 보니 죽음을 앞둔 환자와 가족이 경황

없이 작별하는 것을 수없이

이 보게 된다. 죽음이란 게 예고된다 해도 받

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었다. 더욱이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 보내야 한다는 건 남은 가족에게 지극히 잔인하고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이 환자와 가족은 달랐다. 죽음이 다가오는 순간까지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했다. 이 가족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것을 계기로 환자 중심의 진료를 하던 나의 간호 패턴이 조금 달라졌다. 환자 가족까지 생각하게 된 것이다. 최근 정부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제도를 전면 확대 시행하기로 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 환자와 가족이 내게 가르쳐준 것도 있다.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이다. 항상 든든하게 가족을 지켜주는 남편과 건강하게 자라는 두 딸에게 진심으로 고맙다. 그래서 아침마다 늘 남편과 아이들을 보며 다짐한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 가족을 더 이해하고 사랑하자”고.





건강한 가정 위한 정부 지원제도

육아 실습부터 주부 재취업까지 행복의 문을 두드리세요



정부는 가정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펴고 있다.

김건희 | 자유기고가

●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전국 160여 개 센터를 통해 가족교육, 가족상담 등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펴고 있다. 특히 아빠를 위한 육아 정보 프로그램을 회기마다 제공한다. 일례로 경기 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6개월 미만 자녀를 둔 아버지와 예비아빠를 대상으로 ‘초보아빠 탈출기’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한다. 신생아와 6개월 미만 아기의 특징을 이해하고 모유 테워 먹이는 법, 분유 타는 법, 동화책 읽어주는 법을 알려주고 목욕시키는 법, 기저귀 가는 법을 실습한다.

살다 보면 경제적인 이유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가정에 위기가 닥칠 수 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위기 상황에서도 건강한 가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고용·복지, 서민금융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여러 기관이 협업해 문제 해결을 돕기 때문에 실질적이고 복합적인 처방을 받을 수 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면 초기 상담을 거쳐 서비스 경로를 정하고, 해당 창구에서 상담을 받으면 된다. 현재 전국에 96개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출산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주부들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돕고 있다. 또한 재취업한 여성의 직장 적응과 장기근속을 돕기 위해 ‘왕언니 멘토링 369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출산을 할 경우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주민센터 한 곳에서 신청을 통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모든 여성 노동자라면 ‘임신기 근로기간 단축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종전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받으면서 하루 노동시간을 2시간 단축할 수 있다. 임신 12~36주 여성 노동자는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통해 노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는 줄어든 노동시간에 비례해 임금이 줄어든다. 대신 임신 중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선택한 근로자는 주 노동시간에 따라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주에게도 간접노무비와 대체인력 인건비 등 월 최대 80만 원이 지원된다.

5월에는 유난히 가족과 관련한 기념일이 많다. 어린이날(5일), 어버이날(8일), 입양의 날(11일), 가정의 날(15일), 부부의 날(21일) 등 가족 행사가 줄줄이 이어진다. 하지만 5월 25일이 ‘세계 실종의 날’이라는 사실을 아는 국민은 많지 않다. 행복하고 즐거워야 할 5월에 아이를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경찰은 이런 상황을 대비하고자 ‘아동사전등록제도’를 시행한다. 아동 실종을 예방하고 아동을 잃어버렸을 경우 신속하게 발견하는 것이 목적이다. 아동사전등록제도는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의 사전 동의하에 경찰 실종신고시스템에 아동의 신체적 특징, 얼굴, 지문, 보호자에 대한 정보를 등록한다. 방법은 간단하다. 부모는 아동의 손을 잡고 가까운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지구대, 파출소를 방문하면 된다. 서류 작성부터 등록까지 10분 이내에 이뤄진다. **6**

가족 지원 프로그램 제공처

건강가정지원센터	www.familynet.or.kr 1577-9337
고용복지플러스센터	workplus.go.kr
여성새로일하기센터	saeil.mogef.go.kr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각 주민센터
아동사전등록제	각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파출소, 지구대

6월 유럽과 북미서 K-컬처 페스티벌 시작

사랑해요, 케이콘(KCON) 커져라, 코리아 프리미엄



케이콘 2016 아부다비의 콘서트 현장에 많은 관람객들이 몰려 중동 내 한류의 인기를 짐작케 했다.

김가영 | 위클리 공감 기자 / 사진·CJ E&M

● 지난 3월 25일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최대 규모 야외 공연장인 두 아레나(du Arena)에서 ‘케이콘 2016 아부다비’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아랍에미리트뿐 아니라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등 주변 중동 국가에서 총 8000명의 관람객이 찾아 한류 열기를 가늠케 했다.

케이콘(KCON)은 2012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처음 선보인 것으로 K-팝, K-뷰티, K-푸드 등 한류의 모든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세계 최대 한류 컨벤션이다. 경쟁력 있는 문화 한류 프로그램을 매개로 한국 기업과 제품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등 한국에 대한 종합적 체험을 제공한다. CJ E&M이 주도하고 문화체육관광부 한류기획단이 융합한류사업의 하나로 적극 지원해 세계 각지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케이콘 2016 아부다비’는 한국 문화에 중동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기획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K-푸드존에는 할랄 인증을 받은 비빔밥과 불고기 등 우리나라 먹거리를 선보여 긴 줄이 늘어서는 진풍경을 연출했다. 컨벤션장에는 여성들만 입장할 수 있는 ‘레이디스(Ladies)관’을 별도로 운영해 중동 여성들도 자유롭게 K-뷰티, K-댄스 등 한국 문화의 매력에 빠질 수 있었다.

중동에서 처음으로 열린 케이콘 행사는 이란의 경제 제재 해제와 할랄 시장의 급성장 등으로 전 세계가 신시장으로 주목하는 중동 지역에서 ‘코리아 프리미엄’ 창출에 기여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행사의 제작 지원에 참여한 한국수력원자력 조석 사장은 “중동 지역은 원전 수출의 주 무대인데, 케이콘을 통해 원전 수출 관련 사업을 확대하는 데 유리한 입지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세계 2위의 콘텐츠 시장으로 불리는 일본에서도 케이콘의 인기는 상상 이상이였다. 4월 9일부터 이틀간 열린 ‘케이콘 2016 재팬’ 첫날에만 1만5000명 이상의 한류 팬이 몰려들어 한국 문화와 제품을 체험했다. 특히 케이콘의 하이라이트인 K-팝 콘서트 ‘엠카운트다운’은 이틀간 2만 석의 콘서트 티켓이 동났으며, 일본 TV에 방영될 만큼 현지인의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다.

뜨거운 열기 속에 막을 내린 ‘케이콘 2016 재팬’은 한류의 발원지인 일본에서 다소 주춤했던 한류의 불씨를 되살렸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팬들과의 소통과 체험을 강조하는 새로운 방식의 컨벤션형 페스티벌이 긍정적이었다는 평이다. 이번 케이콘은 한국의 라이프스타일 제품을 체험할 수 있는 국내 기업들의 부스와, 콘서트에 참가한 한류 스타들과 직접 만나는 미트 앤 그리트(Meet and Greet),



1 케이콘 2016 재팬을 찾은 일본인 관람객들이 포즈를 취해보고 있다. 2 케이콘은 K-뷰티, K-푸드 등 한류 문화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각종 부스를 마련하고 있다. 3 케이콘 2016 아부다비에는 아랍에미리트뿐 아니라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등 주변 중동 국가에서 온 관람객들까지 총 8000명이 참여했다.

한국어를 배우거나 K-뷰티 스타일링을 배우는 클래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콘서트와 결합한 페스티벌로 현지 팬들의 신선한 관심을 이끌어냈다.

‘케이콘 2016 재팬’에는 총 100여 개 대·중소기업이 참여해 일본 시장을 타깃으로 한 제품을 선보였다. 이 가운데 사전 신청에서 선발된 중소기업들이 케이콘 행사 하루 전날 일본 현지 오픈마켓 강자인 라쿠텐, 도큐멘즈, 월트디즈니재팬 등 127개사의 일본 바이어들과 총 330회가 넘는 상담을 진행하는 기회를 가졌다.

한 중소기업 참가자는 “코리아 프리미엄이라는 말처럼 한류에 대한 높은 관심이 한국 제품에 대한 호의로 이어지면서 현지 판촉과 홍보가 매우 수월했다”며 “자력으로 글로벌 진출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접촉이 쉽지 않은 현지 바이어들을 만나고 한류와 연계해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밝혔다.

파리·뉴욕·LA에서 케이콘 개최

문화 전파를 넘어 경제·산업 성장엔진으로

올해 케이콘은 한·프랑스 수교 130주년을 맞아 유럽으로 영향력 확대에 나선다. 6월 2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케이콘 2016 프랑

스’는 유럽에서 열리는 첫 케이콘인 만큼 의미가 남다르다. K-팝 스타들이 대거 참가하는 화려한 콘서트와 함께 중소기업들을 포함한 국내 기업 제품과 한국 음식, 패션 등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컨벤션이 마련된다. 이를 통해 유럽에 한국 문화를 알리는 견인차 구실을 톡톡히 할 전망이다. 케이콘의 하이라이트인 콘서트에는 인기 아이돌 ‘방탄소년단’과 ‘블락비’, ‘샤이니’ 등이 대거 출연한다.

6월 말과 7월 말에는 세계 최대 문화콘텐츠 시장으로 손꼽히는 미국에서 ‘케이콘 2016 유에스에이(USA)’를 개최한다. 먼저 6월 24일과 25일 뉴욕에서 열린 뒤, 서부 로스앤젤레스로 옮겨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사흘간 진행된다. 지난해 미국 공연에서는 총 7만 5000명을 집결시킨 바 있다. 올해는 규모가 확대된 만큼 더욱 많은 이들이 방문할 것으로 기대된다.

CJ E&M 신형관 엠넷콘텐츠부문장은 “K-컬처를 전 세계로 확산한다는 사명감으로 유럽, 중동 등 한류의 신시장 개척은 물론 세계 문화콘텐츠 시장 1, 2위인 미국과 일본에서도 꾸준히 케이콘을 열고 있다”며 “문화산업을 통해 제조, 의료, 교육 등 다른 산업이 함께 성장하고 문화산업이 경제 재도약을 이끌 성장 엔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6

경복궁 고종 서재 '집옥재' 일반 공개

궁궐 속 작은도서관에서 역사를 읽네

북카페로 탈바꿈한 팔우정에서 관광객이 자국어로 된 책을 읽고 있다.

박섯별 | 위클리 공감 기자 / 사진·박해운 기자

● 조선왕조의 법궁(法宮 : 임금의 사는 궁궐)이었던 경복궁. 아름다운 궁의 이곳저곳을 거닐다 마지막에 다다를 때쯤 고종 황제의 서재로 쓰였던 집옥재를 만났다. 55년간 개방되지 않았던 곳, 하지만 이제는 그곳 집옥재에서 일반인도 직접 책을 읽고 한국의 역사를 더욱 깊게 느낄 수 있게 됐다.

집옥재에 들어선 기자는 임진왜란의 현장을 생생하게 기록한 유성룡의 <징비록>과 정약용의 <목민심서>, <조선왕조실록> 등 흥미로운 책들을 몇 권 꺼내 들고 자리에 앉아 내용을 훑어보며 잠시 여유를 즐길 수 있었다. 또 자리를 옮겨 가배(커피)와 생강차 향기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북카페에서 경복궁을 바라보며 행복한 사색을 하는 작은 사치도 누렸다. 그곳에는 관광객도 일반인도 잠시 마음이 풀어진 듯 여유와 조선의 역사를 함께 즐기고 있었다.

경복궁 내 고종 황제의 서재인 집옥재(集玉齋 : 경복궁 건청궁 안에 있는 전각)가 작은도서관으로 탈바꿈해 일반에 개방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은 4월 27일 집옥재 앞마당에서 '궁궐 속 작은도서관 개관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관 행사에는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진 문화재청 차장, 신숙원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장, 표재순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장, 이배용 한국학중앙연구원

장 등 주요 인사와 경복궁 관람객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아울러 개관을 기념해 집옥재에서는 '문화가 있는 날, 궁을 읽다'라는 주제로 토크콘서트도 진행됐다. 먼저 이배용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이 집옥재의 역사를 소개하고, 역사 강사로 잘 알려진 설민석 씨가 특유의 입담으로 고종과 궁에 대한 이야기를 펼쳤다. 이어 김원중 단국대 교수가 <격몽요결>의 내용과 함께 조선시대 책 읽기에 대한 교훈 등을 들려주었다.

경복궁 찾는 내·외국인

역사 속 공간 직접 체험

작은도서관 집옥재는 조선시대 역사, 인물, 문화 관련 도서와 기존 집옥재가 소장하고 있던 왕실 자료의 영인본 등을 비치해 조선시대 특화 도서관으로 운영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경복궁을 찾는 내·외국인들이 집옥재를 통해 역사 속 공간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1891년 건립된 집옥재는 고종 황제의 서재와 외국 사신 접견소로 사용됐던 곳으로, 동쪽 협길당과 서쪽 팔우정이 복도로 연결돼 있다. 팔우정은 궁중 다과와 책을 파는 등 북카페로 꾸몄고 협길당은 열람실로 새롭게 단장했다.



1 2 집옥재에 진열돼 있는 조선 역사 기록물들을 이용객들이 살펴보고 있다. 3 정조 때 장원급제한 정약용의 친시(임금이 친히 주관하는 과거시험) 시권. 4 4월 27일 서울 경복궁 집옥재 앞마당에서 집옥재 작은도서관 개관 행사가 열렸다. 이날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종진 문화재청 차장, 신숙원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장, 표재순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장, 이배용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 등 주요 내빈들이 개관을 알리는 테이프 커팅 행사를 하고 있다.



집옥재 작은도서관

집옥재는 내·외부 시설은 그대로 보존하면서 목재 서가와 열람대, 전시대 등을 새로 설치했다. 집옥재엔 조선시대 관련 책 1000여 권과 왕실 자료 영인본 350여 권, 외국인을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번역된 한국 문학 도서 230여 권이 비치됐다. 또한 고종 황제의 초상화와 집옥재 도서목록, 정조 때 장원급제한 정약용의 친시(親試 : 임금이 친히 주관하는 과거시험) 시권 등 조선 역사를 알 수 있는 기록들도 진열돼 있어 조선 역사의 일부분을 직접 살펴볼 수 있다.

조선시대 배경 자료로는 <조선왕조실록>,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 <동의보감>, <조선의 음식을 만들다> 등이, 왕실 자료는 <고종문집>, <정조 어찰첩>, <조선 국왕과 선비>, <일성록> 등이 있다. 한국책 번역본에는 <한국의 전통연희>, <7년의 밤>이 중국어로,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과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영어로, <한국복식 문화사전>과 <식물들의 사생활> 등이 일본어로 번역돼 비치됐다.

집옥재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은 <대장금> 등의 책을 가리키며 그들의 언어로 반가움을 표현했다. 일부 이용객들은 자국어로 된 책을 발견하곤 자리에 가져와 조용히 읽기도 했다.

중국인 관광객 티엔홍링 씨는 “관광지에 이렇게 조용하고 운치 있는 도서관이 있어 좋다”며 “특히 역사적 공간을 직접 이용하고 즐

길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이라고 말했다.

대학생 김혜원(23) 씨는 “요즘은 도서관에 잘 가지 않았는데, 우리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도서관이 경복궁 안에 있어 좋다”며 “앞으로 역사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이런 도서관이 더 많이 생기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집옥재 작은도서관이 개관하면서 많은 이용객이 경복궁을 관람하고 독서와 휴식, 인문 강좌, 공연까지 체험하는 ‘독서·문화·관광’이 결합한 새로운 트렌드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작은도서관은 앞으로 북 콘서트, 강연 프로그램 등 궁과 어우러진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고종 때 집옥재에 있던 서책들을 소장하고 있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집옥재에서 유물 전시와 상설 왕실문화 강좌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집옥재 작은도서관은 3월부터 11월까지 경복궁 개관 시간대(오전 9시~오후 5시 30분)에 이용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박위진 문화기반정책관은 “집옥재 작은도서관이 국내외 관광객들이 꼭 한 번은 들러야 할 관광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문화재청과의 이번 협업을 계기로 문화재의 외양만 구경하는 관광을 넘어 역사 속 공간을 직접 체험하는 관광으로 발전시키고, 이를 확산해나갈 수 있도록 서원, 향교, 고택 등을 활용한 작은도서관 조성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G

예약 핑크 양심불량 생존 위협 “노쇼는 NO!”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 등이 함께 만든
노쇼 근절 포스터.

김가영 | 위클리 공감 기자

● 결혼기념일을 앞두고 유명 셰프가 운영하는 한 이탈리아 식당에 예약 신청을 해놓은 박모 씨. 그는 1인당 15만 원인 디너 코스 메뉴 2인분을 예약했다. 그런데 예약 당일 아내가 한식이 먹고 싶다고 하자 부랴부랴 다른 식당을 알아보고는 발길을 돌렸다. 예약한 식당에는 취소 전화조차 걸지 않았다. 귀찮기도 했고 굳이 전화로까지 못 간다는 말을 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 시간 해당 식당은 박 씨가 예약한 전망 좋은 좌석에 ‘예약석’ 팻말을 올려놓고 부부를 기다렸다. 하지만 30분, 한 시간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았다. 전화도 받지 않았다. 문제는 이런 빈 테이블이 비단 박 씨의 예약석만은 아니었다는 것. 이날도 식당은 넘쳐나는 ‘노쇼(No-Show : 예약 부도)’ 고객들 때문에 최소 100만 원가량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

자영업자 ‘노쇼’로 막대한 피해

공정위 등 노쇼 근절 캠페인 시작

“고객은 왕이다. ‘노쇼’ 고객은 왕이 아니라 폭군이다.”

요즘 서비스업계에서 우스갯소리처럼 들리는 말이다. 노쇼 고객

때문에 생기는 피해가 심각함을 드러내는 말이기도 하다.

예약해놓고 연락도 없이 나타나지 않는 걸 예약 부도, 이른바 노쇼라고 한다. 최근 이 노쇼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노쇼가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경제연구원 등에 따르면 노쇼 때문에 5대 주요 서비스 업종(음식점, 병원, 미용실, 공연장, 고속버스)이 지난 한 해 입은 매출 손실은 4조5000억 원, 고용 손실은 무려 10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체에 식재료나 미용용품 등을 공급하는 연관 제조업체의 손실까지 합치면 경제적 손해는 매년 8조2700억 원에 이른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예약 문화는 부끄러운 수준이다. 한 일간지가 5대 서비스 부문 100개 업체를 상대로 실시한 조사 결과 평균 예약 부도율은 15%. 이 가운데 식당의 예약 부도율은 20%로 평균보다 5%포인트 높았다. 이는 2001년 한국소비자원 조사 때(11.2%)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이처럼 노쇼 고객 때문에 생기는 자영업자의 피해 사례가 늘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팔을 걷어붙였다. 공정위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등과 함께 노쇼 근절을 위한 홍

보 동영상과 포스터를 제작해 배포를 시작했다. 특히 이번 홍보 동영상에는 백종원, 이연복 등 유명 셰프가 출연해 배포 전부터 화제를 모았다.

포스터는 “예약은 약속입니다”를 메인 카피로 약속 취소 시 해당 영업장에 취소 전화를 하는 것이 매너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또한 노쇼가 사업자뿐 아니라 선의의 소비자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음을 강조한다.

동영상과 포스터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 주요 포털에 게재된다. 또한 공정위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체, 학교 등에도 게시하고 교육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포스터는 음식점과 미용실, 병원 등에 부착해 국민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번 홍보 동영상과 포스터의 제작·배포를 통해 노쇼 근절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단체와 사업자단체, 공공기관 등과 협업체 ‘정부3.0’의 핵심 가치인 공유, 소통, 협력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매년 4억~6억 원의 예산을 들여 시민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소비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은 보이스피싱과 사기 범죄 대처법, 소비자 환불 규정 등 주로 소비자 권익을 지키는 데 필요한 상식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올해부터는 노쇼의 문제점과 이를 근절하기 위한 올바른 소비자 행태를 가르치는 과목을 추가할 계획이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블랙컨슈머는 중소기업자에게 피해를 주고 불필요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킨다”며 “노쇼 근절 캠페인에 본격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식당 업주·국립휴양림·대기업·스타 셰프도

“이젠 바꾸자” 한목소리

식당 업주들도 노쇼 근절에 나섰다. 한국외식업중앙회의 ‘노쇼는 노!’ 캠페인이 대표적이다. 전국 42만 개 식당이 회원으로 가입한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서울 시내 음식점을 시작으로 내년부터는 전국

음식점에 ‘노쇼는 노!’ 스티커와 냅킨을 배포하기로 했다.

제갈창균 한국외식업중앙회장은 “노쇼 문제는 단순히 식당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사회 전 분야에서 신뢰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올해 1월부터 상습적인 노쇼 고객에게 페널티를 부과하고 있다. 전국 29개 국립 자연휴양림의 객실과 캠핑장을 예약해놓고 연락 없이 예약을 두 번 깬 이용자에 대해 90일간 휴양림을 예약할 수 없게 한 것. 또 여러 캠핑장에 중복 예약하고 막바지에 한 곳만 선택하는 행태를 막기 위해 한 번에 예약 대기를 할 수 있는 캠핑장 개수도 종전 최대 9곳에서 3곳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지난해 국립휴양림 캠핑장에 예약 신청한 총 8만4881건 중 10.4%가 노쇼였다. 예약 시각을 30분에서 한 시간 앞두고 예약을 취소하는 사례도 7.2%나 됐다.

노쇼 근절에 나선 기업도 있다. 국내 대기업 중에선 처음으로 아시아나항공이 노쇼 근절 캠페인에 동참했다. 아시아나항공은 2015년 12월 사내 인터넷 게시판에 ‘예약 부도 ZERO, 예약은 나에게 대한 믿음과 신뢰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전 임직원에게 캠페인을 알렸다.

이어 올해 1월에는 포스코그룹이 ‘노쇼 없애기’ 캠페인을 시작했다. 노쇼 관행이 조직의 효율성과 구성원 간의 신뢰를 갉아먹는 주된 요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포스코그룹은 ‘포스코와 45개 계열사 전 임직원 3만5000명은 노쇼는 물론 예약 시각이 임박해서 예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캐치프레이즈를 사내 게시판에 올렸다. 매주 월~금요일 아침 사내 방송에서 노쇼 사례와 그 폐해를 다룬 영상도 방영하고 사내 교육도 실시하기로 했다.

유명 셰프들도 공개적으로 노쇼를 비판하고 나섰다. 공중파 등 각종 TV 프로그램에 출연 중인 최현석 셰프는 자신의 누리소통망(SNS)에 “노쇼 손님들은 부끄러운 줄 알라!”라는 글을 올리며 일침을 가했다. 최 씨는 동료 셰프들과 자비를 들여 노쇼 근절 캠페인 영상을 만들기도 했다. ‘노쇼 노셰프’라는 영상에서 이들은 “노쇼를 하면 셰프도 없습니다”, “노쇼는 예의 없는 행동입니다”라고 외친다. **G**

반려동물 대신 반려식물 내겐 너무 예쁜 그 모습



두 아이의 엄마인 차하림 씨는 다육식물, 쌈채소, 공기정화식물 등 집 안에서 18종의 식물을 키운다. 그는 “반려식물을 키우는 기분은 자식을 돌보는 것과 비슷하다”고 이야기한다. 차 씨의 두 자녀가 식물들을 보듬고 있다.

조영실 | 위클리 공감 기자

● 주부 차하림 씨는 아이 둘을 어린이집에 보낸 뒤 또 다른 ‘육아’를 시작한다. 대상은 집 안에서 키우는 식물들. 다육식물 5종, 허브 4종, 쌈채소 5종, 나무 2종을 포함해 총 18종의 식물이 매일 그의 손길을 기다린다. 차 씨는 베란다에 심어놓은 청경채 화분에 오늘 아침 노란 꽃이 핀 걸 보고 기분이 좋아졌다며 자랑했다.

“식물에서 싹이 트고 잎이 자라고 꽃이 피는 게 무척 기다려지고 재미있어요. 특히 쌈채소는 하루가 다르게 자라서 볼 때마다 놀라워요. 처음엔 모종을 사다 심었는데 식물 키우는 재미에 빠져 얼마 전

부턴 씨앗을 사와 직접 심어 가꾸고 있어요. 첫 싹이 나오기까지 열흘이 걸렸는데 날마다 살펴보아요. 스투키나 올마 같은 공기 정화식물 역시 눈에 띄게 확확 자라진 않는데 천천히 자라는 식물을 바라보는 일도 그 나름의 매력이 있죠.”

차 씨는 식물에 대해 이야기하며 연신 ‘몇 마리, 몇 마리’ 하는 표현을 썼다. 마치 반려동물을 대하듯. 실제로 차 씨는 ‘반려식물’이라는 말이 마음에 와 닿는다고 했다. 실수로 식물을 죽인 뒤엔 그만뒀지만 예전엔 반려식물에 이름까지 붙여줬다.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그에게 반려식물은 큰 위안이 되고 있다.

“아이를 가진 뒤엔 함께 살던 반려동물은 친정집에 보내고 반려식물을 키우는데 느낌은 똑같아요. 둘 다 내 자식을 키우는 듯해요. 처음엔 무조건 예쁜 식물을 갖다 놓기 바빴죠. 그런데 ‘울울이(차 씨가 올마에 붙인 이름)’가 죽은 뒤 올마는 햇빛과 물을 좋아하고 바람도 자주 쐬야 하는데 제가 너무 집 안에만 들여놔 잘못됐단 걸 알았어요. 이후 식물마다 좋아하는 게 다 다르다는 걸 알고 하나하나에 관심을 갖다 보니 애정이 생기더라고요. 아이들과 같이 화분에 물 주고 다 자란 채소를 뜯어 요리해먹는 즐거움도 아주 큼니다.”

바쁜 현대인, 시간 덜 들이고도 큰 위로 얻어

관리 쉽고 공기 정화 효과 큰 다육식물 인기

차 씨처럼 식물을 단순한 인테리어 장식품을 넘어 집 안 공기를 정화하거나 요리 재료로 활용하는 등 반려식물로 인식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반려식물이라는 말은 식물이 반려동물처럼 외로움을 달래 주거나 도시 생활에 지친 현대인을 위로해주는 ‘힐링’ 효과를 가져다 준다는 뜻에서 나왔다. 이에 집 안에서 식물을 키우는 ‘인도어 가드닝(Indoor Gardening)’ 인구도 증가하는 추세다.

온라인 쇼핑 사이트 11번가는 최근 3개월(1월 2일~4월 1일) 동안 원예상품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 상승했다고 밝혔다. 화병과 분재 등 원예도구·재료 매출도 13% 증가했다. 원예식물 중 건조한 환경에서도 비교적 잘 자라 관리가 손쉬운 선인장 등 다육식물이 인기다. 공기를 정화하고 천연 가습기 역할을 해주는 수경 재

1 유리그릇 안에 작은 식물과 피규어를 넣어 가꾸는 테라리움은 관리가 쉽고 기분 전환에 도움이 된다. **2** 도심 한복판에 꾸며진 녹색식물 전시판매장 '슬로우파마씨'.



슬로우파마씨

배 식물과 산세베리아 매출도 각각 22%, 16% 늘어났다. 부엌이나 식탁에 놓고 키우며 식재료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향신 허브류인 애플민트와 레몬바질의 매출은 각각 12%, 18% 증가했다. 11번가는 “최근 반려식물 구입이 증가한 것은 봄을 맞은 시기적 특성도 있지만 바쁘고 지친 현대인들이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도 반려식물을 키우며 위로와 에너지를 얻고 있는 문화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려식물의 힐링 효과가 입증되면서 저소득 홀몸어르신을 대상으로 반려식물 전달사업을 벌이는 지방자치단체도 늘고 있다. 홀로 사는 노인이 화초를 가꾸면서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고 물주기, 분갈이 등의 과정을 통해 신체 활동까지 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한때 홀몸어르신에게 반려동물을 분양하는 사업이 계획되기도 했으나 비용 문제와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무산됐다. 이에 비해 반려식물 보급사업은 적은 비용으로 고독사 등 노인 문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아이디어로 각광받고 있다.

반려식물 전시회도 열렸다. 지난 2월 서울 대학로에서 열린 전시회에선 가방에 넣을 수도, 품에 안을 수도 있는 ‘이끼볼 컬렉션’이 선보였다. 흙을 동그랗게 뭉친 뒤 그 위를 조경용 이끼인 수대로 감싸 이물질이 묻어나지 않게 했다. 전시를 기획한 지컬렉션은 “바쁜 현대인이 식물은 좋아하지만 관리가 어려워 기르기를 꺼리는 점과 환경적인 문제를 고려해 제작했다”고 밝혔다. 지컬렉션은 누구나 30분만 배우면 완성할 수 있는 이끼볼 만들기 체험 교육을 준비 중이다. 지컬렉션은 “체험 참가자들이 살아 있는 식물과 흙을 직접 만지면서 자기만의 작품을 만드는 성취감과 치유 효과를 느끼기 바란다”고 전했다.

‘녹색의 힘’ 통해 일상 벗어나 느린 삶 만끽

반려동물 들이듯 정성 쏟고 주인 성격도 고려해야

이구름 씨는 현대인들에게 ‘초록의 힘’을 알려주고자 1년 전 ‘슬로우파마씨(Slow Pharmacy)’라는 복합 공간을 차렸다. 슬로우파마씨는 녹색식물이 가장 잘 자라는 환경을 실험하고 대중에게 전시·판매하

는 곳이다. 이 씨는 이 공간을 통해 많은 사람들과 ‘느린 삶’을 공유하고 싶다고 이야기한다. 직장인이 많은 서울 강남 한복판에 공간을 마련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저도 한때는 광고디자인 회사에서 매일같이 철야작업을 했어요. 너무 지쳐 일을 그만두고 쉬던 시기에 식물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전 같으면 스마트폰을 들여다볼 시간에 녹색식물을 보고 있으니 마음이 안정되었죠. 끝없이 주입되는 정보를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에서 제 스스로 무언가를 떠올릴 수도 있고요. 도심을 초록색으로 물들여 바쁜 현대인들에게 초록이 갖는 힘을 알려주고 슬로 라이프를 공유하고 싶어요.”

이 씨는 사람마다 자신에게 맞는 식물이 따로 있고, 식물을 받아들이는 데도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식물을 추천해달라는 사람들에게 이 씨가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것은 “식물을 죽여본 적이 있느냐”라는 것. 이 말은 단순한 질문이 아닌, 식물을 리빙 아이템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약간의 ‘경고’성 발언이다.

“식물을 ‘입양’하는 것 역시 반려동물을 들일 때와 같은 마음의 준비가 필요해요. 모든 식물은 일주일에 한 번만 물을 주면 되지 않느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식물마다 자라는 환경은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다음에 집 안 환경과 키우는 사람의 성향을 고려해 식물을 추천해드려요. 식물이 빨리 혹은 천천히 성장하는 걸 보고 싶어 하는지, 심리적 안정을 얻고 싶은 건지, 가꾸는 즐거움을 느끼고 싶은 건지 등 성향에 따라 맞는 식물이 다르거든요. 섬세한 사람에게 막무가내로 대해선 안 되듯 식물도 각기 성격이 다르다는 걸 알고 대하면 훨씬 더 오래 가꿀 수 있어요.”

이 씨는 “책상에 이런 것 하나쯤은 있어야 버틸 수 있다며 찾아오는 직장인들이 많다”면서 실내조명만으로도 잘 자라는 테이블야자, 흙과 물 대신 미세먼지를 먹고 자라는 에어플랜트(공중식물) 킬란드시아 등을 추천했다. 덧붙여 “유리그릇 안에 작은 식물과 인형 피규어를 함께 넣어 키우는 테라리움은 숲 속 안에 작은 세상이 펼쳐지는 기분을 느낄 수 있어 심신이 지치고 우울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6**

부담 없이 다녀오는 당일 여행

홀썩 가벼운 발걸음 딱 채우는 추억의 시간

동아일보



여행주간에 정조대왕의 행렬 등을 즐길 수 있는 수원 화성.

김민주 | 위클리 공감 기자

● 따스한 햇살과 초록이 눈부신 5월이다. 5월은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등이 들어 있는 ‘가정의 달’로 가족과 함께 어디로든 떠나도 좋은 시기다. 정부는 여름에 집중된 국내 여행 수요를 분산하고, 봄가를 국내 여행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2014년부터 ‘봄’과 ‘가을’에 2주 동안 여행주간을 시행하고 있다. ‘2016 봄 여행주간’은 5월 1일부터 14일까지이며, 전국에서 지역별로 17개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17개 프로그램 중 당일치기로 가볍게 떠나볼 수 있는 전국의 주요 여행지들을 소개한다.

광주 - 친한한 역사 속으로의 시간여행

광주에서는 무등산의 자연경관과 광주호 호수생태공원, 선비문화를 엿볼 수 있는 누정·가사문화 등을 융합한 체험형 관광을 경험할 수 있다. 또한 무등산의 무돌길 15구간을 거닐며 무돌길 인접 도시인 광주, 담양, 화순의 대표 관광지를 탐방하고, 힐링 콘서트를 통해 모든 연령이 함께 즐기며 남도의 향취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도 구성했다. 또한 매년 계절별로 한 차례씩 개방하는 무등산 정

상 개방일에 맞춰 숨겨진 문화유산의 역사와 아름다운 비경을 봄꽃과 함께 만끽할 수 있는 ‘무등산 정상 등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인천 - 숨겨진 보물을 찾아라

인천에서는 섬에서 특별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숨겨진 보물을 찾아라! 인천 보물섬 여행’이 14일까지 진행된다. 최초의 등대섬인 팔미도에서 미니콘서트와 등대 체험 여행을 즐길 수 있으며, 한강에서 팔미도까지 크루즈 여행을 하는 동안 미니콘서트가 열리기도 한다. 인천지역 농어촌 체험마을에서 농부 체험과 어부 체험이 가능하며, 경인 아라뱃길과 1883년 개항 이후 건립된 건축문화재가 소재한 개항장 일대를 방문해 한국 최초이자 인천 최고의 문물을 찾는 미션 탐방단도 운영한다. 또한 인천의 주요 섬에서 ‘보물찾기’ 이벤트를 개최해 각 섬마다 미션 수행에 성공한 선착순 100명에게 선물도 지급한다.

경기 - 수원 화성 테마파크에 가자

수원 화성은 정조가 아버지인 사도세자의 묘를 수원으로 옮기면서

강원도



1



2

대구

❶ 충북에서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네 가지 코스의 '딱 내 스타일 버스여행'이 준비돼 있다. ❷ 대구에서는 드라마에서 예쁘게 조명됐던 유명지역과 예쁜 골목길 등을 돌아볼 수 있는 스탬프 투어가 기다리고 있다.

축조한 성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도 등재된 곳이다. 14일까지 '수원 화성 테마파크에 가자!' 프로그램에 참여해 수원 화성과 관내 주요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다. '정조의 산책'이라는 체험존에서는 행궁의 야경을 감상하며 정조의 이야기를 배우들과 참가자들이 소통하면서 즐길 수 있다. '정조가 살아 있다'라는 이벤트존에서는 정조와 혜경궁 홍씨 거리극, 인형극, 국악 공연, 정조대왕의 행사 등이 펼쳐지며, 광고 호수공원 캠핑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가족 인형극도 마련된다.

강원도 - 낭만적인 기차여행

강원도에서는 '기차 타고 떠나는 드림스토리 낭만여행'이 준비돼 있다. '춘천권' 여행으로는 아이와 함께 달리는 열차에서 건강과 안전 교실, 음악교실, 인문학교실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꿈드림 낭만여행'이 5월 7일에 이어 14일 진행된다. '속초권' 여행으로는 '추억드림 낭만여행'이 5월 11일과 14일 2회 운영된다. ITX-청춘 열차 안에서는 7080 소품을 활용한 추억 이벤트와 추억 골든벨이 진행되며, 1박 2일 설악여행 투어버스에서는 학창 시절 수학여행의 추억을 돌아볼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충북 - 가족과 함께 버스투어

충북에서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네 가지 코스의 '딱 내 스타일 버스여행'이 기다리고 있다. 아이를 동반한 가족을 위해 공군사관학교, 좌구산천문대, 운보의 집 등 아이들이 동경할 만한 직업과 장소를 연계한 '커서 뭐 할래?' 코스(14일까지 매일 운행, 휴일은 코스 변경됨)가 운영된다. 실버 세대를 위해서는 국악과 와인 페스티벌(5월 14, 15일), 한방 체험 투어 등이 구성돼 있다. 이 밖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생가와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 등을 둘러보며 한국 속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세계로 세계로'와 정지용 문학관과 속리산 범주사 등 옛 추억을 되새기는 장소를 돌아보는 '향수' 코스가 있다.

대구 - 예쁘게 즐기기

대구광역시와 봄 여행주간 테마는 '대구는 예쁘다'이다. 대구는 드라마 속에서 예쁘게 조명됐던 '청라언덕' 등 대구 유명지역, 팔공산 하늘정원 등 예쁜 골목길, 앞산전망대 등 야경 명소를 돌아볼 수 있는 스탬프 투어를 14일까지 운영한다. 스탬프 투어 참가자 5000명에게는 기념품도 제공한다. 여행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먹는 즐거움이다. 대구는 대구 10미, 서문시장 만 원의 행복, 음식 테마 거리의 음식점 등을 이용한 뒤, 대구 관광 공식 누리소통망(SNS)인 '제멋대로 대구 로드'에 기념사진을 찍어 올리는 여행객에게 음료 쿠폰도 제공한다. 이 밖에 한방 화장품 만들기, 커플 반지와 팔찌 만들기, 에코백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부산 - 돌아와요 부산항 아날로그 여행

부산에서는 역사 교육과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여행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일제강점기와 피란 시절 등 부산의 근현대사를 관광에 접목해 과거의 추억을 되살려보는 '돌아와요 부산항, 아날로그 여행'을 경험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5월 14일까지 부산 원도심 일원(중구, 동구, 영도구, 서구)에서 진행되며 스토리텔러의 설명과 함께 피란 수도 유적지를 탐방할 수 있는 피란 수도 역사 투어, 피란 음식 먹거리 장터와 맛 따라 투어 등을 즐길 수 있다.

이 밖에 대전에서는 문화예술 체험, 음식 체험, 원도심 야간 투어, 드라마 촬영지 견학을 할 수 있으며, 세종시는 농촌 체험 코스 및 주요 관광지 투어가 포함된 '행복세종으로 떠나는 현장 체험교육 여행'을 운영한다. 충남은 5월 31일까지 농촌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제주도는 '나를 찾아 떠나는 서귀포 힐링여행'을, 경남에서는 '산청 한방테마파크 향노화 체험'을 운영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여행주간 공식 누리집(spring.visitkorea.or.kr) 또는 여행주간 공식 누리소통망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6



자연 모습 그대로를 간직하고 있는 문경새재 과거길.

이대현 |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겸임교수

● 길은 역사다. 길은 문화다. 그리고 길은 인생이다. 길은 인간이 만든다. 누군가가 지나가야만 길이 생긴다. 길에는 그곳을 지나간 수많은 사람들의 발자취와 그 시간들이 스며 있다. 사람의 발길이 끊기면 길도 곧 사라진다. 역사도 시간도 멈춰버린다. 사람들의 발길이 끝없이 이어지지 않았다면 저 유명한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도 지금 한낱 흔적으로밖에 남아 있지 않을 것이다.

오래전 문경새재를 걸어서 넘은 적이 있다. 굽이굽이, 오르락내리락 제1관문을 지나 제2관문을 통과해 제3관문까지 가파른 산길을 걸으면서 먼 옛날 이 길을 오갔을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했다. 유생들은 과거를 보러, 장사꾼들은 봇짐을 지고, 임진왜란 때 의병들은 창을 들고 비장한 각오로, 숨이 차면 길 옆 바위에 걸터앉아 쉬고, 더우면 계곡의 시원한 물을 얼굴에 끼얹으며 이 고개를 넘었을 것이다.

과거에 급제한 선비는 돌아올 때는 말을 타고 기쁨에 넘쳐 이 길을 지났을 것이고, 낙방한 유생은 힘없이 터덜터덜 이 길을 걸어서 고향으로 돌아왔을 것이다. 그들이 흘린 땀과 눈물, 환희와 절망이 이 길을 만들고 지켰을 것이다. 그래서 길은 저마다 다른 모습을 지

니고 있다. 같은 길도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맑은 날과 비오는 날이 다르고, 여름과 겨울이 다르고, 꽃이 필 때와 낙엽이 질 때가 다르다. 그 길을 지나간 인생들이 그럴 것이다.

길을 걷는다는 것

자기 내면의 성찰과 사색의 시간

인간이 걷는 길은 겸손하고 부드럽다. 자연에 순응한다. 강을 건너지도, 계곡을 뛰어넘지도 않는다. 강과 시내를 따라, 들판의 가장자리로, 산등성과 계곡을 따라 꾸불꾸불 돌아가고 비껴간다. 곡선이다. 길은 길로 이어진다. 아무리 작은 길도 가다 보면 큰길과 맞닿고, 큰 길도 어디쯤에서는 작은 길로 바뀐다. 막다른 길은 더 이상 길이 아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 역시 이런 '길 위의 날들'인지도 모른다.

문명 그리고 빠르고 편리함만을 추구하는 인간이 그 곡선을 직선으로, 좁은 것을 넓게 만들었다. 이때 길은 오로지 이동통로일 뿐이다. 가능한 한 길이를 줄여야 한다. 문경새재에도 길이 4개다. 옛길 옆으로 자동차 길이 생기더니, 그 옆에 4차선 길이 다시 생겼고, 그 옆으로 또다시 고속도로가 뚫렸다.



휴일을 맞아 등산에 나선 시민과 관광객들이 봄의 정취를 만끽하며 해파랑길을 걷고 있다.

1970년대 초, 버스를 타고 먼지가 날리는 포장길로 산허리를 돌아올라 험준한 고개를 넘을 때만 해도 ‘새재’의 역사가 숨을 쉬고 있었다. 그러나 산 중간에 터널을 뚫어 4차선 도로가 만들어지면서부터는 ‘새재’는 이름만으로 존재할 뿐 표정도 느낌도 사라졌다. 길도 인생도 표정과 색깔이 없으면 생명도 없다.

인간의 발길로 다져진 길은 느리고 겸손하다. 자동차 바퀴만 지나가는 길은 빠르고 맹렬하다. 고속도로가 인터넷이라면, 옛길은 종이책과 같다. 인터넷이 그렇듯 고속도로는 우리에게 효율성과 시간을 주고, 종이책이 그렇듯 걷는 길은 우리에게 생각과 자유를 준다. 느림이, 멀리 돌아가는 여유가 가져다주는 자기 내면의 성찰과 사색, 자연과의 대화. 아무래도 좋다. 셋길도, 어슬렁거려도, 가다가 멈춰서도, 가던 길 되돌아와도, 길을 잃고 헤매도, 지나가는 사람과 얘기를 하며 걸어도.

걷기야말로 인간이 직립보행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가장 원초적인 동력이다. 어떤 도구나 문명 없이 오직 두 다리의 힘과 발바닥만으로 움직여야 한다. 그것이 어딘가를 가야만 하는 목적이라면 너무나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아주 가까운 거리가 아니라면, 어디를 가기 위해 굶은 길을 걷는 일은 우둔한 선택인지도 모른다.

한국계 일본인 문화인류학자 쓰지 신이치는 <슬로 라이프>에서 “걷기는 그 자체에 만족하고 있는 상태이며, 느리게 사는 삶(슬로 라이프)의 첫걸음”이라고 했다. 그는 어슬렁어슬렁 산책을 즐길 때처럼, 목적과 수단의 세계에서 해방되어 무엇이든 존재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과연 우리가 얼마나 지니고 있는 것인가 하고 묻고 있다. 그의 말처럼 우리는 경제라는 척도만으로 이 귀중한 자유를 낭비하는 한마디로 정리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오로지 건강을 위해 부지런히, 마치 숙제하듯이 걷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 역시 목표가 있기에 걷기가 자유롭지 못하다. 걷다가 지

치면 쉬어가고, 길 옆 이름 모를 들꽃에 잠시 한눈을 팔기도 하는, 말 그대로 ‘산책’이어야 육체와 함께 정신도 건강해진다. 걷기가 강박이 되는 순간, 걷기는 즐거움과 여유가 아닌 미련한 노동이 된다.

둘레길·해파랑길 걷기

자연과 문화, 역사의 흔적을 느끼는 행복

우리나라 방방곡곡에 사람이 지나다닌 수많은 길들이 있다. 그것들이 ‘올레길’, ‘둘레길’로 이어져 사람들의 발길로 생명을 되찾고 있다. 최근엔 동해안에도 ‘해파랑길’이란 이름의 걷는 길이 열렸다. 저 남쪽 부산에서 위로는 강원도 고성까지, 때론 동해의 일출과 파도와 함께, 때론 바닷바람 부는 모래밭과 솔밭을 지나, 때론 그 옛날 생선장수의 생선 비린내를 맡으며, 때론 역사의 흔적을 확인하며 몇 날 며칠이고 가다 쉬다 하면서 걷는 2000리 가까운 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설렌다.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이 길 위에도 수많은 삶이 쌓이고, 추억이 쌓이고, 역사와 시간이 쌓일 것이다.

꼭 천 리를 다 걸을 필요도 없다. 꼭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목적지를 정할 이유도, 한 시간에 가야 할 거리를 정할 필요도 없다. 어디에서 걷든, 얼마를 걷든 그곳, 그만큼이나 나의 길이요 인생이다. 욕심도 버리고, 시간도 버려야만 살아 있는 길을 만날 수 있다.

세상에는 빠른 길도, 느린 길도 있다. 어느 하나만을 고집할 이유는 없다. 인생에는 둘 다 필요하니까. 다만 늘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 남들보다 한 걸음이라도 앞서려고 굳은 길, 넓은 길, 빠른 길만 선택하지는 말자. 발길 닿는 대로 걷는 느리고 좁고 굽은 그 길 위에도 인생이 있고, 문화가 있고, 역사가 있다. 사람들은 말한다. “길이 있어 그 길을 걷는다”라고. 이를 인생에 대입하면 인생이 있어 살아간다는 얘기다. 아니다. 인생도, 길도 우리가 걸어가기 때문에 있는 것이다. 





치어리더는 야구장의 꽃이다. 선수는 그라운드에서 최선을 다하고 치어리더는 응원석에서 땀을 흘린다.

윤세호 | OSEN 기자

● 최근 한국 프로야구(KBO리그)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은 인프라 발전이다. 2014년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가 건립된 것을 시작으로 올해에는 대구 삼성 라이온즈파크, 고척 스카이돔이 새롭게 문을 열었다.

기존 야구장의 리모델링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지난해 신생 팀 kt는 기존 수원구장을 대폭 업그레이드해 수원 kt 위즈파크에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있다. 올해 인천 SK 행복드림구장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전광판 ‘빅보드’가 설치됐다. 부산 사직구장도 국내 최초로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을 설치해 선수들과 관중이 받는 눈의 피로를 최소화하고 클리닝 타임 때는 ‘라이팅 쇼’를 펼친다. 이렇게 급속도로 최신식 시설이 들어서면서 관중은 좀 더 편하고 즐겁게 야구를 관람하고 있다.

하지만 수 년째 제자리걸음인 부분도 있다. 바로 프로야구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치어리더들을 위한 환경이다. 빼어난 외모와 화려한 댄스로 수만 명 관중의 호응을 얻고 응원을 주도하지만, 이들이 처한 환경은 프로 무대와는 거리가 멀다. 야구장 안에 이들을 위한 공간은 사실상 전무하다. 경기에 앞서 휴식을 취하거나 대기할 장소

도 없다. 무더운 여름을 이겨낼 샤워시설 또한 찾아볼 수 없다.

수만 명 관중 앞에서 응원 주도

무더운 여름이 가장 곤혹스러워

김민지 치어리더(26)는 올해까지 5년째 LG 트윈스 응원을 맡고 있다. 이제는 LG 구단의 간판 치어리더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팬이 많다. “나는 스타 치어리더와는 거리가 멀다”면서도 치어리더라는 데는 자부심을 숨기지 않는다.

그는 “예전부터 치어리더를 하는 게 꿈이었다. 많은 분들 앞에서 응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치어리더에게는 큰 자랑거리다”라며 “그래서 지금처럼 응원단상에만 오를 수 있다면 그걸로 만족한다. 어린 시절 야구팬인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고, 잠실구장서 응원단상을 바라보며 꿈을 키웠다. 처음에는 아버지께서 치어리더를 하는 것에 반대하셨지만, LG 구단 치어리더를 한다고 하자 승낙해주셨다.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빛나고 소중한 순간일지도 모른다. 팬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남겨드리기 위해 매일 더 열심히 하려고 한다”며 웃었다.

그러면서도 좀처럼 변하지 않은 환경에 아쉬움을 전했다. “잠실구장이 오래되다 보니 치어리더를 위한 공간이 없다. 현재 치어리

더 대기실은 이벤트 물품 창고를 겸해서 쓰고 있다. 이런저런 물건들이 많아서 치어리더들이 다 들어가 기도 힘들 정도로 좁다”며 “샤워시설도 없다. 지금은 괜찮지만 여름이 문제다. 무더운 여름에도 샤워를 할 수 없다. 지난해까지는 장애인 화장실을 쓰긴 했는데 올해는 화장실을 리모델링해서 샤워할 공간이 아예 없어졌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원정경기다. 원정경기 전후 치어리더가 대기할 곳은 화장실이 유일하다. 김민지는 “프로야구 어느 구장에도 원정응원단을 위한 자리가 없다. 그래서 원정경기를 갔을 때 치어리더들은 화장실에서 경기가 시작되는 것을 기다리곤 한다. 당연히 옷을 갈아입을 공간도 없다. 차 안에서 메이크업까지 모든 것을 해결한다. 올해 새로 고척돔이 만들어졌지만 고척돔에도 치어리더를 위한 시설이나 공간은 없다”고 말했다.

간혹 치어리더를 바라보는 팬들의 좋지 않은 시선과 짓궂은 반응에도 상처를 받는다고 한다. 현장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경우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치어리더가 관심을 많이 받는 만큼 인터넷 기사 댓글에 민감해질 때도 있다. “많은 분들 앞에서서는 직업인 만큼 자기관리는 필수다. 어느 정도의 비난은 감수해야 한다는 생각도 하고 있다. 그래도 사람이다 보니 올라오는 사진 기사와 댓글을 보게 된다. 오랫동안 이 일을 하고 있지만 악성 댓글을 보면 기분이 안 좋다. 조금 더 너그러운 시선으로 우리를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쉬움을 전하면서도 올 시즌 팬들의 반응을 묻자 곧바로 미소를 보였다. “올해 분위기가 정말 좋다. 지난해에는 자리에 그냥 앉아



LG 트윈스 치어리더 김민지.



두산 베어스 치어리더 김다정.

계시는 분들이 많았다. 올해는 훨씬 의욕적이다. 큰 동작을 해도 많이 참여해주신다. 이벤트 참여율도 지난해보다 높아졌다”며 “아무래도 시즌 시작부터 극적인 경기가 많이 나와서 그런 것 같다. 지고 있어도 경기 마지막까지 관중이 큰 함성으로 호응해주신다. 치어리더로서 관중들께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올 시즌 팬들 호응 좋아

기대한 만큼 멋진 응원 펼칠 것

최동훈 LG 응원단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준비를 많이 했다. 시범경기부터 4월까지의 새로 들어온 선수들을 위한 응원을 꾸준히 선보였다. 그런데 아직도 꺼내지 않은 응원가가 많다”며 “앞으로 서울을 강조한 응원가가 많이 나올 것이다. LG가 프로 창단해부터 서울에 자리한 유일한 팀인 만큼 서울 라이벌 팀인 두산과 넥센을 겨냥해서 만들었다”고 밝혔다.

김민지 씨는 “선수들과 마찬가지로 치어리더도 상대 팀과 응원으로 경쟁한다는 느낌을 받는다. 직접 마주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우리 쪽 응원단의 응원 소리가 더 크고 조직적이어야 한다는 목표 의식이 있다”며 “지금까지는 한화전과 롯데전 응원 열기가 뜨거웠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의식하게 되는 상대는 역시 잠실 라이벌인 두산이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올해는 이전보다 조직적인 응원이 많다. 좌석별, 남녀별 응원 구호를 따로 정해서 만든 응원가도 있다. 진지하고 엄숙한 분위기보다는 재미있는 응원이 많아졌다. 기대해주시는 만큼 멋진 응원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G**

찬물과 더운물 무엇을 마셔야 할까요?

김창엽
자유기고가

● “얼음 알갱이 좀 없나요? 냉수에 넣어 먹을 만한?”

열렬한 테니스 동호인인 송모 씨는 유달리 찬물을 즐겨 찾는 편이다. 평소 땀을 많이 흘리는 그에게 5월은 여름이나 별반 다름이 없다. 운동을 하는 중간중간 물을 자주 마시는 송 씨는 특히 차디찬 물을 좋아한다.

반면 송 씨의 친구 김모 씨는 예전부터 여름에도 ‘일부러’ 미지근하거나 조금 따뜻한 물을 먹곤 했다. 김 씨는 “찬물을 마시면 장이 편치 않은 데다, 할머니와 어머니가 갈증 해소엔 오히려 따뜻한 물이 낫다고 수십 년 전부터 말씀하셨기에 찬물을 피한다”고 말한다.

늦봄은 육체 활동이 잦은 사람들에게겐 여름이나 다름없는 계절이다. 축구나 테니스 같은 운동 외에도 이런저런 육체노동을 하다 보면 빈번하게 물병이나 물컵에 손이 가게 마련이다. 사실 보통 사람들에게 땀을 흘린 뒤 찾아오는 갈증은 웬만한 배고픔보다 우선 해결해야 할 생리현상이다. 예컨대 오랜 시간 등산을 하다 보면 배고픔도 오고 갈증도 올 수 있는데, 배고픔이야 두세 시간쯤은 견딜 수 있지만 갈증은 한번 일어나기 시작하면 10~20분 참는 것도 쉽지 않다.

갈증 해소의 긴박성은 물이 우리 몸에 가장 필수적으로 공급돼야 할 물질이라는 점을 증명한다. 그렇다면 갈증이 생길 때 어떤 물을 어떻게 마시는 게 좋을까? 격렬한 신체 활동과 땀이 동반되는 상황이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찬물을 먼저 찾게 마련이다. 하지만 오랜 경험에 따른 생활의 지혜로, 갈증이 날 때는 찬물보다 미지근한 물이나 살짝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게 몸에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갈증과 음용수 온도의 상관관계는 ‘찬물=본능’, ‘따뜻한 물=지혜’로 거칠게 요약할 수 있다. 본능을 좇든 지혜를 따르든 나름대로 장단점은 있다. 그러니 갈증이 날 때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은 찬물과 따뜻한 물의 장단점을 파악한 뒤 각자의 판단에 따라 적절히 마시면 된다. 찬물의 가장 큰 장점은 빠른 시간 안에 갈증을 달랠 수 있다는 것이다. 찬물을 마시면 혈관의 온도가 떨어진다. 특히 입안이나 식도 주변 등 찬물이 넘어가는 경로 근처의 혈관은 온도에 유



찬물의 가장 큰 장점은 빠른 시간 안에 갈증을 달랠 수 있다는 것이고, 미지근한 물의 장점은 인체에 수분을 공급하는 효율이 뛰어나다는 것이다.

달리 민감한 부위다. 마시는 즉시 체온이 떨어지고 갈증이 잡히는 듯한 느낌이 들게 한다.

반면 미지근한 물의 장점은 인체에 수분을 공급하는 효율이 뛰어나다는 것이다. 갈증은 우리 몸에 수분이 소진되고 있다는 일종의 경고 신호다. 당연히 수분을 보충해줘야 하는데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물은 몸에서 흡수가 잘된다. 찬물은 따뜻한 물과는 달리 우리 몸에서 제대로 흡수되려면 체내에서 일정한 온도로 데워져야 한다. 일정한 온도로 물을 데우기 위해서는 에너지도 필요하고 또 이 과정에서 수분의 손실이 불가피하다. 한마디로 찬물은 갈증을 신속히 다스리는 데는 미지근한 물보다 좋지만, 따뜻한 물보다 수분 보충 효과는 떨어진다는 말이다.

그러니 땀을 많이 흘리는 데 따르는 갈증을 ‘이론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찬물과 더운물을 같이 마시는 것이다. 즉 찬물을 먼저 마셔 타오르는 듯한 갈증 해소 욕구를 일차적으로 만족시킨 뒤, 이어 미지근한 물을 마심으로써 에너지 소모를 줄이고 신체 세포에 효율적으로 수분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6**

‘다이아몬드 = 필수 혼수품’ 보석업체가 만든 신화라고?

김성희
북칼럼니스트

● 빛나고, 영원하며, 드문, 그래서 값진 것. 바로 보석이다. 이 때문에 ‘보석 같은 말씀’이며 ‘보석 같은 인재’ 등 귀하고 뛰어난 것을 상징하는 데 ‘보석’이 등장하곤 한다.

책은 그 보석에 관한 이야기와 보석이 빚어낸 여덟 가지 세계사 이야기다. 정확히는 다이아몬드, 진주, 에메랄드 같은 보석과 특이하게도 시계가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지은이는 고대사와 물리학을 전공한 미국의 보석 디자이너. 그가 파리에서 열린 한 파티에서 자신이 디자인한 반지를 낀 여성 옆에 앉게 된 것을 계기로 밤새 보석에 관한 수다를 떨었는데, 이를 들은 그 여성의 남편—마침 출판중개인이었다—의 권유로 책을 쓰게 되었다. 그러나 책의 전문성이나 흥미진진함은 어느 정도 보장된 셈이다.

결혼을 앞둔 거의 모든 여성이 꿈꾸는 다이아몬드 약혼반지에 관한 진실은 허망하다. 우리는 다이아몬드 약혼반지가 결혼 자체만큼이나 오래된 서양 전통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 서양에서도 기껏해야 80년 정도로 전라레인지의 역사만큼이나 짧다.

다이아몬드 약혼반지가 ‘필수 혼수품’이 된 것은 다이아몬드의 전 세계 독점 공급권을 갖다시피 한 드비어스사의 ‘작품’이다. 제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보석에 대한 수요가 줄면서 드비어스사는 다이아몬드에 관심이 적은 미국 중산층을 공략하기 위해 ‘신화’를 만들어냈다. 광고대행사 N. W. 에이어를 동원해 신성로마제국의 황제가 된 막시밀리안 대공이 18세 때 부르고뉴의 마리에게 청혼하면서 선물했다는 ‘세계 최초의 다이아몬드 약혼반지’ 신화도 만들었다. 영화배우들에게 반지를 선물하고, 이를 끼고 대중매체에 등장하면 돈을 주기도 했다. 세계 최초의 간접광고(PPL)였다. 이렇게 해서 다이아몬드 약혼반지는 사랑의 영원함과 고귀함을 상징하는 보석으로 자리 잡았다. 1947년 드비어스사의 광고 문구 ‘다이아몬드는 영원히’처럼.

양식진주에 얽힌 이야기도 흥미롭다. 1858년 일본의 가난한 어촌의 우동집 장남으로 태어난 미키모토 고키치는 ‘아마’라고 불리는 일본 해녀들이 채취한 진주가 값비싸게 팔리는 것을 보면서 사람이 진주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고심했다. 메이지유신의 변혁에 힘입어



보석 천 개의 유혹

에이자 레이튼 지음 | 이가영 옮김 | 다른 | 456쪽 | 2만 원

과학자와 사업가로 기반을 닦은 미키모토는 결국 1896년 최초의 양식진주 다섯 알을 얻고 특허를 냈다. 이어 1920년대에는 수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양식진주의 대량생산에 성공한다. 그 과정에서 사무라이 집안 출신의 아내 우메의 기여라든지, 1927년 미키모토를 만난 발명왕 토머스 에디슨이 “내 실험실에서 만들지 못하는 물건이 있다면 바로 다이아몬드와 진주입니다”라고 감탄한 일화 등 숨은 이야기가 눈길을 끈다. 살아 있는 생명체에서 얻은 첫 공산품이란 의미에서 진주 양식이 20세기 생명공학의 시발탄이란 시각도 새롭다.

지은이에 따르면 세계사는 욕망의 역사이며, 에스파냐 왕조의 흥망성쇠, 대영제국의 출범, 프랑스 대혁명, 소련의 성립, 일본 근대화의 굵직한 세계사적 사건의 중심에 보석이 있다. 한때 그토록 보석의 위력을 높이 평가한 지은이는 책 말미에서 뜻밖의 이야기를 한다. “진짜 보석은 땅속이나 실험실이 아닌 인간의 마음속에서 태어난다… 보석의 힘으로 세상이 바뀌기도 했다. 하지만 보석은 물건일 뿐이다… 보석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뿐이다. 우리의 욕망을 반사해 다시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누구인지 알려주는 것이다”라고.

책을 읽는다고 다이아몬드가 흑연과 같은 탄소 덩어리로 보이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보석을 보는 눈은 달라지지 않을까 싶다. **G**

늙지 않게 사는 법

● 연전에 여든의 나이로 세상을 뜬 윌리엄 사파이어라는 미국의 대표적 보수 논객이 있다. 다채로운 경력을 가진 그는 43세에 뒤늦게 뉴욕타임스(NYT)로 영입돼 1973년부터 2005년까지 만 32년간 칼럼니스트로 활동했다. 요즘 유행하는 ‘예쁜 얼굴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루키즘(Lookism : 외모지상주의)’은 그가 만든 신조어다. 세계 언론계 최고 권위인 풀리처상도 받았다.

최후의 순간까지 그는 생의 에너지를 불살랐고 다채롭게도 살았다. 시러큐스대학을 중퇴한 뒤 스무 살에 뉴욕헤럴드트리뷴에 입사해 신문기자와 유럽지역 방송 특파원을 지냈다. 이어 사업가로 변신해 홍보대행사를 직접 운영했다. 자신의 고객 중 한 명이던 니키타 흐루쇼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의 주방을 공개해 모스크바에서 리처드 닉슨 미국 부통령과의 ‘주방 토론회’를 성사시켰다. 넬슨 록펠러의 뉴욕주지사 선거운동 등에 참여해 직접 정치에 뛰어든 그는 닉슨 대통령 시절 백악관 연설 담당 보좌관으로 일했다. 이어 43세에 NYT의 부름을 받아 언론계에 복귀했다.

사파이어는 직업인으로서 엄청난 ‘생산성’을 자랑한다. NYT 칼럼니스트로서 1973년부터 2005년까지 매주 2개꼴로 3000개가 넘는 칼럼을 썼다. 바쁜 와중에 자신의 백악관 시절을 정리한 회고록과 4권의 소설도 냈다. 그는 자타가 공인하는 톨통 보수주의자. 그럼에도 진보 매체인 NYT는 은퇴 특집으로 한꺼번에 그가 쓴 4개의 쿼텟(Quartet) 칼럼을 실는 특별대우를 했다. 마지막 순간까지 삶의 에너지를 불살랐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 것이다. 그는 자신이 NYT에 쓴 마지막 칼럼 제목인 ‘절대 은퇴하지 마라(Never Retire)’라는 주장을 스스로 실천한 사람이다. “중년 이후에는 재충전과 호기심, 두 가지를 갖춰야 한다”며 “변신을 통한 건강한 삶”을 주장했다.

대개 한국의 경우 은퇴를 하면 지레 기가 죽어 산을 찾거나 적당히 편한 자리를 선호하는 사람이 많다. 그런 면에서 속눈썹이 날리도록 바빴던 사파이어의 삶은 주목된다. 우리는 너무 빨리 조로(早老)하는 경향이 있다. 속도감이 오늘날 한국의 번영을 가져왔다는 주장도 있지만 곰곰 생각해보면 그 도가 지나친 점이 있다. 사탕 하

김동률

서강대 MOT대학원 교수
(언론학·매체경영)

나를 입에 넣더라도 끝까지 빨아 먹는 한국인은 드물다. 서너 번 빨아보다가 이내 우두둑 부쉬 먹어야 성이 차는 민족이다.

학창 시절로 돌아가보자. 큰맘 먹고 산 책도 앞부분은 손때로 새까맣지만 뒤로 가면 깨끗하다. 그 옛날 헌책방에서 가장 인기 있는 책은 오래 앞만 약간 사용한 흔적이 있을 뿐 뒤로 갈수록 깨끗한, 새책 같은 헌책이었다. 쉬이 끓고 쉬이 식는 냄비 근성을 지닌 민족이라는 비판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물론 이렇게 급한 한국인의 성정은 압축 성장이라는 긍정적인 결과도 남겼다.

문제는 이 땅에서 칠순을 넘기고도 왕성하게 활동하는 인물은 정치인을 빼고는 찾아보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능력 없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능력이 출중하고 건강한 사람조차 미리 겁부터 먹고 인생 2모작에 용기를 내어 올인하는 경우는 드물다. 풍요로운 생활과 높은 의료 수준 덕분에 청년 같은 장년들이 서울 거리에 넘치고 있다. ‘지공대사(지하철을 공짜로 타는 노인층)’ 어르신들이 곳곳에 눈에 띈다. 그러나 능력이 있건 없건 9988(99세까지 팔팔하게)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으면 무조건 뭐라도 해야 한다. 요한 볼프강 폰 괴테는 여든 살에 <파우스트>를 완성했고 파블로 피카소나 파블로 카잘스 같은 인물도 칠순 넘어서까지 맹렬한 예술 활동으로 명성을 떨쳤다. 노익장이 넘치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다. **G**

책이 있는 삶, 문화융성카드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문화융성카드가 함께 합니다.



도서 할인

지역서점 이용 시 15% 청구 할인

도서 할인 서비스 제공 조건 안내

전월 이용 실적	월간 할인한도
10만원 이상	월 1회, 매출 건당 5천원 할인 한도
30만원 이상	월 2회, 매출 건당 5천원 할인 한도

영화 할인

영화 2천원 청구 할인

CGV / 롯데시네마 / 메가박스 / 인터파크 2천원 청구 할인

스포츠 할인

4대 프로 스포츠 이용권 2천원 청구 할인

프로야구 / 프로축구 / 프로농구 / 프로배구 2천원 청구 할인

※ 영화/스포츠 할인 서비스는 전월 이용실적 30만원 이상 시 제공됩니다.

CJ ONE 멤버십

CGV / 뚜레쥬르 등 CJ ONE 가맹점에서 이용 시 CJ ONE 포인트 적립 및 사용

문화 플랫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민 문화 생활 증진을 위해 제공하는 공연 및 문화생활 할인 서비스

여행주간에만 만날 수 있는
수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떠나세요
봄이 있는 이 땅으로

[경남 합천 황매산]

이 봄, 당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2016 봄여행주간

다양한 여행할인 혜택과 봄 여행의 즐거움이 가득한 여행주간!

지금 바로 [여행주간]을 검색해보세요(<http://spring.visitkorea.or.kr>)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KOREA TOURISM ORGANIZATION



관광민원전화
1330
Korea Travel Hotline



대한민국
국석구석



2016 여행주간
(5.1~5.14)